한국교회 학원선교 위기와 대책

: 명지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종화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3년 5월

Copyright © 2023 Jonghwa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HE CRISI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N CHURCH SCHOOL MISSION

: FOCUSED ON THE CASE OF MYONGJI HIGH SCHOOL

Jonghwa Kim

Myongji High School Chaplain, Seoul

The rapid decline of Korean Church and the loss of the identity of Christian schools are major causes for the decline of the Korean Christianity. Since 2012, Korean churches confronted a rapid decrease in number. In the same context, the 2010 Supreme Court ruling, the case of Eue Seok Kang of Daegwang High School, the 2012 enforcement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in Seoul, and the biased media reports against Myongji High School Revival Meeting in 2012.

The early Christian missions in Korea originated from educational missions through Christian schools. Christian education was conducted to sympathize with suffering for division and discrimination between nobles and peasants, men and women, adults and children, Japanese colonialism, and the ravages of Korean war.

Christian schools have established the next generation. During Independence Movement Day, 823 Christian schools became the center for protest against Japanese

colonial oppression. Christian NGO activities such as World Vision, founded during the Korean War, helped victims of war. Missionaries planted new hopes for freedom and equality based on the gospel. Bringing new era with the revival of churches and schools. However, founding spirit and educational policy of Christian school are being weakened under the pretexts of ‘high school standardization’ and the alleged claim of ‘individual choice.’

Therefore, I contribute 20 years of experience as school chaplain to restore disparaged and distorted perception of modern Christian schools. This dissertation regards to the continuation of early Christian school mission’s history by increasing unity between church, school, and various institutions.

국문초록

한국교회 학원선교 위기와 대책

: 명지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화

명지고등학교 교목, 서울

한국교회 교인의 급격한 감소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상실은 한국 기독교 전체의 쇠퇴와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 2012년, 한국교회 부흥이 멈추고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는 2010년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사건 대법원 판결, 2012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시행, 2012년 명지고등학교 신앙부흥회 편향적 보도와 맥을 같이 한다.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는 기독교학교를 통한 학원선교에서 기인한다. 양반과 천민,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 등의 엄격한 구분과 차별, 일제강점기 식민지 사회와 전쟁 폐해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는 기독교교육이 실시되었다. 교회는 학교를 세웠고 변화의 중심이 되었다.

기독교학교는 다음세대를 세웠다. 3.1운동 당시 823개의 기독교학교가 중심이 되어 피압박 민족의 아픔을 외치며 불의에 항거하였다. 전쟁 속에 태어난 NGO 월드비전은 고통 받는 이들을 치유하였다.

부활절 아침, 아펜젤러 선교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간절한 기도는 씨앗이 되어 자라나 차별이 철폐되었고, 고통의 시련 앞에서 새 시대 새로운 소망을 심으며 교회와 학교의 부흥을 가져왔다.

하지만 지금은 평준화와 차별, 개인의 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방침 그리고 진리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이에 기독교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회고하고, 기독교학교의 폄하와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20여년간 교목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연구자와 학교가 처했던 위기상황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독교학교의 좋은 전통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학교, 기관, NGO, 언론, 법조계, 교육계가 하나로 연합함으로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의 찬란했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목 차

감사의 글 …… x

제 1 장 서론 …… 1

1.1 연구 동기 및 목적 …… 1

1.2 연구의 방법과 전개 …… 5

제 2 장 파커 팔머의 진리 공동체 …… 7

2.1 다음 세대의 위기 …… 7

2.2 진리 공동체 모형 …… 9

2.3 진리 인식의 방법: 기도 …… 12

제 3 장 초기 기독교학교 …… 15

3.1 기독교학교의 출현 …… 15

3.2 배재학당(최초의 근대교육학당) …… 19

3.2.1 설립자 아펜젤러 선교사 …… 19

3.2.2 배재학당 설립 …… 21

3.3 이화학당(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 24

3.3.1 조선시대 여성 …… 24

3.3.2 설립자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 …… 25

3.3.3 이화학당 설립 …… 27

3.3.4 초기 이화학당의 교육 …… 28

3.3.5 김점동 …… 29

3.3.6 유관순 …… 31

3.4 경신학당 …… 33

3.4.1 설립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 33

3.4.2 경신학당의 교육 ····· 35
3.4.3 경신출신 독립투사(3.1운동 기준) ····· 35
3.4.4 김규식 ····· 36
3.4.5 안창호 ····· 38
3.5 3.1 독립운동을 이끈 기독교와 기독교학교 ····· 38
제 4 장 기독교학교 정체성의 위기 ····· 41
4.1 기독교학교의 위기 ····· 41
4.2 명지고등학교 학원선교의 위기 ····· 47
4.3 사립학교의 위기 ····· 64
제 5 장 명지고등학교 학원선교 현황 및 대책 ····· 71
5.1 명지고등학교 학원선교 ····· 71
5.2 월드비전 ····· 74
5.2.1 사랑의 도시락 ····· 75
5.2.2 나눔클래스 ····· 76
5.2.3 사랑의 동전밭 ····· 79
5.2.4 기아체험 ····· 80
5.2.5 베이직포걸스 ····· 84
5.3 장애인 교육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 89
5.3.1 명지고등학교 특수반 ····· 89
5.3.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 90
5.3.3 한사랑 힐링캠프 ····· 91
5.3.4 초록우산 품다 캠페인 ····· 95

5.4 샘물호스피스 봉사 활동 …… 96
5.5 소록도 봉사 활동 …… 98
5.6 학생간부수련회(크리스천리더십캠프) …… 99
5.7 구별된 삶: 채플(예배) 및 학급목회 …… 100
5.8 기독동아리 활동 …… 102
5.9 릴레이금식중보기도 및 성경암송대회 …… 103
5.10 학부모 기도회 …… 103
5.11 신임 교사 간증 …… 104
5.12 졸업생 간증 …… 108
5.13 교목실 활동 …… 114
제 6 장 결론 …… 115
참고 문헌 …… 121
부록 …… 126

감사의 글

교목 삼부자(三父子). 평생을 교회와 학교의 음악선교, 학원선교 교목으로 헌신하시고 은퇴하신 아버지 김한배 목사님, 그 뒤를 이어 먼저 학원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늦깎이 유학까지 다녀와 지경을 넓혀 일하시는 형님 김종성 목사님, 열정적으로 학원선교를 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좇아 줄기차게 달려왔던 학원선교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어머니 김영자 사모님의 자녀를 위한 끊임없는 사랑과 후원, 장인 황원이 장로님과 장모 오화자 권사님의 응원과 기도가 있었기에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학원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마다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외롭지 않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한 교회 사역, 그리고 어느 덧 20여년째를 맞는 학원선교의 사명을 따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전공 신학대학원에서 지도해주신 만남과 인연 가운데, 계속해서 드루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시고 논문의 마지막까지 지도해주신 김영래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 더욱 깊고 넓게 통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신 성경통독원 조병호 박사님, 성경에 대해서 더욱 깊은 애정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님께서는 기호학 등 기독교 성화와 문화 이해, 감추어진 성경 일화를 보여주심으로 영적인 감각과 새 지평을 열어 주셨습니다. 두분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처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학원선교의 장을 추천해주신 감리교신학대학교 송순재 교수님, 친절하게 학원선교의 열정과 삶을 보여주신 이화여자고등학교 교목 이종용 목사님과 국화용 목사님, 교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수련목회자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안수받도록 지도해주신 창천감리교회 박춘화 감독님, 학원선교의 위기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신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과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김운성 목사님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이재훈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님과 사학비상대책위원회 김정석 감독님과 학원선교회 김종훈 감독님과 이용원 감독님, 한국기독교학교연맹 백영철 이사장님과 안두선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명지고등학교에서 교목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환영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신 박성수 장로님, 명지고등학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시고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해주시는 양근석 장로님, 교목 사역과 연합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명지학원 현세용 이사장님과 유재훈 사무국장님, 명지대학교 구제홍 목사님, 명지대학교교회 유병우 목사님과 이광훈 목사님,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님과 장영진 본부장님 그리고 늘 기도해주시는 학부모 기도회와 교사 기도회, 수고해주시는 교목실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과 학원선교 사역을 위해 늘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아내 황성화 사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헤아릴 수 있도록 해준 사랑하는 딸 유은이와 유빈이에게 감사합니다.

힘든 학원선교의 현장에서 지금도 함께 일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학원선교의 길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기도와 순종과 헌신으로 척박한 이 땅을 은총의 땅으로 만들어주신 선교사님들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제 1 장

서 론

1.1 연구 동기 및 목적

기독교학교의 평준화, 사립학교법 개정,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세속화 등으로 기독교학교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독교 교세의 급격한 감소와 기독교학교의 위기는 전체 기독교의 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015년 12월 29일과 2016년 3월 2일자 기독공보를 보면 현재 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상황을 통감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100 회 총회에서 통계위원회가 보고한 자료(2014년 말 현재)에 따르면 전체 성도 수가 2010년에 285만 2,31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세를 보이고 있다. 교세가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2010년에 비해 무려 4만 2,840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즉 100명이 모이는 교회 428개가 문을 닫은 격이다. 교회학교를 아동(6년 유년・유치・소년)과 청소년(6년 중・고등)으로 나누어서 보면 청소년이 아동보다 7,77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회학교 학생들의 출석이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세 감소 폭은 유・초・소년부 8-13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5년 26만 9,911명 10.62%에서 2008년에는 26만 2,903명 9.7%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17만 8,438명까지 감소하면서 전체 교인의 6%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중・고등부 14-16세 사이의 감소 추세는 최근 4년 간(2012~2015) 가장

급격했다. 2005-2009년에 전체 교인이 26만여 명 증가한 통계에 비례해서 중・고등부(1만 5,000명 증가)의 증가폭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전체 교인의 감소 폭이 주춤하는 시기엔 2014년 중・고등부가 15만 2,327명으로 하락하여 전체 교인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5.42%에 불과했다. 다음세대를 향한 한국 교회의 초점이 14-16세, 청소년에게 집중되어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교회학교에서 멈추지 않고 청년과 장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교회학교 위기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2016년 5월 21일자 기독교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감리교회 또한 교세 변동율이 전년 대비 5.67%(78,035명) 감소하였고, 2011년 1,322명이 교회를 떠난 것을 시작으로 5년 사이에 21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교회학교 아동의 교회 이탈도 심각하다. 2016년 4월 연회 기준 감리회 현황에 따르면 전국 감리회 소속 13세 미만 아동교인 숫자는 원입인(104,989명)과 세례인(89,089명)을 합쳐 총 173,676명이다. 이는 원입인과 세례인을 포함 216,234명이었던 지난해 아동 교세대비 42,558명이 감소한 수치다. 감리교회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교회학교 아동 교세는 가장 많았던 지난 2006년(369,613명)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2015년 감리교회를 떠난 78,035명 중 아동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5.47%이다.

최근 국민일보 보도에서 다음세대에 대한 교육 문제는 출산율 저하와도 맞물려 심각하게 보도되었다.

> ‘2022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에서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출생아는 겨우 24만 9,000여명에 그쳤다. 2012년(48만 5,000여명)과 비교하면 10년만에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것이다. 교회학교도 저출산 충격을 그대로 받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최근 10년간 교세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전국

> 감리교회에 다니는 12세 이하 아동은 26만 977명이었으나 지난해엔 14만 3,278명이었다. 감리교회 출석 어린이가 10년 만에 45% 감소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2012년 발표한 영아부(만 36개월 이하)부터 소년부(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등록 인원은 30만 1,409명이었다. 2021년 집계에서는 그 수가 41.5% 감소한 17만 6,321명으로 나타났다. 예장통합 서울서북노회가 지난해 4월 소속 교회 215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3%가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지난 2일 개신교인(2,000명) 비개신교인(1,000명) 목회자(802명)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꼽는 가장 큰 어려움도 '다음세대 교육 문제'(45.6%)였다.[1]

특별히 다음세대 교육 문제와 함께 주목해야 할 주요 교단의 교인수 추이가 있다. 2011년 8,367,983명을 기점으로 '2012년' 부터 교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2] 교인 수가 줄어든 2012년 시점에서 교회학교는 2023년 현재 40%이상 절반 가량 학생 수가 대폭 하락했으며, 목회자들이 주목하는 가장 큰 난제로 나타났다.

교인수의 감소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2010년 '대광고 강의석 사건'의 대법원 판결,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기독교학교 선교활동 제재[3](서울시교육청 2012년), 2012년 명지고 '신앙부흥회' 편향적 보도[4], 2019년 '동성애' 관련 한동대·숭실대학교

---

[1] 국민일보 (2023.3.6).

[2] 부록 참조.

[3]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2018-2019년에는 경상남도에서 경남교육청 주도로 제정이 시도되었지만, 기독교계를 주축으로 하여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심하여 결국 제정 시도는 좌절되었다. 2020년 충남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7월 10일 공포되었다. 2023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발의되었다.

[4] 2012년 8월 9일 한겨레신문 사회면에는 기말고사 후 축제 성격이 강한 7월 교내 '신앙부흥회'를 <수업대신에 '할렐루야', 학교는 '종교감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악의적 기사가 실렸다.

등 기독교대학 제재[5], 2020년도 ‘교사임용관련’ 명지고 서울시교육청 제재[6] 등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제 21 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전체 사립학교법의 61% 개정안으로 사학법 전체 조문 74개 조항 중 45개 조문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중 사학 지원에 관한 개정안은 전무하며, 대부분 사학 규제에 관한 개정안으로 점철되었다. 기독교학교는 내적으로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기독교교육에 대한 질적인 평가, 외적으로는 평준화 정책,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사립학교법 등 법과 제도의 위기와 함께 기독교에 대한 편향된 부정적 사회 인식과 더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종교화 현상과 한국교회의 약화, 인구감소와 사립학교 준공립화에 따른 기독교교육 제재 등으로 기독교학교 정체성의 위기와 교육정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7]과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8]는 특색

---

[5]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한 숭실대와 한동대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기독교 신앙을 설립이념으로 한 학교에서 다자성애(난교), 동성애 합법화 등 부도덕한 성적자기결정권 강연회를 허락하고, 성소수자 커플 결혼식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와 도덕성 파괴,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과 종교 자유의 침해를 받고 있다.

[6] “2017-2019학년도 명지고 기간제교원 초빙 공고에서 2차 시강 및 면접 당일 제출 서류로 해당자에 한하여 ‘세례교인증명서’ 제출을 명시하였다. 교육청은 ‘면접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구직자에 대해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사상, 종교 등 민감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기독교학교에서 설립정신과 교육방침에 따른 직무수행과 무관하거나 반하는 비종교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가 교사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도 교사초빙으로 세례교인증명서와 신앙교육 계획서 제출, 신앙인격 교육계획 발표 및 면접이 주어졌던 당시에 비해 교원임명권을 가진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부록 참조.

[7] “초중등교육법 제3조는 학교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분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사립학교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을 그 정체성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학공영화 정책은 사립학교의 공립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사립학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사립학교로서 기독교학교는 그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기독교학교 』(2022 가을호), 39.

[8] “2025년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는 ‘고교학점제’도 사립학교, 특히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존재목적으로 하고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다양성과 이를 위한 학생의 선택권을 신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다양성과 학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는 획일화시켜 놓고 그 안에서 과목만 선택하도록 하는

있는 학교 단위 교육과정을 무력화 시킴으로 기독교학교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교육의 위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종교계 사립학교(종립학교)가 처한 위급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기독교학교는 과거 평준화에서부터 사립학교법 개정과 다가올 고교학점제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세운 목적인 설립정신구현과 교육방침 상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에 의해서 세워진 교육 방향은 개인의 학습권과 자율성에 초점을 두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공동체성은 약화되었고, 공교육 특별히 기독교학교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기독교학교의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연구자가 현장에서 사역하는 교목으로서 명지고등학교에서 직접 경험했던 위기 상황과 더불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대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전개

제 2 장은 본 논문의 사상적 배경으로 미국의 존경받는 교육 지도자이며 사회 운동가 파커 팔머(Parker J. Palmer)의 이론적 개념인 '진리 공동체'를 바탕으로 전개한다. 교육은 위에서 강하게 통제하고 전달하는 억압된 형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교류 속에서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 있는 친근한 '연합'의 구조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 3 장은 초기 기독교학교가 권위와 군림의 일방적

고교학점제는 학교단위의 교육과정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교육은 과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체가 교육과정이며, 형식적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건학이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상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39.

교육이 아닌, 가장 낮고 천하다는 계층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진리를 향해 함께 손잡고 치유해간 그물망 구조의 교육 선교의 역사를 살펴본다. 천대받던 이들이 최고의 인재요 지도자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요, 억압과 고통의 시대를 이겨낸 기적의 역사이다. 학원 선교 목적을 위해 교육하였던 기독교학교 진리 공동체를 통해 변화된 백성과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 회복, 전국 823개의 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3.1운동을 비롯한 독립 운동, 기독 리더십을 가진 인재 양성을 통해 구국 운동을 펼쳤던 역사들은 기독교학교가 있었기에 가능한 행보들이었음을 소개한다. 제 4 장은 현재 기독교학교 정체성의 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기독교학교의 교육이 위축된 상황, 명지학원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설립정신과 교육방침의 직무를 수행할 교사 임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사학의 기본권인 교원 임명권을 침해한 사례, 왜곡된 언론보도에 관하여 관계기관들과 연합적 대처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해결해간 상황들을 기술한다. 제 5 장은 기독교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온 명지고등학교 기독교교육 실제의 역사를 연구자의 교목 활동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 당면한 기독교학교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연합활동을 통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명지고등학교 신임교사로 임용된 교사와 졸업생의 간증을 통해서, 기독교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인한 가르침 그리고 배움의 영성에 대한 중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본다.

제 2 장

파커 팔머의 진리 공동체

2.1 다음 세대의 위기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위기는 촉법소년의 문제들과 함께 큰 불안감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학교는 설립목적과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교육 공동체이기 보다는 개인의 특수성과 선택권에 더욱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준으로 교육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세워진 교육 공동체들이 획일화 속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천종호 판사[9]는 '법의 잣대는 엄격하게 하지만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보는 시각은 더욱 따뜻해야만 세상은 더욱 정의로운 세상을 맞이한다'고 믿는다. 그는 '인간은 공동체적 피조물인 동시에 관계의 중요성을 가진 존재'임을 강조했다.

>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두 가지 근본 전제가 주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다. 창조된 존재라는 것은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뜻이고,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자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전제는 기독교인 정체성의 근본이다.[10]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 주신 다음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갚을 수는 없으니, 대신 인간 상호 간에 갚으라고 요청하신다. 이것이 바로

[9] "소년범들을 법정에서 엄하게 꾸짖는 '호통 판사', 자나 깨나 소년들 생각 뿐이라는 뜻의 '만사 소년', 오랜 소년법원 판사 생활 중 얻은 '소년범의 대부' 등의 별명을 가졌다." 천종호,『하나님 나라와 공동선』(서울: 두란노, 2022), 프로필 참조.
[10] Ibid., 139.

>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웃 사랑을 위한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이웃으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웃으로 하여금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영화롭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11]

천종호 판사의 이야기는 파커 팔머[12]의 '진리 공동체'와 맞물려 있다. 일방적 형태의 전통적인 집단 모형은 관계성과 개인의 능력이나 내면 성향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 축적만을 중요시하는 인간을 양성해낸다. 이러한 사회는 학벌주의를 낳고 그로 인해 인간 교육은 실종되고 만다. 부도덕적이며 공익의 관점을 갖지 않는 엘리트를 만들어낼 뿐이다. 교육현실[13]은 학생의 요구와 관심에 따라 오직 입시에서의 승리라는 한 목표로만 몰고간다. 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것 하나만으로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인생으로 전락한다. 팔머는 이런 비교육적 평가가 계속될 때 다수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실망감을 품게되며, 결과적으로 몇 명의 엘리트들 만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극소수의 사람들 만이 권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희소성 가진 엘리트 계급이 형성되어 공동체 파괴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고 있다.[14]

---

[11] Ibid., 143.

[12] "파커 팔머는 미국의 존경받는 교육지도자요 사회운동가이며 '미국 고등교육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명이자 지난 10년간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 핵심 인물'로 선정된 인물이다. 그의 교육철학은 지성, 감성, 영성을 하나로 통합하며 '교사의 교사',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우며, 4개 대학의 명예교수, 전미교육언론협회로부터 '교사와 개혁가들에게 공동체, 안다는 것, 영적으로 하나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주었다'는 이유로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김종화,『파커 팔머 (Parker J. Palmer)의 진리 공동체 연구』(감신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2.

[13] "기계적 암기식 교육에 대하여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iere)는 학생이 은행 금고이고 교사는 예탁자로서 예금을 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나타난다고 비판을 가한다. 의사를 소통하는 대신 교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인내를 가지고 취득, 암기, 반복하는 학생들에게 저장을 시킨다는 것이다. 은행저축식 개념에는 암시적으로 인간과 세상이 양분되어 있다는 가정이 있다. 인간은 단지 세상 안에 있으며 세상과 함께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인간은 구경꾼이며 재창조자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의식적 존재가 아니며, 그는 단지 의식의 소유자일 뿐인 것이다." 김영래,『기독교교육과 앎』(서울: 다산글방, 2002), 258-259.

[14] "팔머는 이 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보며, 미국인들은 세계인구의 6% 남짓을 차지하지만 세계 자원의 1/3이상을 소비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다수에 대한 소수 지배의 희소성에 대한 가정과 합리화, 공동체의 파괴에 대하여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Parker J. Palmer,『예수가 장자를 만날 때』, 한희지 역 (서울: 도서출판 다지리, 2001), 161-166.

팔머의 ‘진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집단이 아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었다. 관계성이 없는 ‘죽은 집단’이 아닌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 있는 공동체’ 모형들을 파악해 내었다. 둘째,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전통적 모형과 관계 지향적인 진리 공동체의 모형을 분석해 내었다. 교육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내었으며 나아가 해결 방안으로서 후자의 모형을 소개 하였다. 셋째,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동체 내에서 이룰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진리를 발견하며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넷째, 교수-학습 과정의 변화를 모색하여 교사와 학생의 적용점을 찾았다. ‘education’의 의미처럼 ‘끄집어 넣는 교육’이 아닌 ‘이끌어 내는 교육’으로 공동체 교육을 완성하였다.[15]

즉 팔머는 ‘교육은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함께 살아가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실의 규명과 함께 관계성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를 학습의 목표로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2.2 진리 공동체 모형

팔머는 가르침에 대하여 “진리 공동체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16]라고 정의한다. 단순히 강압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관계들이 그물망처럼 풍요롭고 복합적이다. 듣고 말하고 다른 이들에게 요구하며 책임지는 새로운 이미지 형태이다. 다른 이들과 함께 단절된 것에 대해 깊이 살펴보는 구조이다. 교육의 본질에 따른 최선의 치유책을 찾아가는 일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는 ‘진리 공동체’이어야 한다. 진리 공동체 모형은 공통적인 주제를 향해 수렴하며 나아간다. 팔머에게 인식은 관계를 통한

---

[15] 김종화,『파커 팔머 (Parker J. Palmer)의 진리 공동체 연구』, 3.
[16] Parker J. Palmer,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종태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2001), 83.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이 커뮤니티의 서클 안에는 늘 하나의 주제가 있다. 객관론 사다리의 맨 꼭대기를 점유하는 대상과는 아주 큰 대조를 이룬다. 주제와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인식, 가르침, 배움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주제는 관계에 이바지하지만, 대상은 그렇지 못하다. 타자를 하나의 주제로 생각할 때, 우리는 타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 타자를 인식한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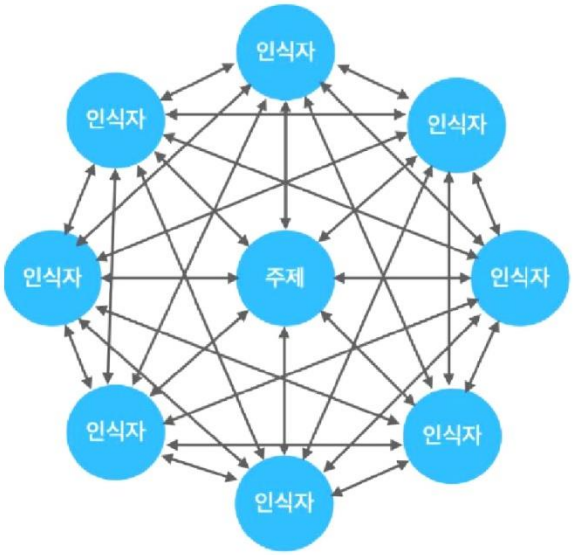


그림 1 진리공동체 모형(Parker J. Palmer, 『가르칠 수 있는 용기』, 177)

단순히 자신이 지식을 받고 축적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 관계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대한 스승은 진실을 일깨워 서로 만나 직면케 하는 사람이요, 교육은 활발한 관계 순환 속에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

> '교육하다'(educate)의 어근적 의미는 '이끌어내다'(draw out)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따라서 교사의 임무는 학생들에게 사실들을 채워 넣는 것이 아

[17] Parker J. Palmer,『가르칠 수 있는 용기』이종인 역 (서울: 한문화, 2002), 178.

> 니라 학생들의 내면에 들어 있는 진리를 불러 일으키는 것임을 상기시켜 준다.[18]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아보다 더 큰 세상, 자신의 개인적 경계를 확장시켜 주고 자신의 공동체 의식을 넓혀주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나는 것을 최고로 중요시한다. 학생들은 위대한 스승을 가리켜 사물을 '소생시키는' 사람, 학생들에게 삶의 진실을 일깨워주는 타자성과 만나게 해주는 사람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주제와 인식자 사이에 수없이 많은 화살표의 관계망이 있다. 이것이 진리 공동체의 핵심인데 이를 리얼리티 즉 실재라고 본다. 실재는 관계의 연결망이며, 우리는 그 연결망 속에서 일체감을 획득할 때 실재를 인식하게 된다. 이는 결코 직선적, 정태적, 위계적이지 않고 순환적, 상호작용적, 역동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19]

팔머에게 있어서 진리는 인격적이다. 모든 진리는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서 알려진다. 진리가 인격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또한 대상이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예수가 '내가 진리다' 라고 한 것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선언이요 성육신 시킨 진리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로, 또 자신을 통해 인간 및 비인간 세계로 이루어진 전체 공동체와 관계로의 초대이다. 이것이 세상의 단절과 분리를 넘어서는 예수의 넓은 포용력이요, 인격적인 진리이다.

> 기독교 전통의 중심 주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 바깥의 천상의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이다. 영과 물질이 하나로 융합되었고 온전하게 되었다. 이 진리는 '타당한' 개념이 아니라, 살아 있는 성육신이다. 기독교 영성에 의해 형성된 교육은 우리를 성육신적, 인격적 진리로 이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반응을 하는 유기적 몸으로서, 창조성과 자비가 있는 살아 있고 성장하는 공동체로서 인식하게 된다.[20]우리가 진리라 불리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만이 예수라 불리는 한 개인과 우리

[18] Parker J. Palmer,『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74.
[19] Parker J. Palmer,『가르칠 수 있는 용기』, 178-179.
[20] Parker J. Palmer,『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37-38.

> 자신과 다른 사람들 속의 진리 뿐만 아니라 마틴 부버(Martin Buber)가 말하는 더 이상 '그것'(It)이 아닌 철저하고 깊이 있게 '당신'(Thou)인 우주 전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의 인격적 진리는 분리적이거나 차별이지 않고 궁극적으로 넓은 포용력을 지닌다.[21]

2.3 진리 인식의 방법 : 기도

팔머는 기도로 충만한 앎을 이루는 교육방식을 요청한다. 기도가 바로 관계성의 실천을 가져오며 광대한 생명 공동체로 들어가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자신과 타인, 인간과 인간 외의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얽힌 생명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이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다른 이들과 세계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으며, 자기 욕망이나 만족을 위해 이용하거나 조작하지 않는다. 스스로 상호성과 책임성의 끈을 느끼도록 손을 내밀 때, 초월적 중심을 알게 되며 공동체는 하나로 결합된다. 공동체 안에 자신의 자리를 잡는다.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공동체가 분열과 파괴되어가는 현상 속에서, 기도는 자신을 결합시켜주는 중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중심의 실재 또한 자신을 향하여 옴을 알게 된다.

> 기도를 통해, 만물의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랑에 말을 걸 뿐 아니라, 또한 그 사랑이 내게 말을 걸어와 나를 격리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공동체와 자비로 불러들이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를 창조했으며 지탱하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각자를 세세하고 깊숙이 알고 있으며, 그 사랑이 아는 바 된 우리는 우리가 의존하고 또한 우리에게 의존하는 창조 세계 공동체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기도에 흠뻑 젖은 지성은 더 이상 분리와 정복, 조작과 지배를 목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이제 사고는 사랑의 행위, 공동의 유대를 인정하고, 창조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올바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22]

---

[21] Ibid., 83.
[22] Ibid., 33-34.

오늘날 현대 문명의 사고는 전문화, 기계화, 자동화로 대표되며, ‘지식’에서 ‘삶’으로의 요청을 단절시켰다. 이는 팔머가 말하는 ‘가르침이란 진리 공동체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라는 정의가 학교에서 실현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학교는 ‘삶’이 버려진 ‘지식’을 가르치는 곳으로 변모되었고 경쟁력만을 강조하는 잘못을 범하게 했다. 이로 인해 다수 학생들은 버려지고 짓밟히게 되면서 일탈을 가져왔다. 촉법소년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교육 공동체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현실 속에서도 교육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재고 없이, 여전히 교육은 학생의 개인적 요구에만 점철되어 관심을 더욱 집중하고 있다. 오직 입시에서의 승리라는 목표로만 몰고가는 교육현실은 교육현장을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공장에서 불량품을 분류하듯 ‘문제아’라는 낙인 아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배우는 ‘지식’ 또한 시험을 위해 정보를 기억하는 죽은 ‘지식’이 되고 있다. 교육 기관은 기업이 요구하는 ‘상품’ 생산의 현장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에 교육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팔머의 ‘진리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조와 사상은 교육에 새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대안이다. 단절된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진리를 향한 그물망 같은 관계성을 형성해갈 때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게 된다. 이는 현재 공교육과 함께 기독교학교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주시해야 할 핵심사항이다. 과거 이 땅에 초기 학원선교를 위해 기독교학교가 ‘진리 공동체’를 세움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회복되었고, 고통의 땅은 은총의 땅으로 변하였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 교육 현안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洋鬼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은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23]

[23] 언더우드 기도문(1890년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됨(언더우드가 기념관)).

제 3 장

초기 기독교학교

3.1 기독교학교의 출현

기독교 계열 사립 학교(1885-1910)

연도	학교	설립자	장소	연도	학교	설립자	장소
1885	배재학당	미북감리회	서울	1903	루씨학교	미남감리회	원산
	경신학교	미북장로회	서울		정명학교	미남장로회	목포
1886	이화학당	미북감리회	서울		영흥학교	미남장로회	목포
1887	정신여학교	미북장로회	서울	1904	호수돈여숙	미북감리회	개성
1892	영화학당	미북감리회	인천		진성여학교	미북장로회	원산
1894	광성학교	미북감리회	평양	1906	영명학교	미남감리회	공주
	숭덕학교	미북감리회	평양		현산학교	남궁억등	양양
1895	일신학교	미북장로회	동래		계성학교	미북장로회	대구
1896	정진학교	미북감리회	평양		신성학교	미북장로회	선천
	공옥학교	미북감리회	서울		신성여학교	미북장로회	선천
1897	숭실학교	미북장로회	평양		의명학교	미안식교회	순안
	신군학교	미북감리회	서울		한영서원	미남감리회	개성
1898	배화학교	미남감리회	서울	1907	오산학교	이승훈	정주
	명신학교	미북장로회	재령		보성여학교	미북장로회	선천
	맹아학교	미북감리회	평양		대성학교	안창호	평양
1900	기전여학교	미남장로회	전주		신명학교	미북장로회	대구
	신흥학교	미남장로회	전주	1908	수피아여학교	미남장로회	광주
1902	매향학교	미북감리회	수원		숭일학교	미남장로회	광주
	삼일학교	미북감리회	수원		창신중고교	호주장로회	마산
1903	숭의학교	미북장로회	평양	1910	매산학교	미남장로회	순천

표 1 기독교계열사립학교(백영철, 『종교와 생활II 상』(서울: 생명의말씀사, 2023), 16)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3:16). 1885년 부활절 아침,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빛을 전할 선교사들은 사명을 가지고 조선에 발을 내딛는다. 과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였고, 교육과 치유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주었다. 여기에는 수 많은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 소외된 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노예와 같은 식민지 사회에서 진리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가르치며 파괴된 인권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 쳤던 삶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24]

1890년을 전후로 하여 기독교학교들은 선교사들과 한국의 토착교회와 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학교가 설립된다. 1884년 9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알렌(Harace N. Allen)이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한 이후 1885년 4월 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H.G. Underwood), 미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H.G. Appenzeller) 부부가 한국에 들어와 각각 경신학당과 배재학당을 설립한다. 그 직후 스크랜턴(W.B. Scranton)과 스크랜턴 대부인(M.F. Scranton) 등이 입국하여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미국 북장로회만이 아니라 1889년 호주장로회, 1890년 영국 성공회, 1892년 미국 남장로회, 1896년 미국 남감리회, 1898년 캐나다 장로회 등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이들이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학교를 설립하였다.[25]

> 우리나라의 새 교육의 시작인 배화학당, 이화학당, 경신학당, 대성학교, 오산학교 또 그 밖에 서울과 시골에 일어났던 수많은 학교, 신문, 잡지, 병원 이런 것들이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으로 된 것이었다. 이 때에 사회의 각 방면에 일어났던 원기와 맑은 공기와 혁신의 기분은 실로 몇 백년 이래 처음으로 보는 현상이었다. 촌락마다 신문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일어나고 머리를 깎고 단출하고 물 들인 옷을 입고 북과 행진 나팔에 맞추어 체조를 하고 씩씩한 곡조의 노래를 하고, 샤포를 쓴 학도생이라면 그저 무조건 받들어 주고,

---

[24] "고종 황제의 신임을 받으면서 '양대인'(洋大人) 칭호를 받았던 선교사들이 보여준 겸비와 섬김, 희생과 봉사의 삶은 토착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특히 봉건적 사회 체제에서 억눌리고 소외당했던 민중 계층과 빈곤 계층, 여성들을 향한 선교사들의 사랑 실천은 낯선 종교, 낯선 문화에 배타적이기 쉬운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기에 충분했다. 가진 자를 위한 종교, 실천이 따르지 않은 이론적 종교로서 전통종교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이들이 자기희생과 사랑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실천하는 새로운 종교에서 희망을 찾았다. 복음의 씨앗은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토착 속에 뿌려지기 시작했다." 이덕주, 『한국교회 이야기』(서울: 신앙과지성사, 2010), 55.

[25] 박상진, "3.1운동 100주년과 기독교학교의 과제,"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 기독교학교대회』, 72.

> 때때로 모여서 하는 연합 운동회 때면 그야말로 강산이 들썩들썩하는 흥분이었다. 그리고는 서울·시골 할 것 없이 비분강개하는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가득 찬 연설회·토론회가 연달아 일어나고, 민중을 깨우자는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사람마다 하는 소리가 개명·개화요, 입마다 외치는 것이 삼천리 강토, 2천만 민족이었다. 이리하여 양반의 학정 밑에 짜 먹히고, 짜 먹혀 마른 나무같이 되었던 나라에 새 봄이 돌아온 듯하였다.[26]

서양 선교사 혹은 그들로부터 직접 영향 받은 한국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육 기관은 진취적 민족주의와 영혼을 꿰뚫는 기독교 신앙으로 한국 민족의 억눌린 민족혼을 일깨워 근대적 민족 자주 운동과 사상을 형성하였다. 이승훈, 조만식, 서재필, 김규식, 김마리아, 김구 등 빼어난 민족 지도자들이 나타난다. 서구의 신학문과 민족 정신을 결합하는 민족 운동과 교육운동을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서 끊임없이 추진한다. 뛰어난 사상가 유영모와 함석헌, 소설가 이광수, 김억, 한스러운 민족 정서를 노래한 시인 김소월과 나도향과 윤동주, 한글 학자 주시경,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등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다.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는 자신의 소망을 밝혔다.

> 지금 내 눈앞에 명백히 기독교국가가 된 한국을 볼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는 악정과 무지와 미신의 속박에서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나라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도시의 거리와 시골 마을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주요 도시에는 고등학교와 대학이 세워지는 것이고... 기독교적 가정, 기독교적 촌락, 기독교적 위정자, 기독교적 정부가 나타나기를 희망한다.[27]

---

[26] 함석헌,『뜻으로 본 한국역사』(서울: 한길사,1993), 260-261.
[27] Horace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08), 124-126.

언더우드 뿐 아니라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한국에 파송 된 서구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열정에서 큰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그 통로로 학교교육을 택하였다.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국가의 목표를 마음에 품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교육을 위한 사립학교와 대학을 설립하였다. 절제를 가르치고, 농촌을 개혁하고, 민중을 계몽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제를 철폐[28]하는 데 한몫을 하였다. 기독교에서 조선의 근본적인 문제인 일제 식민지를 극복할 목표와 힘을 공급받았다.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의열단 운동과 무장독립투쟁에 앞장섰고 상해임시정부 수립에 적극 가담하였다.[29]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국가 공식 행사를 기독교적으로 진행하기 원하였다. 초대 국회 개원식에서 감리교 목사인 이윤영이 대표기도를 인도하였고, 초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직무를 다할 것을 선서하였다. 제 1 공화국에서 정부와 교회의 관계는 밀접하였으며 공직에 등용된 사람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았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도 아니고 당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도 아니었지만, 일정부분 시민종교(civil religion)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30]

---

[28] “차별이 심한 중에 가장 억울한 계층의 사람들은 천민들이었다. 관청에서 부리는 종이나 집에서 부리는 종이 있었고, 광대, 무당, 사당, 백정 등은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로 일종의 재물과 같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였으며, 다른 집으로 보내기도 하였고, 그리고 부모가 자손에게 상속하기도 하였다.” 김낙환, 『아펜젤러행전』(서울: 청미디어, 2014), 74.

[29] 장동민,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기독교학교,” 『교육대전환의 시기, 기독교학교의 길을 내다 2022 사학미션컨퍼런스』 (서울: 사단법인미션네트워크, 2022), 28.

[30] Ibid., 29.

3.2 배재학당(최초의 근대교육학당)

3.2.1. 설립자 아펜젤러 선교사(Henry Gerhard Appenzeller,1858-1902)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최초의 복음 선교사로서 한국 감리교회의 초석을 놓았으며,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31] 한국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선교, 교육, 성서번역, 교회 설립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활동을 했다. 그는 단지 기독교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그가 이룩한 많은 업적들 가운데 배재학당을 설립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최초로 근대교육을 실시한 것이 우리 민족사에 끼친 가장 위대한 공헌이라 할 것이다. 그는 교육을 통해 침몰해 가는 조선의 운명을 구원 할 희망을 찾고자 했다.[32]

아펜젤러는 23세 되던 해 1881년 2월 19일 대학 3학년 때, 그는 해외선교에 대한 설교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고, 선교사업을 위하여 호주머니를 털어 2불 50전의 헌금까지 하였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월 26일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그의 결심을 적어 두어, 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바치기로 굳게 맹세하고 있다. “내 생애의 야심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체를 바치는 데 있다.”[33] 이런 아펜젤러의 굳은 결심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대학 졸업 후 곧 드루신학교에 입학하여, 그의 결심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

[31] 양화진 문화원 편,『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서울: 홍성사, 2015), 43.
[32] 이성덕, “한국 근대교육과 선교의 선구자 아펜젤러,” 전용재 편저,『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서울: KMC, 1993), 64.
[33] “아펜젤러는 웨스트체스터사범학교(Westchester Education College)와 플랭클린앤드마샬대학(Franklin and Marshall College)을 졸업하고 드루신학교(Drew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신학교 재학 시절, 아펜젤러는 전국신학교연합집회에서 한국 선교사의 사명을 깨달았고, 그곳에서 훗날 함께 한국에 온 언더우드를 만났다.” 양화진 문화원 편,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43.

시작하였다. 신학교에 들어와서도 그의 외국 선교에 대한 정열은 조금도 식지 아니하였다. 앞으로의 큰 일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비쳐진 한국의 이미지는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었고 '은둔국' 또는 '말라리아와 모기의 땅' 으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당시 한국에 간다는 것은 이런 무서운 병과 무지, 미신 등과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여간한 용기와 모험심이 있지 않으면 한국에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34]

남이 못 가는 곳, 가기를 꺼려하는 곳을 그는 스스로 찾아 간 것이다. 일단,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 바치기로 결심한 그에게는 어떠한 수난과 고통과 시련도 그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사자같이 담대하고, 여자같이 부드러우며, 주님을 위한 열심은 불타고, 인간이 만든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일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 특히 한국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아펜젤러야말로 한국을 위한 전천후사도(全天候使徒)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35]

우리나라 땅을 처음으로 밟은 아펜젤러는 다음과 같은 감격 어린 기도문을 그의 보고서 끝부분에 써 보냈다.

>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 곳에 왔습니다. 그 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36]

---

[34] "졸업을 앞두고 먼저 한국에 가겠다던 아펜젤러의 친구 왓워드가 감리교 선교부로부터 한국행 선교사 임명까지 받고도, 갑자기 '부득이한 개인 사정들' 때문에 그의 한국행을 포기하고 말았다. 아펜젤러는 이 왓워드와 심각하게 의논한 후 친구가 못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배재100년사편찬위원회, 『배재백년사』(서울: 한밤의소리사, 1989), 21.
[35] Ibid., 21.
[36]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아펜젤러 추모비.

아펜젤러의 이 기도는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것이다. 그는 이 땅에 해방자로 왔다.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온 것이 아니라. 무지와 미신, 질고와 죄악에 얽매인 백성을 그 무서운 쇠사슬에서 풀어주고 절망과 체념 속에 있던 이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그는 한국에 온 것이다. 그는 낯설은 땅에서 그의 젊음을 불살랐고 드디어 그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것이다.[37]

3.2.2 배재학당 설립

한국에 온 아펜젤러 선교사가 벌인 첫 사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한 일이다. 1885년 8월 시작된 학교는 1887년 2월, 고종으로부터 '배재학당' (Hall for Rearing Useful Men)[38]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39] 이후 그는 순직한 1902년까지 14년 동안 배재학당 교장으로 헌신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재학당 안에 '협성회'라는 토론회를 조직하여 독립협회의 서재필, 윤치호 등을 강사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의식과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 그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올링거(F.Ohlinger) 선교사를 초청하여 배재학당 안에 삼문출판사를 만들어, 기독교 소책자들을 출판했으며, <독립신문> 등 일반 신문도 인쇄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언더우드, 스크랜턴 선교사 등과 더불어 성경번역위원회를 최초로 조직해서 한글성경번역에도 상당한 공헌을 했다. 특히

---

37 배재100년사편찬위원회,『배재백년사』, 27.

38 부록 참조.

39 "아펜젤러는 이미 1885년 11월에 미국 공사 폴크를 통해 고종으로부터 학교설립허가를 얻어 놓았다. 그리고 1886년 6월 8일 2명의 학생으로 정식 학교를 시작했다. 이것이 한국 근대교육의 효시인 배재학당의 시작이다. 이 학교는 문을 열자마자 학생들이 몰려들어 불과 5개월 만에 학생 수가 32명에 이르렀다. 영어를 배워 출세하려는 현실적 욕구를 갖고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거나 선교사들의 예배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1887년 7월 24일에 세례받은 박중상과 같은 해 10월 2일에 세례받은 한용경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한국 기독교의 역사 I』(서울: 기독교문사, 1993), 197.

그가 배재학당 안에 설립한 협성회와 정동교회 안에 세운 엡윗청년회는 후일 YMCA 운동의 산실이 되었다.[40]

아펜젤러는 조선에 와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졌지만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가 사망할 때까지 배재학당의 매년 등록생수를 합산하면 약 1,564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평균 3년을 재학하였다고 가정하면, 아펜젤러는 생전에 500여 명 이상을 가르쳐 한국 사회에 배출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감리교인을 양육했다.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의 교장으로서 협성회의 창립과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후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근대의식, 그리고 자주독립 사상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배재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아낌없이 후원을 다하였다. 이러한 아펜젤러의 정신은 일제 치하에서도 살아 남아 의식 있는 감리교인들이 독립운동에 나서는데 밑거름이 되었다.[41]

이 민족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함으로 유명한 배재의 교훈[42]인 즉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마 20:28).[43] 배재 창설자는 그가 가장 사랑하던 이 성서구절대로 이 땅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또 스스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의 목숨도 많은

---

[40] 양화진 문화원 편,『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45.
[41] 이성덕 “한국 근대교육과 선교의 선구자 아펜젤러,” 전용재 편,『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79.
[42] “ “유용한 인재를 배양하는 배우는 집” 이라는 뜻에서 배재학당이라고 지었다. 구한말에는 개화운동을 위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반일 독립 운동가와 민족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냈다. 유수한 민족적 지도자들을 배양하는 교육사업에 있어서 그 독특성을 인정받았다.” 배재100년사편찬위원회,『배재백년사』, 43.
[43] 부록 참조.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었다. 즉 남의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다.

이 성서의 내용을 아펜젤러의 비서이며 한학자였던 조한규 씨가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욕위대자 당위인역」(欲爲大者 當爲人役)이다.[44] 이것이 바로 배재인의 정신이요 배재가 구한말과 일제 식민지하에서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그 갈 길을 비추어 주었던 힘의 원동력이었고 이 원동력에 의하여 많은 배재인들이 훈련을 받고 어두운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로 나섰다. 즉 이것이 배재의 혼이다. 개인의 출세와 영달에 앞선 민족구원이 의지와 정열이 이 교훈에서 나왔다는 말이다. 배재의 창설자는 이 교훈대로 가르치고 이 교훈대로 본을 보여주며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따라서 이 교훈은 추상적인 교훈이 아니요 살아 움직이는 교훈이다.[45]

동문으로는 독립협회를 결성과 독립문 축조, 배재학당 협성회 조직, 상해임시정부 외교위원장을 지낸 서재필(1864-1951), 독립협회 주도, 대한 자강회를 조직했던 윤치호(1865-1945), 독립협회 참여, 협성회 창립과 국어문법 완성 등 주시경 선생(1876-1914), 협성회, 독립협회, 대한민국 임시 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1875-1965), 청산리 전투 참여한 독립운동가요, 만주 망명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관, 광복후 대동청년단을 창설한 지청천 장군(1888-1957), 민요 시인으로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노래한 시인 김소월(1902-1934), 1920년대 한국소설의 전원적 사실주의를 표방했던 소설가 나도향(1902-1927)등이 있다.

---

[44] 부록 참조.
[45] 배재100년사편찬위원회, 『배재백년사』, 37-38.

3.3 이화학당(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3.3.1 조선시대 여성

초창기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사고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ㄱ" 자형으로 예배당을 건축했다.[46]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유교적 관념에 따라 남자석과 여자석을 서로 다른 곳에 배치하고, 남녀가 보이는 공간은 휘장으로 가리고 예배를 드렸다.[47]

> 방 한가운데 쳐진 휘장. 그것은 조선시대 남성과 여성을 가로막은 '남녀유별'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휘장 한가운데 구멍이 뚫렸다. 비록 머리 하나 들어갈 만큼 작은 것이긴 하지만 휘장이 뚫리고 그리고 남성 목사에 의한 여성 세례가 이루어진 것이다.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여성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등장한 구멍 뚫린 휘장은 오랜 세월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봉건적 '남녀차별'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뚫린 휘장 구멍으로 남녀 간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같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된 것을 체험하였다. 기독교 복음 안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시대 남성 우대 사회 구조 속에서 한국 여성은 이름이 없었다. 선교사들의 지적처럼 조선 여인들은 '이름 없는 존재'(nameless being)였다. 조선 여인에게 이름이 필요 없었던 것이, 어려서는 '아무개(남성) 딸', 결혼해서는 '아무개(남성) 댁' 혹은 친정 고향을 따서 '안성댁', '진주댁'으로 불리다가 아이를 낳으면 '아무개(남성) 어머니', 늙어서는 '아무개(남성) 할머니'로 불렸기 때문이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이름은 존재를 의미한다. '이름 없는 존재'란 말은 곧 존재 의미를 상실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다. 평양지방 양반 가문 출신으로 세례를 받은 김세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 여자의 해방은 그리스도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선언하였다.[48]

---

[46] 부록 참조.

[47] "당시 사회 분위기는 여자가 남자에게, 그것도 서양 남자에게 얼굴을 내보이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남녀 칠세 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란 구호에서 느낄 수 있듯 봉건사회에서 부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륜'(不倫)이고 '패륜'(悖倫)이었다." 이덕주,『한국교회이야기』, 77.

[48] Ibid., 78-82.

여성의 존재 의미가 없었던 시절 스크랜턴 대부인이 세운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게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화학당'(梨花學堂)이라는 이름. '배꽃'(梨花)은 조선 왕실의 문양이자 대대로 동양 미인을 상징하는 꽃이었다.[49] 스크랜턴 대부인은 "왕실에서 이름을 내려준 사건은 나라에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학교'라는 풀이로, 비로서 선교사들이 하는 사업이 한국 정부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다. 굳게 닫혔던 한국 여성들의 마음이 열리고 선교사들이 하는 일을 인정하기 시작했다."[50] 고 했다.

3.3.2 설립자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51] (Mary Fletcher Benton Scranton, 1832-1909)

1832년 10월 9일 목사의 딸로 태어났으며, 1872년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이 예일대학 학부와 뉴욕에 있는 의과대학을 마친 후, 1884년에 아들 내외와 함께 선교활동을 위해 출발, 1885년 6월 6일 52세의 나이로 한국에 도착했다. 당시 한국여성들은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만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여성 교육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었다.[52] 여성 선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스크랜턴 여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한 우리나라 근대 여성교육의 선구자다. 평소 선교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메리 스크랜턴은 남편 사후에 미국 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에서 활동했으며,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부부가 미 감리회 해외 선교회의 후원을 받아 한국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되자 자신도

---

[49] "이화학당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의 정동 일대는 오래전부터 배 밭이었고, 이화정이라는 큰 정자가 있었다. 고종 황제는 우리 여성들이 배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우라는 뜻으로 '이화'라는 교명을 하사하였다." 이화박물관.

[50] 이덕주,『한국교회이야기』, 71.

[51] 부록 참조.

[52]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스크랜턴 묘비.

미 감리교 여성해외선교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에 온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성벽 주위에 버려진 아이들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학당을 시작했다.[53] 단 한 명의 학생을 데리고 시작한 그녀의 학당은 점차 사람이 늘어나 1년 만에 50명이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54]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주었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도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 전도에 주력하여 아현교회와 동대문교회, 남대문 상동교회를 개척했다. 1897년에는 남대문교회에 여성기술학교인 공옥학교를 설립했고, 1906년에는 엄비의 후원을 받아 진명여학교를 설립하는 일에도 기여했다. 그녀는 시흥, 안양, 수원 등 서울 외곽 지역을 돌며 순회전도활동을 펼쳤으며, 그 과정에서 수원에 매향여학교를 세웠다. 그는 여성 전도자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890년경부터 전도부인을 대상으로 성경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후일 감리교부인성경학원이 되었고 훗날 협성여자신학교로 발전했다. 세상을 떠나기 이태 전인 1907년 75세 때 쓴 보고서를 보면 조선인을 향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의 사랑과 선교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여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24년 동안 헌신한 스크랜턴 선교사를 조선인들은 '시란돈 대부인'이라고 불렀다.[55]

---

53 "남녀 귀천의 차등 없는 천부인권을 보편적 진리로 설파한 것은 기독교 교육의 한 성공 사례였다. 이에 이화 학생들은 1897년 엡워드 청년회(Epworth League)의 여자 회원으로 15명이 가입했고, 이들을 통해서 회의법의 진행방법 등 민주적인 훈련도 쌓아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퍼해야 할 사람은 한국의 여자들이다", "한국 부인들도 점차 학문을 배워 지식을 넓히면 부인의 권리가 남성과 똑같다는 것과 무지하고 난폭한 남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독립신문의 여성교육에 대한 계몽은 아직도 소수이기는 하였으나 기독교 교육을 받은 계층이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이화100년사』(서울: 신원인쇄소, 1994), 53.

54 "이화학당에 거는 국왕의 호의는 대단하였다. 1887년 친히 이화학당이란 교명까지 하사하고 편액(扁額)을 만들어 보내 준 것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이화100년사』, 52.

55 양화진 문화원 편,『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251-252.

3.3.3 이화학당 설립

> “우리의 목표는 여인들로 하여금 우리 외국인들의 생활양식, 의복 및 환경에 맞추어 바뀌지기를 바라는데 있지 않다. 우리는 다만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한국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갖기 바라며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한 한국인이 될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 『The Gospel in all Lands for 1888』, 374. 재인용.

스크랜턴은 이름도 없이 억압된 삶을 사는 조선의 여성들을 교육 시켜 보다 나은 한국인이 되기를 희망했다. 이화학당의 시작으로 남성과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다. 양반부인 단체에서는 한국 최초의 여권선언이자 여학교 설치 촉구 선언문인 ‘여학교 설시통문’[56]을 발표하는 등 여성교육 확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57]

> 기독교에 의한 우리나라 근대 여성교육의 실시는 남성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여성교육의 모형이 되었고 정부와 일반인들의 여학교 설립에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 특히 이화학당의 교육에서 시작된 여성해방의 기운은 개화파 인사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해 1894년 갑오경장 때 남녀조혼(早婚)의 폐지, 과부 재혼의 자유 등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 계급 타파, 남녀평등 사상 고취, 사회참여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58]

---

[56] “최초 여권 선언인 ‘여학교 설시통문’은 북촌의 양반집 부인들이 주축이 된 ‘찬양회’가 이 같이 진보적인 선언을 한 것은 당시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학교 설시통문 일명 ‘여권통문(女權通文)’은 근대 여권운동의 3대 요소인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근대 여성운동의 시발이 되었다. ‘이제 우리 이천만 동포 형제가 성의를 효순하여 해태하던 구습을 영영 버리고 각각 개명한 신식을 좇아 행할 새 사사이 취서되어 일신 우일신함은 영영한 소아라도 저마는 아는 배어늘 어찌하여 우리 여인들은 일향 귀먹고 눈 어두운 병신 모양으로 구규만 지키고 있는지 모를 일이로다.’”-1898년 찬양회가 발표한 「여학교 설시통문」중.

[57] “여왕을 배출한 삼국시대 남녀평등 사상이 강한 고려시대에 비해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존여비 사상과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오로지 의무만 있었다. ‘삼종지도’는 여성을 남성에 의존하게 하는 대표적인 덕목이었다. 많은 여성들이 이름도 없이 독립적인 인격이나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채, 어려서는 부모에게, 커서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식에게 의존해 생을 마치는 일이 허다 했다. 극히 일부 양반 계급 여성들 사이에서 이뤄지던 교육은 여성으로서 지켜야할 도리와 살림법 등 규방에서 해야할 내용이 전부였다.” 이화여고 창립 130주년 특별기획전, 『대한민국 여성교육사 1886- 여성, 규방에서 세상으로』.

[58] 이화여고 창립 130주년 특별기획전 전시물.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합방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곧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는 교육구국운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자주 독립, 자유 민권, 자강 개혁'의 독립협회에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학생들이 참여해, 남녀평등사상을 전파했다. 여성들은 직접적인 만세운동 외에도 조선여자교육회, 근우회, 송죽회,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같은 단체를 통해 교육과 계몽, 생활개선운동을 펼치며 항일운동을 전개했다.[59]

3.3.4 초기 이화학당의 교육

"여성도 배워야 하고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조선에 힘이 생기고 강해집니다." [60] 초기에는 여자선교사들이 서양귀신, 양귀(洋鬼)라는 이름으로 불려서 학생 모집이 안되었다. 더욱이 삼종지도를 주장하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여자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양반집 여자들은 낮에 출입을 삼가했고, 장옷을 입고서야 밖에 나섰다.

여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 그 누구의 딸이거나, 아내거나, 어머니였다. 한국에 온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은 여학생과 그들의 부모에게 호소했다. 그녀의 교육 목표는 기독교 정신에 의한 인간 교육, 즉 건전한 한국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적인 여성을 길러내는 일이었다. 1886년 5월 31일 밤에 하인을 거느린 정장 부인이 학당에 찾아왔다. 영어를 배우고자 찾아온 이

---

[59] 이화여고 창립 130주년 특별기획전, 『대한민국 여성교육사 1886- 여성, 규방에서 세상으로』.
[60] 부록 참조.

학생은 고관의 소실인 김부인이라는 기혼여성이었다. 이것이 이화학당의 시작이었다. 김 부인은 영어를 배워 장차 왕비의 영어 통역관을 꿈꾸고 있었다. 첫 번째 학생이 온 다음 달 별단이라는 소녀가 들어왔다.[61] 별단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 온 것이었지만 스크랜턴에게는 대견한 학생이었다. 이어 꽃님이라는 학생[62]이 들어왔고, 네 번째로 김점동이 들어왔다. 점동은 아펜젤러 목사의 집안일을 돌보던 김홍택의 셋째 딸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로 자라난다. 스크랜턴의 양녀가 된 여메래는 이화를 졸업한 후 감리교 여선교회의 전신인 보호여회를 창설하고 엄비의 지원을 받아 진명여학교를 설립한다. 결혼 3일 만에 청상과부 되어 중이 되려다 이경숙은 스크랜턴을 만나 이화를 졸업한 후 한국인으로 이화의 첫 교사가 된다. 하란사는 인천별감의 첩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우겨 이화를 졸업한 후 미국 유학하여 한국 최초 여성문학사가 되어 돌아온다. 이화에 온 이들은 삶이 바뀌었다. 그 삶의 원형은 그리스도요, 이를 보여준 이들은 선교사들이었다.[63]

3.3.5 김점동(1877-1910)[64]

로제타 홀은 1890년부터 1933년까지 43년 동안 의료선교사로 사역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인 보구여관을 비롯하여 평양 기홀병원과 과예여원 등의 설립과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양의를 양성했고, 여성의학교육기관을 설립했으며, 특수교육을 처음 시행하는 등 평생을 한국인, 특히

---

[61] "가난한 어머니가 딸을 부양할 수 없어 맡기러 왔다. 그러나 몇 달 못 가 다시 딸을 데려가겠다고 찾아왔다. 결국 스크랜턴 여사는 별단이를 결코 이 나라 밖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고 나서야 그 어머니를 안심시킬 수 있었다." 이종용, '이화박물관 안내서'.

[62] "1886년 여름 서울에 콜레라가 만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 성 밖에 버려지고 있을 때 스크랜턴 학당장의 아들인 스크랜턴 의사가 서대문 근처에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꽃님이었다." 이종용, '이화박물관 안내서'.

[63] 이종용, '이화박물관 안내서'.

[64] 부록 참조.

여성을 위해 헌신했다.[65] 로제타는 조선선교 초기에 만난 병원 조수 김점동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 의사가 되게 했다. 그녀가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이다.[66]

1896년 10월 박에스더는 마침내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현 존스홉킨스 대학교)에 들어갔고, 1900년 스물네 살의 나이에 한국 여성 최초의 의학 학위(Medical Diploma)를 받았다. 당시 에스더의 후견인인 스티븐스 부인은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만족스런 학생이었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 선교 사업에 매우 많은 가치를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다."[67] 고 회고했다.

1900년 11월 귀국한 박에스더는 보구여관을 시작으로 1903년 평양의 광혜여원으로 옮겨 홀 부인과 함께 의료 활동을 펼쳤다. 이 무렵 10개월 동안 3천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훌륭한 외과 수술 실력을 귀신이 재주를 부린다고 여길 정도였다. 맹아학교와 간호학교 설립, 계몽활동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던 박에스더는 고된 생활로 얻은 폐결핵으로 1910년 세상을 떠났다. 에스더의 죽음을 계기로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은 폐결핵 전문의가 되어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결핵요양소를 세우고,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하는 등 결핵 퇴치에 앞장섰다.

---

[65]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로제타 홀' 특별전시관.

[66] "당시 천대 받던 여성, 백정 등 차별 받던 이들은 선교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세브란스병원을 세운 에비슨은 백정 출신 박성춘을 치료한다. 박성춘 부탁으로 에비슨은 아들 박서양에게 의학을 가르쳤다. 결국 1908년 세브란스 병원의 학교 제 1 회 졸업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면허의사가 되었다. 그는 모교에 남아 교육과 진료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그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문제를 삼은 학생들에게 "내 속에 있는 오백년 묵은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보고 배우자!" 라고 하였다. 그는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학교를 사직하고 북간도로 이주해 구세병원을 개업하면서 독립운동에 나섰다. 그는 조선 동포를 진료하는 한편 독립운동단체 대한국민회의 군의로 활동하였다. 박서양은 조선 사회의 가장 낮은 신분 출신이었지만 새로운 학문을 배워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일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세브란스가 배출한 큰 의사였다." 알렌기념관.

[67] 이화박물관.

> 박에스더는 조선 여성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고 갔다. 첫째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치료하고 만나는 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해 영혼이 치유되게 한 것이다. 둘째는 짧은 기간의 헌신이었지만 에스더의 삶을 통해 '존재 없음'의 수많은 조선 여성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도전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점동은 박에스더가 되어 조선 여성들에게 또 다시 빛이 되었다.[68]

3.3.6. 유관순(1902-1920)[69]

유관순은 18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다. 그 중에서 1919년 3월 1일부터 1920년 9월 28일 죽기까지 1년 7개월간 겪은 고난은 꼭 그렇게 살아야 했냐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유관순은 초인이 아니었다. 그냥 그 나이의 소녀였다. 그러나 인간됨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며 불의를 지적해야 할 때는 담대하였다. 남은 길은 그 길 밖에 없었다. 유관순은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인간다운 삶을 향해 진정한 자유를 향해 외치고 외쳤다.

>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무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만세를 부르며 시가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해대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저리도 무참하게 빼앗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며,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순 없다. 무슨 권리로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빼앗으려느냐?[70]

---

[68] 박대성,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전용재 편,『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330.
[69] 부록 참조.
[70] "아우내 만세운동 후, 공주지방 법원에서 재판장은 징역 7년을 언도하였다. 만세운동의 주동자인데다 재판정에서 굽힘없이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소위 괘씸죄가 더 붙었던 것이다." 이종용, "대한독립만세 애국소녀 유관순," 전용재 편,『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410.

결국 유관순은 서대문감옥에서도 어윤희, 박인덕 등과 함께 옥중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1920년 3.1운동 1주년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였다. 밥을 나르는 여죄수를 통하여 '우리나라 독립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싸우자'는 결의의 쪽지를 돌렸다. 그리고 3월 1일 사무실 괘종시계의 소리를 신호로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3.1운동 1주년 옥중만세운동에는 절도, 강도, 파렴치범, 사기범 등으로 수감되어 있던 이들까지 합세하는 등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 만세 소리가 감방을 지나 거리까지 흘러나와 모화관, 냉천동, 애오개, 서소문 일대로까지 번져 전차가 불통되고 경찰서 기마대가 출동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많은 우국지사들이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유관순은 매를 맞아 방광이 터지고, 그 후에도 계속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세를 부르며 그만큼 고문을 받았다. 유관순은 결국 형기도 마치지 못한 채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감옥에서 사망하였다. 무덤마저 사라져 유관순은 아무 흔적이 없지만 본이 되는 그의 삶과 정신은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있다.[71]

이화여고 창립 110주년을 맞아 유관순의 애국 정신을 다시 기리면서 명예 졸업장이 수여(1996.5.30) 되었다. 유관순에게 추서한 건국훈장(3등급, 독립장 1962.3.1)은 훈격이 낮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서훈되었다. 뉴욕 타임즈에서는 동양인에게는 처음으로 그녀의 독립정신을 기리며 죽은 지 98년 만에 '한국독립을 염원한 10대순교자'라는 제목의 추모 기사가 쓰였다.[72]

---

[71] Ibid., 412-413.
[72] 부록 참조.

3.4 경신학당

3.4.1 설립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73](Horace G. Underwood, 1859-1916)

- 원두우(한국이름)

19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제2차 대각성 운동(The Second Great Awakening)의 영향으로 해외선교열기가 고조되었다. 특히 무디(Dwight L. Moody)의 영향으로 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이 조직되어 약 2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선교사로 가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다. 언더우드의 조선 선교 결심 과정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홀에 전시된 그의 일기에서 잘 나타난다.

> 어려서부터 내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내가 뉴브런즈윅 신학교 2학년 때 신학교 선교지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급우 앨트먼(Albert Altman)은 조선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 때 조선을 처음 알았고 강한 인상을 받았으나 그동안 꾸준히 인도어를 공부하며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내가 그곳에 가겠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다른 신학생들도 조선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았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무렵 나의 마음에 돌연 하나님의 목소리가 강하게 들렸다. “너는 왜 조선으로 가지 못하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미(未)전도 국가인 조선에 선교의 우선순위가 있으며, 이 조선 선교는 바로 나 자신이 해야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나는 그동안 준비해 온 인도 선교를 포기하고 마침내 조선 선교를 결심했다.[74]

미북장로교선교부는 1884년 7월 28일을 기하여 언더우드를 초대 조선 선교사로 정식 임명했다. 언더우드는 우선 영국에 가서 친척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

[73] **부록 참조.**
[74]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홀.**

곧바로 미국을 거쳐 1884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배편으로 다음 해 1월 일본에 도착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부두에 상륙하게 되었다. 언더우드는 미국을 떠나기에 앞서 선교의 동반자가 필요해서 한 여인을 골라 약혼했으나, 그 약혼녀는 선교에 관심도 없었고 언더우드의 큰 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존경심을 갖지 않았다. 장차 개척 선교사가 감당해야할 엄청난 고생과 역경을 이겨 낼 자신도 없어서 결국 파혼을 한다.[75]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파혼까지하면서 이 땅에 온 선교사는 따뜻한 보살핌 속에 교육을 시작한다.

> 장로교의 언더우드는 고아원 형태로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언더우드는 1886년 1월부터 고아원 설립에 대한 구상을 가졌는데 고아나 극빈자 아동들을 수용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일종의 기술학교 형태를 구상했다. 정동에 한옥을 구입해 수리하고 학생 1명으로 정식 문을 연 것이 1886년 5월 11일이었다. 이것이 소위 '언더우드학당'이라고 불리는 고아원 학교였다. 그 중 고아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까지된 우사 김규식 등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 학교는 '예수교학당', '민로아학당', '구세학당' 등으로 불리다가 1905년에 경신(敬新)학당으로 정착하여 오늘의 경신학교[76]의 모체가 되었다.[77]

양화진에는 언더우드 일가 묘역이 있으며, 이 땅에 초기 선교사로 연세대학교 설립, 새문안교회, 성서공회, 기독교청년회와 기독교서회 창립, 근세 여명기 선교와 문화의 개척자로 헌신한 언더우드 공로와 그의 가족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78]

---

[75] 전택부,『양화진 선교사 열전』(서울: 홍성사, 2005), 55-65.
[76] "'세계사조를 외면한 구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새로운 배움을 통해 진리를 깨우쳐 간증하게 하는 부르기도 좋은 이름이어야 함'에 종합적인 결론이 내려져 '새로운 것을 깨우친다'는 추상적이긴 하나 함축성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 경신사편찬위원회,『경신사』(서울: 금영문화사, 1991), 209.
[7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한국 기독교의 역사 I』, 197-198.
[78] 부록 참조.

3.4.2 경신학당의 교육

경신학당의 교육목표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게하고 개인으로서의 인격완성을 목표로 한다.’이다. 학생으로 하여금 기독교 정신 위에서 가족, 사회, 국가, 세계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인격을 완성함과 동시에 각자의 능력과 적성과 흥미를 스스로 탐구하여 최대한도까지 자기자신을 발전시켜 나아감을 원조한다. 기독교 정신 위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노력하고 협력하는 공민으로서의 발달을 원조한다. 경신학당은 기독적 전인교육의 이념 아래 인격을 완성함으로써 개성을 신장하여 자주적 생활능력과 봉사적 정신으로 지성과 덕성을 구유(具有)하게 하고 대한 국민으로서의 운명과 책임을 자각,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민족 관념을 고취시키며 민주적으로 국가, 민족의 발달과 인류공영 및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한다는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다.[79]

3.4.3 경신출신 독립투사(3.1운동 기준)

동문으로는 파리강회회의에 독립청원서 제출과 임시정부 외무총장을 지낸 김규식(1890년 명예 졸업), 임시정부 내무총장과 국무총리이요 민족의 스승 정치가 사상가인 안창호(1897년 명예 졸업), 민족대표 33인 중 1인으로 조선총독부에 독립선언서 통고서를 제출한 이갑성(1910년 5회 졸업),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정재용(1911년 6회 졸업[80]), 민족대표 48인중 1인이요 3.5 학생운동 총지휘를

---

[79] 경신사편찬위원회,『경신사』, 669-671.

[80] “북한산 백운대에는 3.1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새긴 암각문이 있다. ‘경천애인’ 이란 네 글자와 함

한 김원벽(1912년 7회 졸업), 3.1 및 3.5 학생운동 시위 주도 및 연희전문학교 청년학생회장 이병주(1912년 7회 졸업), 독립군 모집 및 군자금 모금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자 김인서(1914년 9회 졸업), 영남지방 만세운동을 주도 및 35대 장로회 총회장 최재화(1915년 10회 졸업), 2.8 학생운동 대표 11인 중 1인이요 한국독립당 및 한중연합군 창설자 김상덕(1917년 12회 졸업) 동문 등이 있다.[81]

3.4.4 김규식(1881-1950)[82]

언더우드는 1886년에는 고아원과 고아학교를 창설하였다. 그때 4,5세된 고아 하나가 언더우드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게 되었다. 이 고아가 커서 언더우드의 비서가 되고, 그 뒤 새문안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김규식 박사이다.[83] 정치적 이유로 부친은 귀양을 가고 모친마저 병환으로 타계하자 고아가 되어 언더우드 목사의 양자로 인연을 맺은 뒤 경신학교의 모체인 언더우드 학당에서 초기 교육을 받는다. 김규식은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유학 등을 통해 국제정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지인 수준의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김규식은 파리강화회의를 참석하며 “나라가 없는데 내가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파리에 갈 수 있는가? 백성의 주권을 보일 수 있도록 조선 백성의 독립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신한 청년당에 전하고, 이에 신한청년당은 백성의

께 ‘독립선언문은 기미년 2월 10일 최남선이 작성하였으며 3월 1일 탑동공원에서 자신이 독립선언 만세를 도창했다.’ 라는 내용을 새겼다. 이 글을 새긴 시기는 3.1운동 이후로 추정되며, 그 목적은 거족적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영구히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암각문을 새긴 정재용은 1886년 해주에서 출생한 독립운동가, 1919년 2월 19일 해주에서 상경해 3.1운동의 불을 당겼던 장본인이다.” 부록 참조.

[81] 경신사편찬위원회,『경신사』, 358-382.

[82] 부록 참조.

[83] 전택부,『양화진 선교사 열전』, 57.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독립시위를 계획하게 된다.[84]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민족의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의 독립국가 복귀에 관한 청원서' 및 '한국민족의 주장'을 제출하고 일본의 한국침략을 규탄하였다. 도미하여 워싱톤 구미위원부 위원장에 임명되어 해외 독립운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상해임시정부 외무총장, 학무총장, 대한독립군단 총사령, 임시정부 국무위원, 민주혁명당 주석,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냈다. 경신학교 설립자로 선임 및 운영이사회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무인, 용병가, 독립운동가, 정치가로 활동하였으며 대한민국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85] 파리강화회의 독립청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민족은 4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 한국이 주권국가라는 것은 여러 나라들이 조약으로 인정하였다.
> 한국의 주권은 이러한 조약으로 인정된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었으므로 어떤 한 나라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침범하였다.
> 이러한 주권의 침범에 대하여 한국민족은 항의를 하였고 또 하고 있다.
> 일본통치의 폭압으로 인하여 이러한 항의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 한국의 교육과 사상은 일본이 통제하며 억압하고 있다.
> 한국의 재산은 일본이 통제하고 있다.
> 한국에서의 기독교를 일본정부가 박해하고 있다.
> 일본이 한국에서 시행하였다는 개혁은 형무소내에서의 개혁이나 마찬가지이며 일본인을 위한 것이다.(이하 생략)[86]

---

[84] 함승수,『3.1운동과 기독교학교』, 3.
[85] 경신사편찬위원회,『경신사』, 359-362.
[86] Ibid., 362-363.

3.4.5 안창호(1878-1938)

경신학교의 전신인 구세학당(구 언더우드 고아원)에서 안창호는 보통반, 특별반을 거쳐 신학문을 접하고 조교로 봉직하며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유교와 기독교를 접목하여 인류애의 세계관, 인생관의 기초를 터득하였다. 1897년 독립협회에 가입 관서지부를 조직하였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탁월한 정신력과 웅변력을 보였다. 1899년 한국 최초 사학 점진학교를 세워 초등교육을 펼쳤고, 을사보호조약 체결된 후 1907년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고, 그 사업의 실천을 위해 평양 대성학교, 정주 오산학교, 마산 자기회사, 서울과 평양과 대구에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민족사상 고취와 애국연설을 감행하였다. 청년학우회 후신인 흥사단을 창립하였고,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노동국 총판으로 취임하였다. 윤봉길 의사 거사 후 치안 유지법 위반, 동우회 사건 등으로 투옥되었다가 출감후 서울대학병원 치료 중 “목인아! 네가 우리 민족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유해는 도산공원에 이장되었고,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추서되었다.[87]

3.5 3.1 독립운동을 이끈 기독교와 기독교학교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는 기독교학교를 세우고 지원하는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교회와 성도들은 ‘1교회 1학교 운동’을 통해 전국에 기독교학교를 설립하였다. 교단에서는 소속 기독교학교를 관장하는 학무국을 세워 기독교학교를 지원 육성하였다. 총회 차원에서 기독교학교 현안을 놓고 정부와 교섭을 하는 등

[87] Ibid., 363-365.

교회와 학교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유지되었다.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교육은 기독교학교를 통해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10년 종교계 사립학교 분포를 보면 전체 학교 801개 중 종립학교는 581개였고, 그 중 기독교는 527개로 기독교학교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88] 기독교학교는 더욱 성장하여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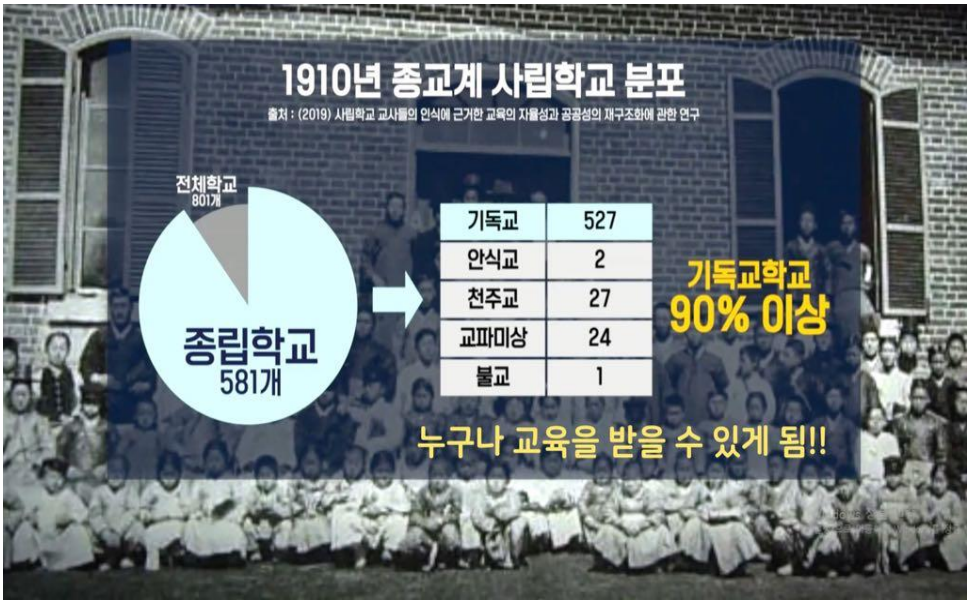


그림 2 1910년 종교계 사립학교 분포(CTS 박세현의 크로스뷰)

1919년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에 있어 기독교와 기독교학교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감당하였다.[89] 교회와 학교에는 주보와 교육자료를 만들 수 있는 등사기(복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전국 823개의 기독교학교들은 전국에서 발발한 3.1운동의 거점으로 사용되었다.[90]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어 나누었고, 만세시위의 앞장에 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뜨거운 고귀한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88] CTS 박세현의 크로스뷰 <사립학교법 개정, 기독교학교가 사라진다!> https://www.cts.tv/program_site/replay/view?pid=P1394&dpid=289224, 부록 참조.
[89] "3.1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2.8 독립선언서를 한국으로 가져온 김마리아(정신여학교)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항일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김마리아 여사는 정신학원에서 배운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상해임시정부 수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여성들의 항일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함승수, 『3.1운동과 기독교학교』, 4.
[90] 부록 참조.

약 20만명 내외로 전체 인구의 약 1.5%에 불구하였다. 상해 신한청년단으로 시작하여, 파리강화회의, 2.8독립선언 및 3.1운동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91] 세계를 깨운 3.1운동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신음하던 여러 민족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항일 5.4운동과 인도의 반영(反英) 자치운동을 비롯하여 필리핀과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전세계 피압박 민족 독립운동의 계기가 되었다.[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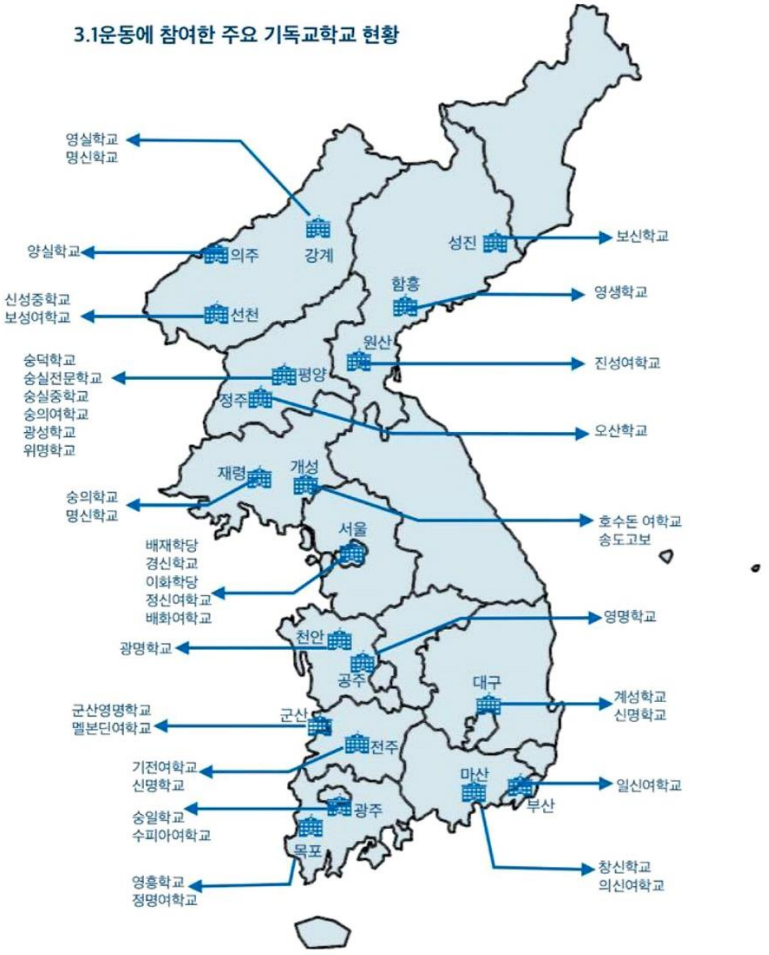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별 독립시위를 이끈 대표적 기독교학교(함승수, 『3.1운동과 기독교학교』, 18)

헌법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있기에 기독교학교를 통하여 길러진 교육 공동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근간이 되었다.[93]

---

91 함승수, 『3.1운동과 기독교학교』, 18.
92 독립기념관, 부록 참조.
93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전문(헌법 제10호).

제 4 장

기독교학교 정체성의 위기

4.1 기독교학교의 위기

5-1. 귀하가 다니는 학교 안에는 불교,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 포함), 유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천도교, 대종교 등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종교에 관련되는 종교적 상징물이 함께 있습니까?(예를 들어, 부처님상과 예수상이 학교 안에 있거나,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와 불교를 나타내는 卍가 함께 있다거나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94]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 등 종교적 행위와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학생종교 선전 제한, 특정 종교 반복적 혹은 장시간 언급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교장은 이를 지도와 감독해야하고 종교과목 수업 대체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95]

위의 설문에 따르면 기독사학에서 '종교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기독 유물관이나 기도실에 십자가와 불상을 함께 세워야된다' 는 사고 발상자체가 흥미롭다. 조례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는 학교에 반하는 내용이다.[96]

---

[94]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차별 실태조사 설문조사' (2012.11.09), 부록 참조.

[95]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집(서울특별시 조례 제5247호)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참조.

[96]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의회를 통해 처음 의결된 이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23년 1월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남, 제주 6곳이다. 이외에도 부산, 경북, 대전 등에서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적 지향(동성애 옹호), 성적 자기결정권, 차별금지 등을 학생인권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이라는 별도의 규정에 성소수자가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사실상 동성애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에 방해되는 규정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무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학생들에 대한 선교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린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97]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며 조기성애화(premature sexualizaton)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구실로 성해방(성적 문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음선필, "기독교학교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기독교학교 신앙교육활성화연구 세미나 및 공청회』, 2023, 107-108.

[97] 서울특별시 조례 제5247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 충남연구원에서 실시한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에서도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종교행사 및 종교교육을 학생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설문[98]으로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구성원들에게 심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2012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설문지(시행일자 2012.11.5-11.30) 중・고등학생용과 교직원용으로 배포한 것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가을햇살 고영일 변호사는 위헌성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설문조사 대상학교 선정의 자의성, 자의금지 원칙에 반하는 평등권 침해 요소가 있다. 둘째, 설문실시 목적 또는 취지 설명의 위헌성에 문제가 있다. 학교법인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를 한다. 셋째, ‘불편’과 ‘인권침해’를 동일선상에 올려 놓는 자의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불편함은 피교육생인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교육 자체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를 인권침해로 혼동케하여 부정적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넷째, 두 가지 이상의 종교적 상징물이 있는가 등의 설문과 종교자유침해요소이다. 종립학교에 타종교 상징물까지 동등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종교차별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선교의 취지로 설립된 종립학교에 다른 종교에 대하여 선교할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종립학교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질문이다. 또한 타종교에 대한 자율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제한한다. 다섯째, 학교 공식행사나 교육과정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선교목적으로 세워진 종립학교가 종교 행사의 자유와 종교 집회의 자유로 행하는 예배의식 자체를 종교침해로 유도하고 있다. 종립학교의 종교행사와 종교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98] **부록 참조.**

훼손하고 침해하고 있다. 여섯째 종교 행사 시 돈이나 물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종교차별임을 유도하고, 후원과 모금을 통해 전달하는 NGO 활동에도 부정적 의식을 심어 주었다.[99]

국가인권위원회 및 종교자유정책연구원[100]은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종교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기독교학교가 마치 종교차별과 인권침해 기관인양 단정하여 조사를 계속하였다. 이에 기독교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문제제기 및 결의가 있었고, 17개의 교단장, 기독교 주요 연합기관, 전국 300여개의 기독교 중고등학교 이사장 및 학교장 등의 관계자들이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처를 하였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가 왜 종교차별을 조장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101]

기자회견문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육기본권'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함으로 인하여 반인권적 행위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사회의 분열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학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교육과 종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육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한 문제, 둘째, 정부의 일방적 평준화 정책에 의한 피해자인 종립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정부의 교육정책이 침묵하고 있는 문제, 셋째, 설문조사는 '인권문제'와는 아무 관련 없는 종교다원주의를 요구하고, 종립학교의 당연한 종교행사를 부정하는 듯한 문항, '고교선택제'를 통해 배정된 학생들의 의사 결정을 무시하는 조항의 문제 등을

---

99 **부록 참조.**
100 **부록 참조.**
101 **부록 참조.**

지적했다.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며, 종교간 갈등, 특히 ‘기독교’를 특정하여 억압하는 등 부당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였다.

기독교학교는 현재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독교학교는 기독설립정신구현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방침에 따라 기독교적인 신앙에 근거한 교육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기독교 복음을 통한 정체성과 인성교육을 통해 전인격적인 성품을 가지도록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족, 사회와 인류 평화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1974년 고교평준화가 도입되면서 기독교학교는 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학생 모집과 선발을 행정당국에서 담당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봉급을 교육부에서 담당하면서, 교육과정이 통제된다. 사립학교는 공교육에 거의 완전히 편입되어 교육기본법[102]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설립정신구현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독교학교가 설립정신구현에 입각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편성권, 학생선발자율성, 교원임용 자율성, 등록금 책정 자율성, 법인구성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준화로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생선발권, 등록금책정권이 사라지고, 사립학교법으로 인하여 사학법인구성권과 교원임용권에 제동이 걸렸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학교는 기독설립정신구현을 위한 ‘신앙교육’이 아닌 공립학교가 실시하는 ‘일반교육’에 준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기독교학교의 위기는 2004년 대광학원 강의석 사건이후 채플 및 기독교교육에 제한을 가져왔고 2010년 강의석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채플과 종교에 대한

---

[102] 교육기본법 제25조(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체과목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사학의 목적과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제 7 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2007년 종교교과 외 복수 과목 개설, 2011년 '종교와 생활' 교과서에서 2015년 '종교학' 교육과정 개편이 된다. 종교다원주의와 문화상대주의를 기반으로 기독교교육이 아닌 일반 종교교육으로 대전환을 맞이한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5절 양심 ·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통해 실질적인 기독교학교의 선교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2012년 6월 11일자 국민일보에 "종자연(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광고 사태 개입 이후 학원선교 크게 위축", "종교교육 막아 기독학교 씨를 말리려고 해"라는 제목 하에 학원선교에 대한 위기감에 보도되었다.[103] 대광고 강의석의 사건은 단순히 평준화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그 외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4월 대광고 사건 대법원 판결시 학교 측은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단 하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반면 강의석씨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타종교가 합세하여 변호사 45명과 법무법인 18개가 '미션스쿨에서 종교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변론을 하였다. 당시 대광학원 이사장 이철신 목사는 교육청은 간섭정도 아닌 강제로 협박 수준이라며 적당히 타협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104]

2006년 당시 종교계 사립 중등학교 수를 종교별, 학교급 별로 파악하면 전체 423개교로, 그 중 기독교가 83%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개신교가 285개교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체 67.4%, 그 다음 천주교 66개교 15.6%, 불교 27개교 6.4% 순이다). 사회적 큰 이슈가 된 상황에서 기독교학교가 피해 당사자로 큰

---

[103] **부록 참조.**
[104] **부록 참조.**

위협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계 및 관계 기관 등이 적극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 기독교계 고등학생 한명에 관한 사항이 아닌 시민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불교계의 합작으로 공격하여 결국 대법원 승소로 이어졌다. 이제는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한 숭실대와 한동대에 시정권고를 했다. 기독교를 설립이념의 학교에서 다자성애, 집단난교, 동성애 합법화, 매춘 등 부도덕한 성적자기결정권 강연회, 성소수자 커플 결혼식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등에 대한 대관 불허 및 징계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헌법상 동성결혼 불허 및 군 동성애는 처벌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는 헌법에 반하는 사항이다.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과 종교 자유의 침해 속에서 기독설립정신구현은 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4.2 명지고등학교 학원선교의 위기

2012년 8월 9일 보도된 한겨레신문에 '수업대신 할렐루야, 학교는 종교감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신앙 부흥회 등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비난 보도가 있었다. '차라리 수업하는 게 낫다, 부흥회에 참여하려니 너무 괴로웠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설교가 불편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국민일보는 '미션스쿨이 종교감옥? 한겨레 반기독적 보도에 교계 "정론지 자격없다"'라는 제목의 반박 기사가 실렸다.[105] 하지만, 신앙 부흥회를 마치고 쓰기에 참여한 '제보한 학생'의 글을 보면 '믿음은 없지만 시간들이 좋았고,

[105] **부록 참조.**

감동적이었다’ 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겨레신문 게시판에는 항의성 글이 달렸다. 다음은 2012년 8월 10일 CTS 뉴스 보도 내용이다.

앵커: 얼마전 한 진보언론이 미션스쿨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기독교사학에 대한 터무니없는 기사에 대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안티적 성향을 공정해야 할 언론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듯합니다. 보도에 고성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겨레신문은 지난 9일 ‘수업대신 “할렐루야” 학교는 “종교감옥”’ 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기독교사립 일반고인 명지고등학교가 지난달 학교체육관에서 신앙부흥회를 열어 학생들을 참석시키고, 매일 의무적으로 큐티시간을 가지며, 예배수업 대신 명목상의 대체수업만을 개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명지고는 “한겨레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학생들에게 예배수업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수강학생이 적어 대체과목을 폐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학교 측은 “일부 학생들의 불만을 학교 전체의 문제로 비화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도 왜곡보도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학생들은 “고교선택제를 통해 학교를 직접 선택했으며 학교가 미션스쿨인 것을 알고 입학했다”면서, “학교의 강요된 종교수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시원(1학년)/ 명지고등학교
제가 불교신자이지만 명지고 와서 그렇게 종교에 대해 강압받는다는 건 못느끼고 그냥 기독교가 색다른 매력이 있다, 재밌다는 걸 느껴가지고...그렇게 강압받았단 생각은 안들었어요.
조민서(1학년)/ 명지고등학교
원래 명지고 예배보고 그런거 알고 학교입학 했는데 기사가 너무 과장되어서 속상해요.

기독교계는 한겨레의 보도가 “언론으로써 균형을 잃었다”며, ‘일부 의견을 문제 삼아 기독교학교 전체의 흠을 잡기 위한 편파보도’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광고 소송 등 유독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다”며 “정론지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병대 사무총장/ 한국교회언론회

> 특정종교를 겨냥한 한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미션스쿨의 교육이념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CTS 고성은입니다.[106]

한국교회언론회는 2010년 한해 10대 중앙일간지 종교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겨레신문'의 기독교 비판기사 비율은 14%로 가장 높았다. 반면, 불교 비판기사는 4.7%에 불과하며 불교 등 종교편향적 우호적 기사에 대하여 정론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107] 국가인권위원회 용역단체인 불교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기사를 보고 '부적절한 종교교육 시정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108]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적절한 종교교육을 시정하고 시정 조치 결과를 8월 30일까지 회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교육의 감독 및 상위기관도 아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신문보도만을 보고 내린 시정과 회신 명령에 대해서 즉시 반박하였다.

기독교계에서는 기독사학에 대한 공격에 심각성을 느끼고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맞대응에 나섰다. 2012년 8월 3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109] 및 성명서 발표, 11월 16일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 기자회견을 통한 종자연 '학내 종교차별 실태조사' 강행 중지 촉구 등 기독교계 연합의 중요성과 나아갈 대안 등을 함께 마련해 가기 시작했다. 2012년 8월 3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소강당)에서 열린 '기독교학교탄압저지결의대회'에서 명지고는 입장을 밝혔다.

---

[106] CTS 뉴스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139798.
[107] 국민일보 (2012.7.1).
[108] 부록 참조.
[109] 부록 참조.

한겨레신문(2012.8.8.)은 ‘수업대신 할렐루야, 학교는 종교감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진위와는 관계없이 작성된 기사는 많은 파장을 몰고 왔다. 학생들은 제각각 이야기를 한다. “목욕탕에 왔는데 왜 옷 벗느냐고 말하면 어떻게 해!”, “설렁탕 집에서 짜장면을 시키면 어떻게 해!” 선지원 후추첨에서 고교선택제로 들어온 학생들의 대다수 반응이다. 실제로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학생도 이 기사를 보고 당황스러워했을 만큼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의 선을 넘어 보도를 하였다. 제보한 학생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이 심각하다.

- 한겨레의 보도

‘차라리 수업하는 게 낫다, 부흥회에 참여하려니 너무 괴로웠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설교가 불편했다’

- 명지고

신앙 부흥회를 마치고 쓰기에서 ‘제보한 학생’도 오히려 신앙부흥회를 돌아보며 ‘좋았고, 감동적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혹시 존재할 수는 있다고 생각 하지만 우리 모두를 자녀처럼 사랑하신다거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거나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들었던 말은 참 좋았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장애를 가졌는데도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된 이승복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바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전자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씨가 오셔서 공연을 했다... 그녀의 음악은 굉장히 좋았다... 그녀의 발음은 비록 좋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섞인 ‘감동’이 있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마인드컨트롤을 하고 기도해서 팔이 낫고 대학에서 잘 되고, 또 부와 명예를 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오프라 윈프리는 스스로도 노력과 방송인이 되겠다는 열정으로 인종차별과 트라우마를 넘어 최고의 방송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 아버지, 성경, 책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인간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인 것 같다.’(제보학생의 글 중)

위에서 기술된 내용과 같이 학교에서의 신앙 부흥회는 일반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과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다. 신앙이 없는 학생들도 좋아하는 행사들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학생, 동문, 학부모, 교사, 초청팀이 함께 노래와 율동과 악기 연주와 간증 등으로 참여한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학원선교의 이해가 있는 청소년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기독교학교의 특성을 살린 축제로 이루어진다. 모임에는 재미와 흥미로움이 있다. 실력과 인성 나아가 영성을 가진 교육 즉,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이념을 심어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기획되고 운영된다. 특별히 입시 등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영육으로 강건해지고, 희망과 용기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

‘지금 나에겐 수능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다. 단순히 대학이 아닌,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있었다. 나의 행동 하나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었다. 바로 Vision이라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3학년 쓰기 내용 중)

쉽게 삶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며, 공부를 하지만 왜 공부를 해야하는 지 원초적인 질문 등을 통해 나에 대한 정체성과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이다.

- 한겨레 보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매일 아침 8시께 교실에서 ‘큐티’를 한다. 시간은 5-10분 정도로 짧지만 이 시간에는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떠들어서도 안된다.

- 명지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반별 아침 조회를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의 분주한 마음들을 잡기 위해 8:10-8:15분까지(5분 내외) ‘큐티’ 시간을 가진다. 큐티 시간에 담임교사는 교실에 입실하여 학생들의 출결상황 및 문제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표정과 상태를 바라보며 파악한다. 큐티는 교목실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주로 진행하되, 입시 등 특별한 경우 자원을 받아 학급목회지원팀이나 3학년 담당선생님도 함께 진행한다. 물질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인 양성(사랑과 봉사, 섬김, 나눔 등)을 목표로 시사적인 내용이나 체험담, 드라마, 학생들과의 에피소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조용히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수시와 대입이 가까운 상황에서는 고3학생들을 위해 함께 말씀으로 응원하며 전교생들이 선배님들을 위해 또한 교사가 제자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한다. 교권이 무너지고, 청소년 문제가 많은 시기에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교육활동으로 ‘명상’ 시간의 유익은 익히 널리 알려진 바, 기독교의 설립정신에 의한 보편적인 덕목의 ‘큐티’는 일탈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권장해야될 사항이다.

- 한겨레 보도
학급비로 걷은 돈을 동의 없이 헌금으로 낸다.

- 명지고
헌금은 자발적으로 내어지며, 월드비전 등 국제구호단체 활동에도 동참한다. 올해에는 월드비전 기아체험(2012.6.2)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부스체험(굶주림,기후변화,식수,내전,아동노동,에이즈), 세계시민교육 강연, 지구촌 문제 대안 찾기, 인권 신장 등의 교육을 했다. 나아가 이웃사랑 실천활동으로 5세미만 아동의 질병과 주민들의 수인성 질환 감염을 막기 위한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 식수 설치 사업' 월드비전 모금에 동참하였다. 가난과 굶주림,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과 서울특별시(서울문화재단) 공동으로 진행한 '2012 사랑의 동전밭 캠페인'에도 참여(2012.3.10-6.4)하여, 도움이 필요한 '희망의 학교 세우기'(스리랑카 비빌리지역 도당골라초등학교 신축 및 교육지원)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더욱 부유해졌지만 나눔과 배려심이 사라져가는 이 세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을 하는 것을 오히려 인권침해라고 몰아세우며, 월드비전 또한 왜곡하고 있다.

덧붙이면 월드비전은 그 불투명한 자금운용을 비롯해서 돈을 국제구호라는 명분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에 침략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유명한 악덕단체입니다. 실제로 현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돈이라기보다 현지에 교회를 만들어서 경제력으로 선교를 하는 곳이죠. 국제협력같은 거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절대 좋아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네이버 안티카페에서)

'월드비전'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에서 구호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기독교국제구호개발 NGO이다. 월드비전은 UN 국제협력기구들의 가장 주요한 사업파트너로서 국내 NGO중 유일하게 WFP(세계식량계획)와 사업을 체결하고 전 세계에서 구호식량 배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났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죽어가고, 미망인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다.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90년까지 월드비전 등 수많은 구호단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자립의 발판을 마련한다. 40년이 지난 이후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났다. 이것은 '세계시민의식'으로 이어졌다. 현재 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여개 국에서 4만여 명의 직원들이 1억명의 사람들을 돕는 세계최대의 민간국제기구로 발전하였다.

* 월드비전이 하는 일
- 국내사업: 도움이 필요한 국내아동과 가족에 대한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한다.
- 국제개발사업: 대단위 지역개발사업과 다양한 특별사업을 통해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는다.
- 국제구호사업: 자연재해, 분쟁 지역에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북한사업: 북녘 동포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종합농업개발사업을 진행한다.

- 옹호사업: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 한겨레 보도
'생활과 종교'는 대부분 기독교를 찬양하고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명지고
종교 교과 교육과정 편성(연맹)에 의하면 '생활과 종교'에 집필에 대한 지침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 지침
'생활과 종교'는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일반 이론을 습득하고, 우주의 의미나 삶과 죽음 같은 인생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종교적 해답의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종교관과 이를 통한 인격적 성숙을 도와주는 과목이다... 종교 교육을 통하여 서로 다른 종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즉, '생활과 종교' 과목은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과 해답을 추구하는 종교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인적 인간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목표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며,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고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른다.

'생활과 종교' 내용에도 '세계의 종교와 문화'(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및 '한국인의 종교'(민간 신앙, 신종교, 불교와 도교와 유교의 전래) 등이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에 있는 교목들이 교과서를 집필하지만 교과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단원 뒷부분에 나오는 '거룩한 독서'라는 코너도 기독교적 언어라고 하여 '읽고 생각하기'로 편집될 정도로 심의되어 '서울특별시교육감인정 2012.01.27. 2011-393(상), 394(중), 395(하)'로 집필되었다.

생활과 종교 수업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를 찬양하고 다른 종교를 비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다른 학년 학급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급이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수업이 두가지 있습니다. 체육과 종교 수업입니다. 과연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그 수업을 좋아하겠습니까? 혹여 다른 학급에서 비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명지고의 종교 수업방침이 오로지 기독교만 좋은 종교이므로 다른 종교들은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의 주관이 개입됨으로 인해 학교 전체가 그런 마냥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shk6202, 한겨레 홈페이지 갈무리)

특이한 점은 '생활과 종교'에서 대체과목을 주장하는 한명의 학생 역시 종교가 싫어서 대체과목을 개설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과목이 좋지만 시스템적으로 대체과목이 있어야 되기에 요청한다라고 말한다. '생활과 종교'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들에 있어서 불교학생들도 거부감없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제가 불교신자이지만 명지고 와서 그렇게 종교에 대해 강압받는다는 건 못느끼고 그냥 기독교가 색다른 매력이 있다, 재밌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렇게 강압받았단 생각은 안들었어요."(명지고 1학년, cts 뉴스 보도(2012.8.10) 자료 중)

항상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귀한 말씀 월요일마다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정말 고맙습니다! 더불어 사흘간의 신앙부흥회 때는 기독교가 아닌 제 친구들도 은혜와 감동을 받았을만큼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종교감옥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신 미션스쿨이에요!! 악의적인 편파보도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 게 될 거에요!!! :-) (노**, 페이스북)

명지고등학교는 인문사립학교 최초(2006년)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내 특수반을 설치하는 등 무엇보다 인권을 위해 교육하는 학교이다. 나아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부활과 영생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리친다. 정부는 고귀한 사립학교의 이런 건학 이념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제25조 (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마치 사립학교가 설립이념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불법단체 활동인 양 매섭게 보도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해야한다. 사립학교의 목적이 사회에 도움이 되기에 정부는 이를 인정해서 사립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나 사립을 사립되지 못하게 제한시키는 것은 학생인권존중이 아니라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교육권을 제한시키는 것이다. 설립의 정신에 따라 사립이 제대로 서야 건강한 정신의 사람들이 양육되고 사립에 흐르는 설립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갈 수 있다. 사학의 기본 건학이념과 존립 이유를 흔들면서 획일적인 잣대와 조항들은 내세운다면 교육의 미래적으로 더욱 좁아지고 청소년은 기계처럼 획일적으로 양성될 것이다.

사립학교의 발전을 위해 언론 또한 그 중심에 서서 올바른 보도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가장 공정해야할 신문의 편향적인 보도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2010년 한해 10대 중앙일간지의 종교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한겨레 신문’의 기독교 비판기사 비율은 14%로 가장 높았던 반면, 불교 비판기사는 4.7%에 불과했다. 한기총 성명서에서 “기독교에 대한 칭찬기사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찾기 어려운 반면, 불교 등에 대해서는 우호적 기사로 일관하는 등 (한겨레의) 종교 편향적 보도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일보 2012.7.2. 29면).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종자연, 기독교학교 감찰기관인가’가 보도되었다(크리스천투데이 2012.08.16 18:42). 한겨레 보도(등록 : 2012.08.08 21:14 수정 : 2012.08.09 11:28)이후 2012년 8월 10일 시민단체를 표방하며 1999년 설립된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기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민간연구기관이 ‘부적절한 종교교육 시정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언론기사’ 만을 첨부하여 명지고등학교에 시정요구와 시정 조치 결과를 회신하라는 글을 곧바로 보내왔다.[110] 종자연은 2005년부터 미션스쿨내 종교교육 외 기독교에 관해서는 200여 차례 논평과 세미나 기자회견 캠페인을 하지만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사업이나 사찰통행료 징수 문제 등에 대해선 일체 함구하는 단체로 잘 알려져 있다(국민일보 2012.6.12). 한겨레 신문의 정론지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번을 계기로 진리 안에 더욱 거듭나는 정론지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교회언론회 논평] 종자연, 기독교학교 감찰기관인가
지난 8월 9일 일간지인 한겨레신문이 서울의 기독교 학교인 명지고등학교의 종교 교육에 대하여 “수업 대신 할렐루야...학교는 종교감옥”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독교의 건학이념을 가진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의 동의하에 교내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집회했던 것과 경건의 시간을 가진 것을 「종교 감옥」으로 몰아가는 어이없는 보도를 한 것이다. 이는 언론으로서의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에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과 공익성'에 반하는 것으로, 학교의 명예를 능멸하고 ‘종교폄훼’를 자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받아서 바로 다음 날인 8월 10일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한겨레신문의 보도만 보고, 명지고등학교(교장 황남택)에 “부적절한 종교교육 시정 요청”이란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그 문서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신앙부흥회’를 하거나 큐티(묵상시간)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서울학생인권조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학생들이 전학가고 싶으면 전학 보낼 용의가 있다는 것도 학생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처사”라는 멋대로의 판단과 함께,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110] **부록 참조.**

더욱 황당한 것은 학교의 시정조치 결과를 8월 30일까지 종자연에 회신하라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불교 단체인 종자연의 이런 행태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종자연이 어떤 권한으로 기독교 학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인지, 주제를 넘는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이다. 종자연은 불교계의 제안으로 2005년 설립된 이후, 스스로는 불교계 단체임을 부정해 왔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난 5월에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라는 용역 계약을 맺고 이를 실행하려던 과정에서, 기독교계의 반발과 국민일보의 심층 보도로 「불교 단체」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동안 두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종자연은 한겨레신문의 기독교 학교에 대한 편향된 보도만을 보고, 사실 확인과정도 없이, 마치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독교 학교에 종교교육을 시정하라는 압박성 문서를 즉각적으로 보낸 것이다.
불교 단체이며 시민 단체를 자칭하는 종자연은 제도권에 있는 일선 학교의 관리감독 기관도 아니고, 학교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상위기관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학교에 명령하듯 '시정하라' '결과를 회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종자연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용역계약을 하고, 기독교 학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기독교 학교를 사찰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터이다. 그런데 또 다시 기독교에 대하여 유독 부정적 보도를 가장 많이 내어 반기독교 성향의 한겨레신문의 보도만을 근거로 하여, 기독교 학교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종자연이 지난 7년간 한 일이 있다면, '종교의 자유'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오히려 '종교차별적인' 기독교 공격의 선봉에 섰으며, 심지어 학교의 종교 자유와는 상관없는 기독교 내부 문제에까지 개입해 왔다. 반면에 타 종교에 대한 언급은 없어 역시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임을 입증하고 있다.
종자연은 한겨레신문의 기사에 대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반발하는 댓글을 남긴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뭐 좀 제대로 알고 글을 올리는(기사) 것인지?' '한겨레의 글이 더 폭력적이다..어쩜 글이 이리 편향 되냐, 거짓과 왜곡, 과장, 편향의 극치..먼(무슨) 생각하며 글 쓰는지' '기사 참 오해 일으키게 잘 쓰셨네요. 제목부터 감옥이라니..기독교 안 믿는 학생은 죄수고..학교가 감옥이라는 말 같은데, 기자분이 현실을 모르시고 글을 쓰시니..' '기자님 대학물을 드셨으면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 아실텐데. 한 사람의 신세한탄을 보편적인 의견인양 쓰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교(無敎)인 명지고 학생으로서 언짢고 제대로 알고 나서 쓰셨으면 합니다'
종자연은 세상은 다 알고 있는데, 자신들만 '불교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자연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고, 불교 단체로 기독교 공격의 선봉에 선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 종자연이 작은 공(功)에 눈이 멀어 계속 기독교 공격의 선봉에 선다면 국민적인 큰 저항에 부딪치는 것은 물론, '종교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위험한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종자연이 진정 불교 단체로써, 밝은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기를 바란다면,
기독교가 아닌 불교 내부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에 신경을 쓸 것을 권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남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는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신 것이다. 자신들의 종교 문제는 내버려두고 타종교를 억압하는
것은 스스로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서 안타깝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해 힘쓰는 일선학교를 감시하고
감독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국가와 민족의 먼 미래를 위하여 오히려 격려하는
모습을 갖기를 바란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111]

기독교학교인 명지고등학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시정 명령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종합감사 등을 통해서 헌법과 법률이 따라 정한 사립학교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 계획을 요구하며 사실확인서를 요청하였다.[112] 이제는 기독교학교에서 비종교인, 타종교인, 이단과 사이비가 교사로 가르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준 것으로, 학교의 정관과 설립정신에 따른 교육방침에 무관하거나 반하는 교육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사립학교 교원임명권의 기본권리조차 실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사립학교의 기본적인 설립정신과 교육방침에 따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임명 검증조차 제약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는 차별을 가장한 사립학교에 대한 폭력이며, 기독교학교 교육과정과 잠재적교육과정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함께 큰 해악을 가져온다. 사립학교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행하는 최소한의 인사 검증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은 기독사학의 정체성 위기 상황과 대책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 뉴스에서 연구자가 방송한 내용이다.

200916 수 생방송 CTS뉴스The보기 김종화 목사/명지고등학교
<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자! >
앵커) 지난 6월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겪을

111 크리스천투데이 (2012.8.16).
112 부록 참조.

기독사학들의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하지만 학교운영에 미칠 과도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더보기 시간에는 명지고등학교 교목실장이신 김종화 목사님 모시고 기독사학이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우려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황부터 간략히 짚어주십시오.

Q1) 제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황은?
A) 지난 6월, 박용진 의원 대표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A) 박용진 의원,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위한 개정안”
A) 사립학교 관련 법률개정안, 2005년부터 여러 차례 이어져
지난 6월 박용진 의원이 사학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학의 특성에 맞는 설립정신에 따라 그 학교만이 가지는 독립성, 민주성, 다양성 등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립학교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명시한 정관 작성, 정관에 따른 이사회 구성,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 실현을 통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설립목적이 유지,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학의 자유의 본질 내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설립목적 계승 및 보장이 필요함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표 발의안은 사학의 근간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사들과 교장들을 뽑는데 법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하는 법안이 나와 설립 목적이 훼손될까봐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음식점이 있는데, 공립은 똑같은 레시피로 만드는 음식점이고 사립은 수십년 혹은 수백년동안 내려오는 독특한 레시피를 가진 원조 맛집입니다. 만일 노하우를 알고 있는 원조맛집 주방장을 교체한다거나 한식집에 중국집 주방장을 넣는다면 원조 맛집들은 큰 문제가 되겠지요. 참고로 1963년에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이후 1969년과 1974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사립학교의 준공립화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의 자율성 문제가 크게 위협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2007년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2)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국회에서도 수차례 이어진 이슈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교육계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된 내용인데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무엇입니까?

Q2)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주목할 점
A) “일부 사립학교의 상황을 일반화하여 적용, 점검할 부분 많아”
A) 과반 수 이상의 개방이사 등 학교운영에 관한 과도한 개입 우려
A) 기독교 교육계 포함 사립학교 전체의 존립 고민하게 될 것
사립학교의 설립정신구현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하는데요.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설립이념과 목적에 따라 학교법인 정관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이사진이 구성되고, 교장과 교감 등 교원 임명이 되어서 교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학법 개정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사학의 구조를 모두 허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번 사학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사와 기관장(교장) 임용 권한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위원 정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 기관장(교장)도 학교운영위원 추천하는 2배수에 추천한 인사 중 임용해야 합니다.

기독교학교의 경우 정관이나,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이에 반하는 인사가 들어온다면 기독사립의 존재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불자회장이나 불경 연구 학자, 요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등이 이사나 교장, 교사로 세워진다고 가정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정관과 인사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교장의 권한으로 생명처럼 지켜왔던 기독사학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의도로 해석되어 정당해산을 당했습니다. 사상이 다른 사람들과는 국정운영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기독교학교의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의 오랜 전통과 같은 생각과 맥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사학의 존재감은 상실된다고 봅니다.

앵커 3) 대표적인 기독사학인 명지고등학교에서 교목실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교육 현장에서 느끼시는 종교교육 현황과 어려움도 말씀해주십시오.

Q3) 교육 현장, 종교교육 현황과 우려점
A) 기독사학 종교 교과목 개설 제약, 대체과목 병행해야
A) 채플 등 기독교 정신 함양 위한 기본적 교육 어려워져
A) 서울 등 전국 각 교육청의 행정조치, 직접적인 사례도 이어져
많은 기독사학이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하고 특수한 설립목적구현, 정관과 설립목적에 따른 행위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독사학은 채플과 교양으로 종교수업의 기본적인 틀에서 인성함양을 위한

기독문화 공연, 기독 NGO 협력을 통한 봉사와 섬김 활동 등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해야할 것을 물으면 공립학교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73%가 인성교육을 제일로 꼽고 있고, 학력신장은 22% 순으로 나타납니다. 학생들도 소록도/호스피스/기독 NGO 중증장애인 봉사와 나눔 활동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기쁨을 알게 됩니다. 채플을 통해서 소감문을 발표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문화 공연이나 간증을 통해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현장에서 채플 시간을 방과 후에 원하는 사람만 소규모로 하라고 지시하거나, 종교수업을 대체할 수업을 만들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채플이나 종교수업이 사라지거나 보건 환경 등으로 대치되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시교육에 밀려 학교의 근간이 되는 온전한 인간 완성을 위한 종교활동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설립정신구현을 위한 중심을 교목실로 보는데요. 교목실 예산 편성 자체가 어렵고, 교원 감축으로 종교교사 임용도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학교인데도 교목실이 없는 학교가 30%가 넘고요, 학교당 평균 교목실 인원이 2명이 안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목이 없는 기독교학교도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일선학교들이 학사일정을 10번이상 바꿔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급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기독교학교의 정관에 따른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제한하고 인사규정까지 문제삼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아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교계나 기독교학교가 안고 가야 한다면, 기독교학교에 불상이 세어질 수 있는 해프닝도 발생할 수 있고요, 동성애나 이단과 사이비들의 폐해가 난무해서 기독사학의 좋은 전통과 정신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잘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4) 특별히 얼마 전 명지고등학교 신임교원 채용과정에서도 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Q4) 명지고, 신임교원 채용 관련 어려움에 대해
A) 신임교원 채용 시 세례교인 증명서 제출, 시정 경고 받아
A) “기독사학으로서 이단 등 명확한 인사검증 위한 필요 과정”
A) 건학이념에 맞는 합당한 선발 절차, 차별 사례 아냐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25조에는 사학의 육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기독설립목적을 존중하며 가르칠 교사를 뽑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 임용은 설립정신구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증명서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학교의 교육방침에 동의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맞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관계기관 감사를 통해서 기관 경고 처분을 받고 계속적인 시정명령이 내려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실재 채용 면접 시 겪는 황당한 경우인데요. 아무리 기독교학교라도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사람도 있고, 사회에 큰 폐단을 주는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은 정관과 설립목적을 반대하고 이단 활동을 변호하는 분도 나옵니다. 실재적으로 사학의 기본권리인 교원임명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검증 절차조차 없애라고 강제하는 것은 차별을 가장한 기독사학에 대한 폭력이요, 학생들에게도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과 인사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설립정신구현에 찬성하고 동의하는 구성원을 뽑는 최소한 인사 검증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앵커 5)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했던 사례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더욱 중요한 시점인데요. 기독사학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Q5) 교육 현장 어려움 속 기독사학 대응방안
A)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기독사학의 적극적 움직임 필요
A) 기독교교육 현장 성경적 가치관 확립 위한 기독사학 연대
A) 학생중심 자치활동 독려 등 다음세대 향한 일관된 관심과 지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련되어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는데요. 먼저 교회와 협력입니다. 한교총 및 한국교회 협력을 위해서 교단장과 문제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관계 기관과의 협력입니다. 기독사학법인 관계자 간담회와 사학정책포럼 협력입니다. 셋째, 기독사학이 이 땅에 기여한 것을 바탕으로 영상 제작을 하고 사학법 관련 홍보 제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입법을 하는 당사자 국회와 관련 협력 방안들이 검토 및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독교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이 모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선언문을 만들어 낭독하기도 했는데요. 사학개정법의 피해 당사자가될 학생들의 입장이나 학부모님들의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6)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체적인 활동과 함께 한국교회와의 전략적 협력도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한국교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이어주십시오.

Q6) 기독사학 정체성 확립 위한 한국교회와의 협력
A)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등 한국교회와의 연계 중요
A) 교회·학교 연계한 일상 속 신앙훈련 등 다각적 협력 필요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제도, 교육법적, 교육학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개발하고 있는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113]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단 실무자 및 교육담당자, 교육학자, 연구소, 기독교학교의 두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기독교학교연합회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역자들로써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목표는 한가지입니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인데, 기독교학교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가 정상화되는 것이 멀고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시대에 내몰려 인간성이 상실되는 가운데, 다음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만들기 위한 학교와 교회가 한마음으로 협력을 해야합니다. 먼저 같은 지역에 있는 기독교학교를 관심있게 살펴주시고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한 인재가 잘 양성될 수 있도록 매일 새벽예배나 철야예배 시 중점적으로 기도해주시고, 함께 교류의 장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7) 사립학교법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환경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교육선교의 지향점과 바람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Q7) 다음세대 부흥 위한 교육선교, 지향점과 바람
A) 주일학교 감소 등 다음세대 없는 한국교회 미래 없어
A) 다음세대 신앙교육, 가정과 부모 함께 이뤄져야
A) 학교·교회·가정 함께하는 신앙공동체 더욱 절실
A) 다음세대와의 적극적 소통의 장 마련해 기독교 가치관 전해야
대한민국의 최대종교는 다들 '대학교'라고 합니다. 인간성이 상실되도 상관없고, 신앙교육도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사나 부모나 학생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의 헌신적인 사랑을 교육하지 않고서는 다음세대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순간마다 변하는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들의 대안이요 소망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기독교학교입니다.

---

113 "현재는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법인설립을 하여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일하고 있다." 2021년 9월 9일 창립감사예배(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한국교회의 미래는 기독교학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역들이 살고 있는 400개가 넘는 기독사학과 60만이 넘는 학생들과 4만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주님의 지상명령,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하라' 는 교육적 사명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자들이 교육 현장인 학교와 교회를 통해 먼저 자신 변하고 사회로 진출할 때 세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같은 지역 내의 교회와 학교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많은 학생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도서관이나 북카페 이용,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등 절기별로 각종 문화 공연 초청 및 간식도 제공,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및 선교비 지원, 학교 동아리와 교회 동아리 연합 활동 등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각종 지역교회나 사회 행사 시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개방을 통한 접근으로 서로 왕래를 통해서 더욱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8)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Q8)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A) 마무리
코로나 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육적인 문제 해결만으로 피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평안이 올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학교에서 온전한 인간 양성,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1885년 부활절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했고,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인습과 운명에 찌든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은총의 땅을 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고, 기독교 신앙으로 민족의 혼을 일깨웠습니다.

3.1운동 등 위기의 순간에 823개의 기독사학이 거점이 되어서 만세 운동을 벌였고, 류관순 열사나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정재용 학생들이 앞장섰습니다. 종교를 설립이념으로 한 학교 중 기독사학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타자를 위한 삶,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았던 분들의 큰 유산입니다.
기독사학들이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114]

---

[114] CTS뉴스에서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자>라는 주제 아래 기독사립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4.3 사립학교의 위기

사립학교는 특성에 맞게 사립학교답게 각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인간의 다양성과 민주사회, 민주시민으로 여러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만일 기독사학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세워가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존립 이유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의 목적이 사회 도움이 되기에 정부는 이를 인정해서 법의 보호 속에 사립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나 각종 사립학교를 향한 외부 다양한 규제들 속에 사립학교 정체성이 훼손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학의 특성에 맞는 설립정신에 따라 그 학교만이 가지는 독립성, 민주성, 다양성 등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립학교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명시한 정관 작성, 정관에 따른 이사회 구성,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 실현을 통상적으로 보고 있다. 설립목적이 유지,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학의 자유의 본질 내용에 해당한다. 설립목적 계승 및 보장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립학교 관련 법률 개정 발의안은 사학의 근간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사들과 교장과 교사들을 뽑는데 법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하는 법안이 나와 설립 목적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2021년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 시키는 법안이 여당의 강행 속에 통과되었다. 한국교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에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에 대하여 반대하며 지난 8월 24일 사)한국교회총연합,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에서 성명서를 낸다.[115]

을 위한 현안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다.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68454.

[115] 부록 참조.

>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해 11월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통과시킨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행령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
>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법인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이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 [116]

이러한 현상들은 사립학교의 기본 정신과 특성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획일적 교육으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교육적 거룩한 신념을 위한 행보를 막는다. 공립학교와 다를 바가 없다. 조항들을 내세워 사립의 다양성을 통제 속에 제약만을 하려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뿐이다. 사립학교의 장점 등을 막음으로 교육 및 학교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다양한 학교와 그특성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

[116]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민주 사회의 기본적인 형식과 틀이 파괴되고 만다.

사립학교가 제대로서야 다양한 인간이 양성되고 설립정신에 따라 심각한 문제에 빠진 학생들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함께 존중받는 인간으로 세워지게 된다.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이야말로 학생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회복시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케 하는 거룩한 교육의 장이다.

사학의 다양성과 함께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와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다 증대하고, 기독설립정신구현을 위한 교사 확보와 다양한 교육과정 확대 운영을 통해 사립학교의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117]

기독교학교는 학내 최고규범인 정관과 이사진 구성 그리고 현장에서 교육을 실현할 교장, 교감, 교원 임명에 설립정신(건학이념)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동의하는 이들을 세움으로 계속 변화되는 교육환경과 법적인 문제에 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법무법인 로고스 변윤석 변호사의 법적인 자문내용이다.

>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과 실천, 밝고 건전한 인재 육성을 내용으로 한 설립정신은 학교법인 정관에 나타나 이사진을 구성하고 교장과 교감 등 교원 임명을 통해 교육활동(교육과정)에 임하게 된다. 둘째, 학교법인의 정관은 학내 최고 규범으로 실정법에서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내 최고의 규범(법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설립정신 및 설립자 규정, 이사 자격제한 규정,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설립정신 및 설립자(교단)을 명확히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사와 감사 선임, 교장과 교감 등 교원 임면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격

117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사학의 설립목적을 위해 학원의 정관과 인사규정을 만들어 적법하게 기독설립목적을 존중하며 가르칠 교사를 뽑는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 임용은 설립정신구현과 교육방침 직무수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증명서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학교의 교육방침에 동의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맞는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감사를 통해서 사립학교들에게 기관 경고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CTS뉴스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자> 연구자 답변 중.

제한(기독교인)을 두는 경우의 근거가 된다. 이사와 감사 선임 시 자격 제한이 가능(기독교인, 교단추천 등)하며, 교장과 교감의 임명과 평교사 채용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교원 임명 정관에서 특히 교장 임명은 이사회 전권 사항이므로, 기독교인 또는 교단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교감과 평교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기독교인 등 자격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교감 선출의 경우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단수로 교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학교장과 법인 이사회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상황이기에, 교감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거나 학교장의 추천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평교사 선출도 '학교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와 같이 기재하여 간접적 자격 제한을 하며, 학교장 이하 주요 보직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을 우선 채용하다는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118]

설립정신구현과 교육방침은 교사와 함께 교육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되며, 교육과정은 잠재적교육과정을 통해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기독교학교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구현과 교육방침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채플(예배)과 종교 수업 등이 제외되거나 고교학점제로 학기를 계속해서 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서울시 정동 달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교육의 수임자로서 개인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창조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책임과 기독사학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명심하며 다음 세대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주어진 교육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며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는 건강한 교육제도가 확립되도록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

[118] **부록 참조.**

극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다원화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교육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넘어 전인적 인성교육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통일 한국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바램을 담아,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 거듭 요구합니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는 한국교회를 비롯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편향된 내용을 전면 폐기'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통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폭 넓은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교육부 장관의 공석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상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비롯한 국가의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주체인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지난 정부의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번 교육과정안을 10월 중 행정 예고하여 무리하게 강행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에 책임 있게 추진하여 국가 교육과정과 관련된 작금의 문제와 우려를 말끔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의 바램은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그 민의를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이 자주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정책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며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향후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119]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도 지난 2022년 2월 22일 오전 감리교본부 회의실에서 기독교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사라질 위협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했다.[120] 연구자는 제 34 회 총회 제 4 차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사학법 개정 등으로 인해 기독사학의 존립위기를 설명하고,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121] 54개 감리교계통학교들이 기독설립정신구현을 할 수 있도록 총회실행부위원회에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에 따른 학교 운영을 보장받으며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정부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어 2022년 4월 1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긴급 선언 및 결의문[122]을 발표하고 온라인 서명과 함께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및 폐지를 촉구하였다. 현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사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기구를 사학위원회 상설기구로 결성하여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방침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독교학교 정관과 설립정신에 의거 행하는 종교 행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라(제16조 양심 · 종교의 자유)는 조례에 대하여 반대한다.

하나. 강제 배정으로 인한 평준화 제도의 문제를 보완(회피제도)하고,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당연히 실시되어야 할 중등학교의 학교 선발권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라.

---

119 한국교회 긴급성명서(개정교육과정).
120 당당뉴스 http://m.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37.
121 부록 참조.
122 부록 참조.

하나. 커리큘럼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사학의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채플(예배)과 종교 수업, 문화 강좌 및 나눔 봉사 활동 등 특성 있는 건전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지원 육성하라.

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의 기본권을 부정하여, 교원임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위탁하게 함으로, 비기독교인이나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원으로 임명되어서 기독교학교의 설립 정신구현을 위한 활동을 저해하는 것에 반대한다.

하나. 기독교학교의 이사회 구성, 교장과 교목 및 교사 채용, 교목실 운영 등 사립학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고 보장하라.[123]

[123] 기독교대한감리회 결의문.

제 5 장

명지고등학교 학원선교 현황 및 대책

5.1 명지고등학교 학원선교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치원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24]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방목 유상근 설립자에 의해서 세워졌다. 설치 및 경영 교육기관으로는 명지대학교(인문캠퍼스(서울), 자연캠퍼스(용인)), 명지대학교교회, 명지전문대학, 명지고등학교, 명지중학교, 명지초등학교, 명지전문대학 부속 명지유치원이 있다. 협력기관으로는 명지 새마을금고, 사회복지법인 명지원이 있다. 명지고등학교는 1948년 4월 12일 개교하여, 제64회 졸업식과 함께 총동문 연인원 63,852명을 배출하였으며, 2004년 9명을 시작으로 지난 10여년간 1,71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125]

---

[124] "그러므로 우리 명지산하의 각 학교에서는 먼저 성경교육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쳐 사물의 시비를 분별 실천케 하는 성실한 인격을 도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무결한 진리를 확신하고, 선교하여 학원과 민족과 인류를 복음화하는데 진력하고 인문, 사회, 과학, 체육, 예능, 예술, 의학 등에 관한 전공과 부전공 분야의 지식도 철저히 교육 훈련하여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목적이며 설립정신이다. 그러므로 우리 명지산하의 모든 임직원, 각 기관장, 교수, 교직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모두 우리 명지학원 설립정신과 교육방침 구현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쏟아 바쳐야 한다. 그것이 자신이 잘되고 우리 명지가 발전하는데 공헌하는 길이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유상근 설립자)." 양근석, 『명지인』(서울: 네트워크, 1998), 19.

[125] 부록 참조.

설립정신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민족문화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케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목적이며 설립정신이다.

주후 1956년 1월 23일

設 立 者 俞尙根

교육방침

1. 성경을 바르게 교육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길러주고 실천을 통하여 성실한 인간성의 도야를 선행한다.
2. 민족과 인류의 문화적 선(善) 전통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간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케 하는데 실용가치 있는 내용을 먼저 연구 교육하여 인류의 이상을 향하여 과감하게 개혁 전진하게 한다.
3. 교육방법은 청각편중의 방법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실행실습을 통한 방법으로 개선하여 획기적인 교육성과를 기한다.

設 立 者 俞尙根

표 2 명지학원 설립정신 및 교육방침

그림 4 명지학원 심벌

명지학원의 심벌은 설립정신인 기독교 정신과 명지학원을 터전으로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는 명지인의 모습을 명지 나무로 형상화하고 있다. 중앙의 십자가 기둥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한 명지학원의 설립 정신과 진리를 깨우쳐 환희에 차 두 팔 벌린 사람의 모습이다. 학교의 상징인 나무는 설립정신에 따라 인류에게 혜택을 베푸는 나무요, 민족과 인류문화에 기여하는 거룩한 나무이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구원과 생명의 나무이다.

명지의 교육은 나라와 민족의 큰 기둥으로 세워질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눌수록 커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요 일꾼을 양성한다. 나눔 행사들을 통해서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 라는 자원 봉사의 의미를 교육에 담고 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케 하는 중요한 인성 교육의 장이다.

명지고등학교는 효과적인 학원선교를 위해서 기관 및 기독교 NGO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연합행사를 통해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월드비전(2014.5.1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1급 중증장애인)

(2015.3.23), 서울신학대학교(2015.10.26), 감리교신학대학교(2015.11.2) 협약식[126]을 통해서 체험봉사활동, 동아리교류, 교생 실습, 행사 지원 등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에 임하고 있다.

5.2 월드비전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와 혼자 남게 된 어머님을 돕기 위해 미국인 선교사 밥 피얼스 목사님과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에 의해 설립되었고, 전 세계 100 여개 국에서 4 만 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세계 최대의 민간국제기구이다. 밥 피얼스 목사님은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 선교를 위해 우리나라에 방문하신 일이 있으셨고, 그 후 6.25전쟁이 일어나자 기독교 잡지의 종군기자 자격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전쟁터인 한국을 찾는다. 전쟁 종군기자로 활동하면서 전쟁 피해로 고아가 된 어린이들의 처참한 생활모습과 어머님들의 힘겨운 생활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미국 교회를 돌며, 도움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 월드비전의 시작이다.

월드비전은 5가지의 핵심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응답합니다.’

국내외 굶주림, 질병, 전쟁, 자연재해 등 사람이 살고 죽는 절실한 상황 속에서 긴급구호사업[127]은 극한의 굶주림과 질병, 전쟁의 폐허와 지진 등 자연재해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명지고등학교에서도

---

[126] **부록 참조.**
[127] **부록 참조.**

네팔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및 우크라이나 전쟁 긴급구호, 사랑의 도시락, 기아체험, 나눔 클래스, 사랑의 빵, 베이직포걸스 캠페인 등 참여를 통하여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동역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5.2.1 사랑의 도시락

국내 전국 주요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아시설을 비롯해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한다. 또한 전국의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에서는 매일 따뜻한 도시락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들어서 각 가정에 전달한다.

> 사랑의 도시락 지원 사업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거나 식사를 거르는 아동들,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들이 적어도 하루 한 끼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접 조리한 도시락을 제공한다. 어떤 아동이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며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기반으로 라면이나 통조림 대신 영양사에 의해 구성된 건강한 도시락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사랑의 도시락은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 매일 약 1,349개가 배달되고 있다[128]

명지고등학교와 가까운 역촌동에 있는 월드비전 서부사업본부 꿈빛마을에서도 매일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결식아동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명지고등학교는 부활절 달걀과 추수감사절 사랑의 도시락 쌀 후원 및 선교부장반 동아리 활동으로 쿠키를 직접 만들어 보내는 등 나눔 봉사에 동참하고 있다.[129]

---

[128]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사업 안내 (월드비전 국내사업).**
[129] **부록 참조.**

5.2.2 나눔클래스(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교육청 및 월드비전 후원인증학교)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은 한학급이 저개발국 한명의 해외 아동과 맺어져 매달 3만원을 후원하여 해당 국가의 생활과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 편지와 선물 보내기 등으로 교류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은 나눔클래스 캠페인으로 발전하여 한생명을 넘어서 지구촌에서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변화시키고 있다.

부활절 생명살리기 운동으로 지구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의 마을과 어린이들을 한학급 나눔클래스 매니저들이 전체 학생이(한명당 매월 1,000원씩) 모금 후원으로 식수, 학교, 가축(염소) 후원 등의 나눔 활동을 통해서 아동과 배고픔과 아픔에서 벗어나 마을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130] 전쟁과 난민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지진으로 고통받는 네팔, 튀르키예, 시리아 긴급구호 모금으로 생명 살리기에 동참하였다.

2013년 8학급, 2014년 36개 학급, 2015년 62개 학급(동아리 포함), 2016년 62개 학급(동아리 포함), 2017년 64개 학급(동아리 포함), 2018년 51개 학급(동아리 포함), 2019년 50개 학급(동아리 포함), 2020년 20개 학급, 2021년 27개 학급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네팔 긴급구호 모금, 2022년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모금, 2023년 튀르키예 및 시리아 긴급구호 모금을 진행하였다. 교육청 및 월드비전 나눔 클래스(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후원인증학교로 나눔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131]

---

[130] 부록 참조.

[131] “월드비전 긴급구호사업은 극한의 굶주림과 질병,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진행하

기독사학 명지고, 전교생 지구촌 결식 아동 돕기 나서

2015-04-07 12:12

명지고등학교는 6일 오전 채플에서 전 학급이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판 전달식 모습.

기독사학 명지고등학교(황남택 교장)가 모든 학급이 나서 해외 결식 아동 돕기에 나서 화제다.

명지고등학교는 6일 오전 채플에서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사랑나눔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는 명지고 전체 47개 학급과 14개 동아리가 참여해 시에라리온, 잠비아, 방글라데시 등 15개 국 61명의 해외 결식 아동들을 지원하게 된다.

고 있다. 월드비전의 해외지원사업은 단순하게 음식, 약품, 생활자금 등을 바로 지원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있다. 한 마을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월드비전의 사업 형태는 ‘자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10-15년 후 한 마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월드비전 나눔클래스 안내서.

한 학급당 매월 3만원씩 모금하는 방식으로 해외 아동들의 영양 지원과 더불어 아동들의 꿈을 키워주는 학업 지원 등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김종화 교목은 “예수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학생들이 생명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현판 전달식에 참여한 월드비전 홍보대사 박정아 씨는 “지난 2009년 월드비전과 함께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을 때 이 곳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아 씨는 이어 “작은 정성이 결식 아동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지쳤던 제 자신도 회복될 수 있었다”고 간증하자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사실 명지고등학교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명지고등학교는 해마다 기아체험 행사를 통해 국내외 결식 아동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사랑의 빵’ 모금을 진행해왔다. 작은 정성들은 큰 기적으로 이어졌다.

2012년에 방글라데시에 1호 우물을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캄보디아에 2호 우물을 기부했고, 지난해에는 케냐에 3번째 생명의 물을 기증했다.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탄자니아에는 초등학교를 신축하고 사랑의 장학금을 만들었다.
학교 구성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사랑의 실천에 나선 것은 기독교 정신의 생활화를 교육 중점 사항으로 가르친 덕분이다.

황남택 명지고 교장은 “기독교학교 교장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뿌듯하고 무엇보다 전 학급이 참여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민규 학생(남총학생회장, 3학년)은 “평소 어렵게 생활하는 해외 아동들을 돕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도울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김문희 학생(여총학생회장, 3학년)은 “단순히 1천원을 준다는 의미보다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아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다가왔다”며, “올해도 마음을 담아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큰 기적을 낳고 있다.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132]

[132] CTS 뉴스 https://youtu.be/I0ghCV68X70.

5.2.3 사랑의 동전밭(사랑의 빵)

> 2008년부터 월드비전에서 시작된 사랑의 동전밭은 유아교육기관, 학교, 기업, 단체 등을 통해 모아진 동전을 한 자리에 모아 나눔의 기적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프로그램이다. 모아진 동전은 도움이 필요한 국내 어려운 아동들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월드비전 사랑의 빵은 1991년 탤런트 김혜자 친선대사를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국내 저금통 모금의 효시가 되었다. 1974년 미국의 한 가정이 식탁 가운데 조그만 깡통 하나를 놓고 식사 전 동전을 넣는 것으로 시작되어 유럽과 호주로 번져나갔다.[133]

가난과 굶주림,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과 서울특별시(서울문화재단) 공동으로 진행한 ‘사랑의 동전밭 캠페인’을 실시하여 ‘희망의 학교 세우기’를 하였다. 명지고등학교는 부활절 사랑의 빵 저금통을 배부하여 성령강림절을 기념하며 수거하여 월드비전에 전달한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사랑의 빵 동전모으기를 통해 약 30,000,000원의 모금을 하였고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사용되었다.

2012년 스리랑카 비빌리지역 도당골라초등학교, 2013년 방글라데시 다모이랏 차크보헤쉬초등학교, 2014년 탄자니아 레이크 에야시지역 망올라초등학교, 2015년 아프리카 탄자니아 기다밀린다초등학교, 2016년 탄자니아 안트사초등학교, 2017년 탄자니아 초등학교 건립, 2018년, 2019년, 2020년 탄자니아 및 사랑의 장학금, 2021년 잠비아 충고함윔부초등학교, 2022년 에티오피아 디겔루나티조 식수위생사업으로 전액 사용되었다.

---

[133]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밭 홈페이지.**

5.2.4 기아체험(명지고 우물 기증)

명지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월드비전 기아체험에서 자발적으로 굶으면서 기아 상황을 몸소 체험하며 아픔을 공감하고, 실시하는 세계시민교육 강연 및 물부족, 소외질병, 여성과 아동, 정치혼란, 기후재앙의 부스를 통해서 지구촌 주요 이슈를 경험한다. 특히 기아체험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은 하루 식사 값 1만원씩 기부한다. 5세미만 아동의 질병과 주민들의 식수 사업을 지원하여 세계 곳곳에 기념비적인 명지 우물을 만들고, 수인성 질환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명지고에서는 2017년까지 해외에 7개의 식수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와 아이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

2011년 방글라데시 비소필터 지원(명지 1호), 2012년 캄보디아 푸억 지역 식수(명지 2호) 설치, 2013년 베트남 옌뚜이 락시유치원 식수(명지 3호) 설치, 2014년 케나 와지르 식수(명지 4호) 설치, 2015년 아프리카 차드 식수(명지 5호) 설치, 2016년 아프리카 모잠비크 식수(명지 6호), 2017년 베트남 식수(명지 7호) 설치를 위해 전액 지원하였다.[134]

열림 기아체험 프로그램 기획서

1. 프로그램 명 : 2017 명지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월드비전 국인 열린기아체험

2. 프로그램의 목적
 1)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각 유도 및 자질 배양
 2) 차세대 리더로서 범지구적 이슈들에 대한 문제의식 함양
 3) 청소년의 사회봉사 참여를 통해 자아관 및 세계화 학습의 장 마련
 4) 자발적인 일정 시간 굶어보기를 통해 기아 상황 체험 및 지구촌 의식 고취
 5) 프로그램 참여자와 그 주변인들이 모금한 금액으로 베트남 트라미지역 학교

[134] **부록 참조.**

식수지원 용도로 월드비전에 후원금 전달

3. 주최 및 주관 :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 명지고등학교, 국인

4. 장소 : 명지고등학교 방목다목적교육관 및 교실

5. 대상 : 명지고등학교 학생 300명

6. 프로그램 일시 : 2017년 5월 27일 (토) 오전9시-오후6시

7. 참가비 : 10,000원 (전액 후원금사용)

8. 프로그램 구성
1) 부스체험 - 굶주림, 물부족, 사막화, 소외질병, 정치혼란, 여성과 아동의 지구촌 주요 이슈에 관한 여섯 개의 부스에서 각각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학생들은 몸으로 체험하며 접하기 어려운 이 이슈들의 심각함을 실감하고 이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2) 나라 만들기 프로그램 - 직접 참가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나라끼리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인 분야만을 다루는 부스체험 프로그램과는 달리, 나라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보다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세계시민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팀 활동을 통해 팀 내에서의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9. 프로그램 세부 일정
10:00-10:30 강당 집합 (인솔 조별로 착석 - 사전답사날 시설물 확인을 통해 좌석배치표 제작)

10:30-11:00 개회식
- 국민의례
- 개회기도(김종화 교목)
- 교장선생님 말씀(민형준 교장)
- 총학생회장 인사
- 국인 대표(14기 대표 곽민준, 진서연)
- 국인 선서, 학생회장 선서
- 후원금 전달식 (월드비전 담당자 참석예정)

11:00-11:20 국인 기아체험 프로그램 브리핑
- 국인 소개
- 당일 행사 일정 간략 설명
- 행사 참여 사진자료와 함께 전반적인 내용 브리핑

11:20-11:50 국인 조 선생님 환영시간 & 조별 구호, 깃발 만들기
11:50-12:00 이동
12:00-14:30 1차 로테이션 배우기 & 체험하기 (다목적관팀과 교실부스팀 동시 진행)
- 다목적관 : 다목적관 프로그램
- 교실 : 교실 6 곳에서 진행되는 부스별 체험활동

14:30-15:00 배우기 & 체험하기 팀 교체 및 쉬는 시간
15:00-17:30 2차 로테이션 배우기, 체험하기 (1차 배우기 & 체험하기와 일정 동일)
17:30-17:40 강당 이동
17:40-18:10 소감문 작성
18:10-18:30 소감문 우수작 발표 및 시상
18:30-18:40 행사 당일 참여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촬영한 영상 관람
18:40 폐회식
- 월드비전 담당자 마무리
- 기아체험 대표 마무리 인사
- 폐회 기도(김종화 교목)

10. 기대 효과
1) 봉사자(기획단 참가자)에게 미치는 효과

① 대학생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기아체험 열린 캠프 기획단 전원은 2016년 현재 대학교 재학생들이며, 그 중 대부분이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빈곤, 물부족, 소외질병, 정치혼란, 여성과 아동, 사막화와 같은 주제를 접하고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지성인인 대학생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해보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② 협동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기아체험 열린 캠프를 기획하기 위해 홍보팀과 부스 1-6팀을 배분하여 각 팀별로 모든 활동을 기획·진행한다. 팀 단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협동심을 기를 수 있으며 팀 내에서 세분화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③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 처리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자원봉사란 단순히 베푸는 개념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자신도 성숙해질 수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

2) 피봉사자(대상 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

①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다.
열린 캠프는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되었던 지구촌 곳곳의 어려운 상황을 다양한 교육 자료와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빈곤, 소외질병, 사막화, 물부족, 여성과 아동, 정치혼란과 같은 그동안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지구촌 이슈들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문제의식을 가짐으로써 좀 더 넓고 세계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준다.
② 모금활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열린 캠프의 참여자들은 참가비나 자발적 모금 등을 통하여 후원금을 얻게 된다. 모금된 후원금 및 열린 캠프 활동 내역은 리더들에 의해 정해진 형식으로 월드비전에 전달이 되고,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혹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3) 주변 (대상학교, 대학 등)에 미치는 효과

① 대학생 참여 자원봉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준비 및 인턴 활동에 많은 관심을 쏟는 반면에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 기아체험 기획단 활동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동 작업에 필요한 능력과 학생들을 통솔하는 능력 등 봉사자 본인의 기량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이 많은 활동이므로 대학생 참여 자원봉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대상 학교 학생들에게 기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의 기아체험 활동은 1년에 한번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다수 학생들의 참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았다. 그러나 열린 기아체험은 대상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용이하며 학교 특별활동부(창의체험부) 선생님께서 함께 남아 지도하시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11. 후원 대상 : 베트남 트라미 지역 학교식수위생

5.2.5 베이직포걸스(Basic for Girls)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은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한다. 글로벌 이슈를 알고, 지구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지구촌 이웃과 더불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간다.

베이직포걸스는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들이 지구마을 여자 아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조혼, 폭력, 생리대부재, 교육기회 박탈 등)에 대해 이해하고 교육적 참여를 통해 여자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전 세계 여아들의 기본 권리 문제에 대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여, 지구 반대편의 아픔을 먼저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생리기간 중 학교에 가지 못하는 케냐, 잠비아,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 여아를 지원하기 위해 면생리대 및 노트 만들기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2016-2022까지 캠페인 누적참여자는 97,014명이 참여하였고, 서울에서 아프리카 지원국까지 평균 10,740㎞ 지구 반대편까지 바느질로 소녀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다. 명지고등학교에서는 총학생회, 기독교 동아리 등 활동으로 현재까지 500여명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다.[135]

다음은 월드비전에서 발행한 창의체험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월드비전 베이직포걸스 안내서이다.

---

[135] **부록 참조.**

창의체험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안내
월드비전 베이직포걸스(Basic for Girls) 안내

1. 목적

❍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들이 지구마을 여자 아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조혼, 폭력, 생리대부재, 교육기회 박탈 등)에 대해 이해하고 교육적 참여를 통해 여자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천할 수 있도록 함.

2. 상세 프로그램 개요

1) 교육내용

연번	내용	대상	목적	참가비	신청방법
1	'DIY 면생리대' 만들기	*최정고*	내가 직접 만든 면생리대로 여아의 기본권리를 지키는 활동	10,000원/ 15,000원 (키트종류에 따라 상이)	신청서 이메일 접수 또는 전화신청
2	'DIY 노트' 만들기	*최정고*	내가 직접 만든 노트로 여아의 기본권리를 지키는 활동	10,000원	

2) 참여 프로세스 안내

1 DIY 면생리대 만들기

생리 기간 중 부적절한 생리대 사용 및 잘못된 관습,문화로 인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여아를 지지하기 위한 면생리대 만들기 참여 활동입니다.
학부모연수 또는 학생 참여 프로그램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여아 권리 주제의 온라인 세계시민교육 제공

*2021년 17,364명이 참여하여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여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생리대 키트 수익금 전액은 면생리대를 지원하는 국가의 여아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 **참여시기**: 2022년 연중
- **신청방법**: 관할 지역사업본부 이메일 접수 또는 전화 신청
- **키트종류 및 가격**:

베이직키트	학교키트
참가비: 15,000원	**참가비**: 10,000원
흡수패드, 방수패드, 실바늘, 종이자, 안내브로슈어, 후기엽서, 반송봉투, 리워드스티커	흡수패드or방수패드(1종), 실바늘, 종이자, 안내브로슈어,리워드스티커

- **진행방법**: 학교 예산으로 키트를 구매, 여아권리에 대한 온라인 세계시민 교육 후 면생리대 만들기 참여(**학생 봉사 시간 2시간 부여**)

온라인 콘텐츠 제공 (여아권리 교육 및 면생리대 키트 바느질 하는 방법)	창의 체험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으로 참여

2 DIY 노트 만들기

내가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노트를 친구에게 선물해 소녀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지켜줄 수 있다. '끈'으로 매듭짓는 만들기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

*DIY노트는 월드비전 사업장에서 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DIY노트에 양성평등 교육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스티커로 제공됩니다.

- **참여시기**: 2022년 연중
- **신청방법**: 관할 지역사업본부 이메일 접수 또는 전화 신청
- **키트구성 및 가격**:

노트 DIY 키트
참가비: 10,000원
노트(커버지2장, 속지35장), 교육일러스트, 실바늘, 이름스티커, 리워드스티커

- **진행방법**: 학교 예산으로 키트를 구매, 여아권리에 대한 온라인 세계시민 교육 후 노트 만들기 참여(학생 봉사 시간 2시간 부여)

온라인 콘텐츠 제공 (여아권리 교육 및 노트 만드는 방법)	창의 체험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참여

연도	주요 사업 내용
2012	방글라데시 락삼바가다고등학교 신축지원
2013	방글라데시 차크모헤쉬초등학교 신축지원
2014	모하데규초등학교교사숙소, 엔데시보건소, 차콜댐, 망올라초등학교
2015	기다밀란다초등학교 교사숙소/교실, 모하데규초등학교 교실, 음부유니초등학교 화장실, 네팔 긴급구호
2016	안트사초등학교 교실, 키시만제다초등학교 교실, 둠베찬드 농업용수로
2017	음부가녜쿤두초등학교 교실, 둠베찬드초등학교 도서관, 음부유니초등학교 교사숙소
2018	음부유니초등학교 교사 숙소, 망골라NT초등학교화장실, 둠베찬드유치원 식수시설, 음부가녜쿤드 초등학교 교실, 무루스초등학교 교실, 케냐 삼부루 나눔클래스
2019	잠비아 마고예 나눔클래스, 탄자니아 드림빌리지 학교건축 지원
2020	탄자니아 은다바시 나눔클래스, 탄자니아 은다바시 교육식수시설 지원
2021	잠비아충고지역 컴퓨터교실 신설, 탄자니아 은다바시 나눔클래스
2022	케냐 이사올로지역 스쿨업,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2023	튀르키예 및 시리아 긴급구호

표 3 월드비전 후원 현황표(명지고)

연도	사랑의 빵	기아체험	나눔클래스	베이직포걸스
2010	2,384,600			
2011	2,574,100	2,240,000		
2012	3,503,350	2,890,000		
2013	3,192,300	3,448,300	8학급	
2014	2,233,090	2,500,000	36학급	
2015	3,229,380	2,466,550	62학급	
2016	2,399,620	2,440,000	62학급	
2017	2,322,070	1,090,000	64학급	
2018	1,837,960		5,766,000	230,000
2019	2,109,490		3,808,000	
2020	1,283,980		1,629,000	1,160,000
2021	1,841,580		1,345,000	1,350,000
2022	1,771,140		1,000,000	2,000,000
2023			1,000,000	2,000,000
합계	30,682,660	17,074,850	14,548,000	6,740,000

표 4 월드비전 전체 모금 현황표(명지고)

5.3 장애인 교육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5.3.1 명지고등학교 특수반

명지고등학교는 인문계사립학교 최초(2006년)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136] 중증 지적장애(정신지체), 지체장애,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주로 특수학교에 입학한다.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함께 학생들과 살아나가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특수학교와 달리 또래 학생들과 같은 교실, 같은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졸업 후 사회에 나가 일반인들과 편견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일주일의 반 정도는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반 정도는 또래 학급에서 수업을 받음으로써 더불어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성 향상 및 또래 관계의 형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굿프렌드' 라는 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학년 수학여행과 2학년 수련회 참가, 특수 학급에서 다양한 사회성 교육과 직업 교육, 현장학습을 통해 예의, 질서, 공중도덕 등의 사회성 함양, 또래 학급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받으며 사회성 교육을 하고 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면서 또래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점도 있었지만 장애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반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월요예배 주관반 찬양도

---

[136] **부록 참조.**

하면서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은 제자이자 친구들이고 생활하는 명지고등학교의 한 인격체로 자리잡았다.

‘굿프렌드’라는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이 도움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동등한 인격체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반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수학여행과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느낄 수 있는 값진 기회를 가지게 된다.

특별히 명지고 학생들은 방학기간을 통해서 1급중증장애를 겪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을 찾아 1박 2일간 함께 봉사활동과 생활을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목욕, 식사, 산책, 특화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하여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우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한다.

5.3.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우산은 빗물을 가려주기도 하고 나란히 걷게도 하고 여럿이 걷게도 한다. ‘한명의 어린이를 잃는 것은 하나의 꿈을 잃는 것이며, 한 어린이가 꿈을 잃는 것은 한 나라의 미래를 잃는 것이다’고 믿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한결같이 어린이를 도와온 글로벌 아동복지전문기관이다. 1948년 10월 15일, 외국인들이 가난한 우리나라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름은 ‘미국기독교아동복리회(CCF, Christian Children’s Fund)’,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시작이다. 초록우산 어리이재단은 국내 아동복지의 역사이다. 원조를 받은 세 살베기 아이가 칠순 노인이 될 만큼 시간이 흘렀고, 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성장했다. 한사랑마을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직영기관으로 1988년 5월 개원하여, 한사랑 미션과 비젼 그리고 핵심가치를 아래와 같이 실천하고 있다.

> 한사랑마을의 미션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이 희망을 갖고 꿈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합니다.'이며, 비전은 장애인복지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기관으로 도약(3BS) Best Service, Best Staff, Best Surroundings 지향하며, 30여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거주시설로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사랑마을의 핵심가치는 한사랑의 착한 5해는 사랑해(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존중해(우리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당당해(우리는 스스로 당당할 수 있도록 투명합니다), 따뜻해(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라서 더욱 따뜻합니다), 소중해(우리는 귀한 곳에서 귀한 일을 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이다.[137]

5.3.3 한사랑마을 힐링캠프

한사랑마을에서 생활하며 거주인은 24시간 거주하는 장애인들로 '먹고, 씻고, 입는' 가장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영위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로 자원봉사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좀 더 많은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2014년 한사랑힐링캠프를 시작했다.

한사랑힐링캠프는 가족, 단체의 숙박체험형 봉사활동으로 가족구성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노력봉사에서 벗어나 교육과 장애체험, 봉사 세가지를 한번에 접목시킨 힐링캠프는 한사랑 친구들에게는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참가자들에게는

---

[137] 한사랑 (2014 가을호) vol.87.

‘공동체 의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명지고등학교는 2014년 10월을 시작으로 2015년 3월 협약식과 함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한사랑 힐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한사랑힐링캠프에서 거주인들과 만난 학생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따뜻한 친구가 되어 두터운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사랑힐링캠프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장애를 차별로 대하지 않고 차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빈부격차, 낮은 행복도, 세대 간 갈등, 경제성장 둔화 개개인의 삶이 밝지 않은 시대 그리고 가족의 사랑 대신, 컴퓨터와 TV와 스마트폰이 키운 아이들은 점점 이기심과 외로움, 사회성 부족, 폭력성 등 심리 정서문제를 호소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이끄는 교육체험형활동 한사랑힐링캠프는 중요한 인성 교육의 장이다. 가난, 질병, 차별로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명지고등학교 인성중심 교육, 그리고 그 인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통해 다음 세대의 희망을 본다.[138]

[138] **부록 참조.**

명지고등학교 한사랑 힐링캠프 프로그램 1 일차

시 간	일 정	프로그램 내용		장소	담당자
10:00 - 10:30	도착&접수	등록 및 생활안내, 기념사진촬영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	후원나눔부 김동희
10:30 - 11:00	예 배	개회예배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	교목실
11:00 - 12:00	봉사활동 교육	(신규참가자) 기관소개 및 봉사활동교육	(기존참가자) 생활실 봉사활동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신규)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기존)	후원나눔부 김동희
12:00 - 13:00	중 식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		한사랑식당	
13:00 - 15:00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신규참가자)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체험	(기존참가자) 생활실 봉사활동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신규)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기존)	후원나눔부 김동희
15:00 - 18:00	봉사활동	생활실 일상생활 보조		한사랑마을 생활실	생활실 담당교사
18:00 - 18:30	석 식	저녁식사 및 휴식시간		한사랑식당	
18:30 - 20:30	명지고자체 프로그램	찬양집회		한사랑마을 자원봉사자실	명지고 관계자
21:00 - 23:00	특화활동	마음이 따뜻해지는 힐링영화관 영화 “괜찮아 3반” (심야 선택 프로그램)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	후원나눔부 김동희
23:00 -	자유일정 및 취침	세면 및 취침		힐링캠프 숙소	

명지고등학교 한사랑 힐링캠프 프로그램 2 일차

시 간	일 정	프로그램 내용	장소	담당자
06:00 - 06:30	기상&준비	세면 및 봉사활동 준비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	후원나눔부 김동희
06:30 - 07:00	기 도 회	아침 큐티		교목실
07:00 - 08:00	봉사활동	생활실 일상생활 보조 (아침식사보조)	한사랑마을 생활실	생활실 담당교사
08:00 - 09:00	조 식	아침식사 및 휴식시간	한사랑식당	
09:00 - 11:00	특화 프로그램	거주인과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	사회재활팀 노은주
11:00 - 12:00	봉사활동	생활실 일상생활 보조	한사랑마을 생활실	생활실 담당교사
12:00 - 13:00	중 식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	한사랑식당	
13:00 - 15:00	봉사활동	생활실 일상생활 보조	한사랑마을 생활실	생활실 담당교사
15:00 - 15:30	캠프평가 및 교육	숙소정리, 평가서 작성, 소감나누기	힐링캠프숙소 프로그램실	후원나눔부 김동희
		나눔교육		
15:30 - 16:00	예 배	폐회예배	프로그램실	교목실
16:00 -	마무리	캠프 마무리 모임 후 종료		

5.3 4 초록우산 품다 캠페인

따뜻한 품속, 엄마 아빠의 심장소리, 다정한 눈 맞춤과 조심스레 안아드는 손길, 애정 가득한 부모의 온기를 경험해 볼 기회도 없이 세상에 오자마자 혼자가 된 아이들이 있다.[139] 품다 캠페인은 차가운 세상에 남겨진 무연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한해 300건 이상 벌어지는 신생아 유기 사건, 매년 늘어만 가는 무연고 아이들, 연간 발생하는 보호대상 아동수는 4,000명에 달한다.

표 5 보호대상아동 발생 사유(통계청)

우리나라 보호대상 아동 수는 2만 6천명에 달한다. 다양한 사유로 보호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양육 시설, 그룹 홈 등의 시설보호를 받거나 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 보호의 조치를 받게 된다.[140] 무연고 아이들은 저마다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한번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꾹 닫아버리고 다른 이의 관심을 갈망하기도 한다. 무연고 아동들은 엄마, 아빠한테서 이들은 필요한

[139] 베이비박스 소개 영상(주사랑공동체)
https://www.youtube.com/watch?v=7R-BTdlo4pM&list=PLcPKLDHEdCSWxeYf_T_7kHrAljVPkSVBj&index=3.
[14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자극을 받지 못해서 발달이 느리다. 차가운 세상에 홀로 된 아이들을 위하여 베이비키트 4가지 신생아 필수용품 딸랑이 인형이나 모자, 턱받이나 속싸개 선물 등과 편지, 후원금 등을 전하며 삶의 용기와 희망을 전해준다.[141]

5.4 샘물호스피스 봉사 활동[142]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매년 80만 명 이상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히 출세나 경제적 가치를 추구가 아닌 교육을 통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강화와 힐링이라는 나눔과 사랑, 봉사문화 확산이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케 하는 중요한 인성 교육의 장을 위해 '샘물 호스피스 봉사 캠프' 를 실시한다. 국내에서 처음 독립형 시설 호스피스 프로그램으로 현대 의학적으로 소생될 수 없는 말기암 등의 말기 환우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프로그램이다.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깨닫고, 나눔과 섬김으로 더욱 풍요로워지는 기쁨을 몸소 체험하는 캠프이다.[143]

---

141 부록 참조.

142 샘물호스피스선교회(이사장 원주희 목사/명예이사장 손봉호 박사)는 1993년 6월 10일 발족되어 동년 8월 28일 창립 예배를 드렸다. 국내에서 처음 독립형 시설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시작한 선교회는 샘물호스피스병원(김재송 원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교회, 병원, 단체후원 및 개인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현대의학적으로 소생될 수 없는 말기암 등의 말기환우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샘물호스피스 병원 입원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본인부담금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기저귀 등 필요용품과 간호하시는 가족의 식대나 생필품은 모두 무료이다.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에 말기환우들이 쉴 수 있는 샘물호스피스병원은 현재 90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선교회는 네팔 카투만두 지역에 해외 지회를, 구미 지역에 국내 지회를 운영하고 있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헤브론메디컬센터와 협력하는 등 국내외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50기까지 19,698명이 교육받아 각처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3년 11월 26일부터 2018년 6월 30까지 10,175명 말기환우 케어(8,945명 소천/2,719명 세례)를 하였다.

143 부록 참조.

명지고등학교 샘물호스피스 봉사 프로그램 1일차

시간	일정	프로그램 내용
14:30 - 15:00	예 배	개회예배
15:00 - 15:30	O. T.	일정 안내
15:30 - 16:30	봉사교육	호스피스(계광원 실장)
16:30 - 17:30	찬양 및 특강	강 찬 목사
17:30 - 19:00	석 식	저녁식사 및 식당봉사
19:00 - 19:30	예 배	환우예배
19:30 - 21:00	교 육	어꾼 헤브론 or 교회오빠 시청
21:00 - 22:00	나 눔	교제와 나눔
22:00 - 24:00	봉 사	환우병동 복도 지킴이

명지고등학교 샘물호스피스 봉사 프로그램 2일차

시 간	일 정	프로그램 내용
06:00 - 06:30	기상 & 준비	세면 및 봉사활동 준비
06:30 - 07:00	기 도 회	아침 큐티
07:00 - 08:00	조 식	아침식사 및 식당봉사
08:00 - 11:00	봉사활동	환우 생활 보조
11:00 - 12:00	예 배	환우예배 특송
12:00 - 13:00	중 식	점심식사 및 식당봉사
13:00 - 13:30	정 리	샘물호스피스 설문조사
13:30 - 14:00	예 배	폐회예배

5.5 소록도 봉사 활동

자라는 청소년들이 교과 지식의 습득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흥미를 느끼고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배워 나갈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수십년간 발병한 이후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오신 한센병 환자분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센병 환자분들의 삶 속에 위로가 되고자 2002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매년 하계, 동계에 4박 5일간의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도와 제초 작업, 쓰레기 수거, 마을 물품 운반 등의 일손 돕기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의 식사 돕기, 청소하기, 심부름 하기 등 다양한 가정 봉사를 한다. 제초 작업과 청소 등 모두 어설픈 봉사이지만 어르신들은 학생들을 상냥하게 맞아 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특히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해 드리고 필요한 일들을 도와 드리는 가정 방문 봉사 때에는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어난다. 어르신들을 위해 노래와 춤을 추거나, 함께 바둑이나 장기 등을 두기도 하고, 소록도의 아픈 역사를 생생하게 듣는 기회를 얻는다. 또한 찾아가는 관악합주부의 힘차고 감동 깊은 연주의 문화봉사활동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달해주고 있다.

2002년부터 하계와 동계 포함하여 160-170여명 정도 학생들이 매년 참여하였다. 봉사가 끝날 때쯤이면 학생들은 소록도에 다시 찾아오리라는 다짐을 하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이 사회의 등불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 다짐을 한다.

소록도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인간 존중 정신과 태도를 형성,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 형성, 단체 생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집단 속 협동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지도력 향상들의 기대효과를 얻고 있다.[144]

5.6 학생간부수련회(크리스천리더십캠프)

우리가 사는 물질만능주의 시대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높이 드러낼 리더 양성이 매주 중요하다. 따라서 리더십 교육은 대학입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필수 과정이다.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설립정신을 함께 다짐하고, 세상적으로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 사랑 실천과 봉사와 섬김의 크리스천리더십을 배우고 학생간부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학생간부수련회인 ‘크리스천리더십캠프’는 각학급의 회장·부회장·선교부장·총학생회·명지기독학생회 등이 참여한다.
크리스천리더십으로 하나되는 시간으로 명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강사는 기독리더십을 실천하는 졸업생 선배님과 연예인 간증, CCM 가수 찬양 및 간증, 청소년 전문사역자 강의, 월드비전 등 NGO단체 행사 안내, 학급을 단위로 실시되는 학급목회의 의미와 학급에서 실천할 학급목회 십계명 만들기[145], 행동유형 및 성격심리유형검사를 통해 배우는 효과적 관계 리더십 훈련,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스토리를 조별로 각색하여 만들어 발표하는 비블리오 드라마 등

144 부록 참조.
145 부록 참조.

다채로운 활동이 실시된다. 학생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며 명지의 리더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덕목 그리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보낸다.

5.7 구별된 삶: 채플(예배) 및 학급목회

2009년 미국 아이비리그의 경영대학원(MBA) 졸업생들은 지도자로서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MBA 서약'을 시작하였다. 명지고에서는 2004년부터 '구별된 삶' 서약을 해왔다.[146]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다짐을 세상 그 누구보다 앞서 시행했다. '구별된 삶' 서약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리라는 다짐이다. 명지고에 배정된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을 계획하고, '구별된 삶' 서약으로 마무리한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앞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떳떳한 길을 가리라는 다짐의 시간이다.

구별된 삶을 위해서 명지고등학교는 첫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첫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1교시 월요채플(예배)로 한 주의 시작을 알린다. 방목다목적교육관 및 연수실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명지기독학생회들의 찬양과 워십, 각학급 학생들이 주관하여 기도와 성경과 특송 및 워십댄스 등을 준비하여 진행한다. 1년간 설교 말씀을 듣고 주보 노트[147]를 만들어 정리한 대상 수상자에게는 1기분 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신앙생활을 돕는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

[146] **부록 참조.**
[147] **부록 참조.**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신앙부흥회를 3일간 진행한다.[148] 명지학원 내 초·중·대학교 동아리 및 합창단, 대학교 댄스 및 실용음악팀, 학부모기도회 찬양 및 워십댄스, 유명 연주자나 찬양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등을 초청하여 찬양과 말씀의 축제를 한다. 매 학기를 마무리하며 1학기 방학식은 세례식으로, 2학기 방학식도 성탄절 행사 후 세례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십여년간 1,714명이 명지고등학교에서 결신자로 세례를 받았다.[149]

절기행사로 세족식, 부활절, 성령 강림절, 신앙부흥회,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의 의미를 생각하며 CCM가수 및 그룹의 찬양과 간증이 실시되며, 절기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한다. 전교생들은 절기 때마다 학급 단위로(학급목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부활절 달걀, 추수감사절 과일, 쌀, 사랑의 빵 저금통 등을 모은다. 이렇게 모인 정성은 각 기관 및 단체(월드비전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도시락, 밥퍼 공동체, 세브란스 재활병동, 사회복지기관(은평천사원, 송죽원), 치매원, 노인복지센터 등)에 사랑을 전한다.[150]

봉사와 나눔 활동의 의미는 학생간부수련회(크리스천리더십캠프), 종교 수업 시간, 동아리 활동 모임, 각종 캠페인 시에 안내한다. 특별히 학급을 목양의 개념으로 '학급목회'라고 지칭하며, 학급을 단위로 속회나 구역처럼 나누어 구성원들을 서로 돌보며 교육과 나눔 실천에 임한다. 학급 기도노트[151] 운영을 통한 비전 나누기와 기도의 생활화, 불우한 친구들 돕기, 나눔 실천의 장을 펼친다.

---

148 **부록 참조.**
149 **부록 참조.**
150 **부록 참조.**
151 **부록 참조.**

5.8 기독동아리 활동

명지기독학생회(MCS)와 선교부장반 외에도 방송반과 관악부 등 예배를 돕는 동아리들이 운영된다. 기독교설립정신구현을 위하여 절기별 불우이웃돕기 수거 및 기관 방문, 방송큐티, 예배 봉사 및 인도자로서의 찬양 훈련, 중보기도노트 작성, 학급목회 십계명 실천 등 선교봉사활동을 현장에서 수행한다. 기독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부 활동과 외부 활동을 실시한다.

월드비전 본부 및 서울서부사업본부 캠페인을 통해 각종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등 지구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나라를 후원하고, 편지교류와 선물 보내기 등의 나눔 활동을 실천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1급중증장애) 행사에 참여하여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인 봉사활동, 찬양집회 및 부흥회에 참여하여 사랑과 섬김의 봉사 및 공동체 활동을 수행한다.

명지고등학교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며 명지학원의 설립정신구현 및 전통을 이어가고, 명지학원 내 초·중·고·대학교 탐방 및 채플 참관 그리고 강단 교류 등을 실시하며 공동체성을 확립한다. 나아가 전통 있는 기독교학교 교류와 연합행사를 통해 기독교정신을 공유하고, 역사관과 선교사 묘원 등을 탐방하여 수많은 애국자, 독립운동가, 선각자 등을 배출하게된 과정과 삶을 살펴보며 기독교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의 방향성과 비전을 일깨운다.[152]

---

[152] **부록 참조.**

5.9. 릴레이금식중보기도(40일 및 사순절) 및 성경암송대회(산상수훈)[153]

11월 대학수학능력 시험으로 수험생들의 고교생활은 마무리되어 간다. 수능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 12월 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부터 연말 연시에 교직원 · 학생 · 학부모 · 동문들이 연합으로 40일간 120끼를 자원하여 명지학원의 설립정신구현과 명지 공동체를 위해서 릴레이금식중보기도를 진행한다.

사순절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3월 새학기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되기 위해서 세이레(3주)동안 릴레이금식중보기도를 실시한다. 사순절 금식과 함께 모은 모금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전쟁과 지진 등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네팔, 튀르키예, 시리아 긴급구호를 위하여 월드비전에 전달한다.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교훈 '산상수훈 암송대회'(한글 및 외국어)를 통해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암송하고 교훈을 새긴다.

5.10 학부모 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층 선교실(5층 연수실)에서 학부모님들의 기도회가 열린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신입생 학부모님을 비롯한 재학생 학부모님, 졸업생 학부모님, 명지동문 목사님 등이 기도 모임을 한다. 첫 모임은 졸업생

[153] **부록 참조.**

학부모님들의 간증으로 시작된다. 순수하게 자녀들과 학교 중보기도를 위해 참석하신 어머님들의 기도는 신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해주었다는 간증으로 이어진다. 신앙의 리더로 세움받기를 바라며 장차 자녀들이 자서전을 쓸 수 있는 힘은 어머니의 기도가 필수적이라며 기도의 힘을 믿고 나아간다.

기도회의 진행은 교목실 전도사님의 찬양, 명지 동문 목사님과 교목실 목사님들이 연합하여 말씀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한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한 말씀과 다양한 형태의 학교 신앙 활동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참여한다.[154]

절기별로 야외 기도회 모임 및 문화행사 뮤지컬 관람, 신앙 부흥회와 서부교육자선교회와 졸업예배 찬양, 입시 중보 산상 기도 등을 함께 하면서 든든한 신앙의 그루터기 중보기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 참여하여 섬김과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설립정신구현과 교육방침을 내실화 하는데 기여한다.

5.11 신임 교사 간증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 처녀이야기의 말씀, 이 말씀을 알기 전 저는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난 왜 이럴까?”, “내겐 왜 이런 시련만이 찾아올까?”, “저 사람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라는 생각, 제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비추어진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모습은 어둡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점점 작아지는 믿음과 세상에 의지하고 삐뚤어져가는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 처녀이야기와 함께 준비된

---

154 **부록 참조.**

자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흘려 보낼 말씀이었을 텐데, 그날따라 아무런 이유 없이 귀 기울여 듣게 되었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순간에 당신을 들어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끌림에 우리는 응답할 수 없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우리는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뒤돌아보면 엇나가고 힘들어하는 저를 깨우쳐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현재의 제 모습에 대해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와 그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과 노력해야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보잘 것 없는 저의 달란트도 들어 사용하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나의 삶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내가 잡아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확신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교사에게 연찬의 의무라는 것이 있듯이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학생들과 명지고등학교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반 조철훈 교사

기업체 연구소를 나와 첫 교직을 시작했던 뜻 깊은 학교가 명지고등학교입니다. 기간제 교사로서 근무했던 2년은 기독학교 교사로서의 보람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동기부여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경기도에 위치한 사립 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임용되어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지만 항상 제 마음 속에는 명지고등학교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가 있을까?' '평생을 바쳐 근무하고 싶은 학교는 어디인가?' 라는 물음에 답은 같았습니다. 명지고야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아래 세워지고 운영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 10대 명문사학으로 평가 받던 학교에서 다져온 입지를 포기하고, 명지고등학교의 신임교사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전공인 지구과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다니엘 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명지고 교사로서 저의 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과지도에 힘써 학생들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숭고한 뜻을 알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도울 것입니다. 둘째, 독서지도로 장관상을 수상했던 역량을 살려 학생들이 양서를 늘 가까이하도록 돕고 독서와 사색과 실천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제자들을 길러낼 것입니다. 셋째,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 도서를 집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과학교과서를 공부할 수 있는 '명지 고교형 기독교 과학 교재' 를 집필하고, 과학교과에 있어 학생들이 탁월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성심껏

지도하는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명지고등학교에 지원토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고 확신하며 또한 참된 경건으로 학생들을 인도하도록 저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각오로 제2의 교사 생활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희 명지고등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과학 조규동 교사

"하나님,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짧지만 진지한 이 한 마디로 저와 하나님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늦둥이 외아들로 태어난 저를 보시며 어머니께서는 기쁨 보다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동네 교회를 올려다보시게 되셨고, 그 길로 저를 업으신 채 교회로 달려가셔서, 지금까지도 매일 새벽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주변의 관심과 사랑 속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주님의 은혜로 원만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대학입시 실패를 시작으로 지금 명지고등학교의 교사가 되기까지 어려운 시기들이 연이어 찾아오게 되었고, 나름의 신앙적인 위기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연스레 원망 섞인 말들만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낮아지게 하시며 저의 삶을 주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제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알게 하셨고,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인간적인 저의 생각을 뛰어넘어 항상 부족함 없는 길로 저를 이끄셨고, 지나고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임을 느끼며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고도 넘치는 은혜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은 바로 자라나는 다음세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특별히 아이들이 가진 아픔과 상처들을 보게 하셨으며,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제가 교사로서 평생 가지고 다져야할 단단한 밑바탕이 되었고,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서 힘들고 지친 지금의 아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삶의 동반자가 되어야겠다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방법이 많이 서툴고 어색하지만 항상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저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물 박재현 교사

5.12 졸업생 간증

저는 현재 공유주거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21년 8월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사회생활을 하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고민의 시작점에서 저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를 아시는 친구, 가족, 동료들은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3대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흔히 '모태신앙인' 이라고 저를 소개하기도, 불리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의 문화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의 모습이 전부였던 저에게 기독교 교육이란 그저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제 모습을 부모님,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말씀으로 훈육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함께 배우고 자라오다가,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집안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자, 부모님은 더이상 온전히 가정을 돌보고 자녀 교육에 힘쓰기 어려우신 상황이 되었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부모님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저를 돌보아 주시려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어렸던 저에게는 부모님과의 분리의 경험이 세상과의 단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일 먼저 학교와 교회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늘 의욕을 가지고 남들보다 앞서고, 잘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좋아했던 욕심 많은 학생이 한순간에 공부의 끈을 놓아버리고,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대적하는 쪽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우관계에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주변에 있는 선생님, 친구들, 가족들을 모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관심을 받고 싶고, 답답한 심정을 해결할 길이 없어 스스로 더 몰아 부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3년을 학교와 교회 어느 곳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우울증은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당시에 가족들은 저의 상황에 대해 학창시절 흔히 겪는 사춘기 정도로 생각하여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조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다 말씀은 못드렸지만 하루하루 죽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고민하며, 나의 존재의 이유를 의심하고, 아픈 감정들을 혼자 끌어안고 울었던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3년을 꼬박 앓고 나니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점차 스스로가 생각하고 정의한 불행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의 부적응 문제도 현재진행 중이었지만, 예전처럼 바로 죽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견디면서라도 사는 쪽이 낫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삶에 익숙해진 탓인지,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미래에 일어날 희망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희망 고문이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와중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꿈이란 것도 없었을 때라 주변에 있는 상업 고등학교에 가서 졸업을 한 뒤 빠르게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저의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신앙도 관계도 아닌 오로지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학업을 지속하길 바라시는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인문계 고등학교인 '명지고등학교' 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명지고등학교는 제가 초, 중학교를 나왔던 동네와는 다른 곳이라 낯설기도 하고 조금은 새로운 마음이 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전혀 하고 있지 않던 저에게 미션스쿨이라는 학교에서의 신앙 교육은 마지막 남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울한 기질과 상처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터라, 공부와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분명히 느낀 것은 아무 희망이 없을 때와는 달리 '무언가 훈련을 받고

있는 듯하다’ 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교목 목사님과, 신앙을 가진 학급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 알게 모르게 듣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 점차 제 인생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미션스쿨에서 진행되는 신앙 교육의 여러 모습은 저에게는 익숙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낯선 것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가고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학교 안에서 매주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아침 조회시간마다 큐티를 할 때, 또 종교 교육시간에 기독교 문화와 성경에 대해 낯설어하는 친구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등의 신앙 경험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학급 선교부장으로 자원하여 본격적으로 신앙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내가 겪거나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지만, 당시 선교부장반 모임과 훈련을 통해 저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기억에 남았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목 목사님과 다른 선교부장 들과 함께 여러 미션스쿨의 역사를 돌아보고, 바이블, 리더십 캠프 등에서 만나고 훈련받았던 순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옛 선조들의 모습, 또 가까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작은 불행에도 금방 겁에 질려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놓아버릴 것처럼 행동했던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계기를 통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내 삶을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해석해보고 싶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면서부터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제 인생도 하나 둘 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져,

학교 외부의 멘토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반 년 간 진행해보며 성적을 올리기도 하고, 직접 장학금 제도를 찾아 남은 학기 모두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급 담임 선생님과, 각 과목 선생님, 종교 교육을 해주시던 교목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많이 찾아가고 질문하고, 상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순간마다 '만일 내가 다른 학교에 진학했다면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자 '이런 좋은 학교와 선생님을 만나 변화되어 감사하다' 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신앙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행됐던 선교부장 부흥회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뒤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매일을 울며 기도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한순간 한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저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늘 제 인생을 압도하던 저의 불행들이 이제는 제 인생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쯤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내가 묶여 있던 우울과 불행의 늪에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수많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넘어 드디어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고등학교 시절 저를 신앙적으로, 또 학업적으로도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과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연락 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목사님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이 현재의 제가 살아가는 기반을 닦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지나왔다면, 영혼이 말라버린 채 기계적으로 생활하는 사회인이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보곤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이겨 내기도 벅찬 하루를 얼마나 더 마음에서 나와 타인을 죽이고, 미워하면서 살아갔을까요?

현재 저와 가정의 상황은 예전만큼이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거나 돌아가시는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 개인적인 학업이나, 취업의 문제 또한 늘 술술 풀리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늘 반복되고, 끝이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진리안에서 자유해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나, 내일의 나, 좀 더 먼 미래의 나를 꿈꾸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또한 훈련의 과정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토록 소중한 것이었음을 알려주신 목사님과 선생님, 또 학창시절을 함께해준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와 같이 미션스쿨에 와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친구들이 많아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생 김유림(명지 54기)

5.12 교목실 활동

학 교 명	명지고등학교 (설립년도 1948. 4. 12.)		
학 교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명지2길 56		
학 교 전화번호	305-5951(내선 501(교목실)) (FAX 373-7002(교목실))		
이 사 장	현 세 용		
학 교 장	노 태 윤		
교 목 실	교목실장: 김종화 목사, 종교: 도은아 목사, 양정욱 전도사 총무: 도은아, 기획: 정홍수, 재정: 이희대 학급목회: 1학년(우맹식), 2학년(윤보현), 3학년(김영호)		
학 급 수	1학년 16 학급(특수반포함)	2학년 16 학급(특수반포함)	3학년 16 학급(특수반포함)
교 원 수	127 명	학 생 수	1258명 1(436), 2(406), 3(416)

정 기 예 배 및 기 도 회	* 정기예배(코로나로 주관반 외 비대면 생방송) - 월요예배: 담당학년 주관 - 교직원예배: 매달 마지막 수요일 3:20~4:00 * 정기 기도회 - 교직원큐티: 매일 아침 7:45~7:55(하늘양식) - 교무실기도회: 매일 아침 8:00~8:05 - 아침방송큐티: 오전 8:10~8:15 - 간부기도회: 매주 금요일 5교시(산상수훈) - 학부모기도회: 매주 화요일 10:00~12:20(온라인 밴드) - 교사 아침방송큐티: 매주 목요일 8:00~8:05 - 교사 기도회: 매주 금요일 7:10~7:45 - 교직원 기도회: 매주 금요일 8:10~8:30 - 학생 기도회: 매주 금요일 12:40~13:00 * 특별 기도회 - 40일 및 사순절 세이레 교직원・학부모・학생 릴레이금식기도회 : 40일 12.12~1.20, 사순절 3.20~4.9 - 입시생을 위한 중보 기도 및 D-30 수업생 아침방송큐티 - 성탄 특별 기도회(특수반(장애인), 행정실 등) 12.20.
절 기 예 배	- 부활절(4월 18일, 찬양 월드비전 홍보대사 시와 그림(김정석 목사), 말씀 정연수 감독(중부연회/효성중앙교회), 부활절 달걀 나누기, 월드비전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모금 - 성령강림절(6월 13일, 찬양 월드비전 홍보대사 홀리원, 말씀 권오진 목사(월드비전 F&D 실장), '사랑의 빵 캠페인'(월드비전) 에티오피아 디겔루나 티조 식수위생사업) - 추수감사절(10월 31일, 찬양 CCM 주리 사역자, 말씀 김영래 교수(감신대 기독교교육학), 성미/과일나누기(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외)) - 성탄절(12월 19일, 찬양 및 말씀 강찬 목사) - 행사 후 불우이웃돕기 행사: 은평천사원,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결식아동 지원), 송죽원, 홍은치매원, 경로당 등
세 례 현 황	* 세례자 1,714명(2022년 2학기 현재)
특 별 예 배	- 설립자 묘소 산상 예배(1월 3일) 및 추모예배(7월 26일) - 수능특별예배(11월 11일) - 신앙 부흥회(7월 13일~15일, 강사: 전웅제 목사(하늘샘교회) - 신앙쓰기대회(7월 13일~15일, 11월 29일) - 성경암송대회(산상수훈, 외국어포함 12월 21일)
기독학생회 (동아리)	M.C.S(명지기독학생회), 선교부장반, 방송반(방송예배) 등
기타사항	* 학교 특색 사업: 월드비전 '사랑의 빵''나눔 클래스''사랑의 도시락''베이직 포걸스(11월 9일, 여성용품 제작&노트제작)', 학급목회, 특수반(장애인) 운영, 기독교교재개발, 졸업감사예배(2023.2.8.), MOU체결(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1급중증장애인),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표 6 명지고등학교 교목실 활동(2022)

제 6 장

결 론

북미에서 영성 교육적 논의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파커 팔머는 교육의 위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 위기 상황의 본질을 근대 서구 학교가 주된 과제로 삼은 "지식교육"에서 찾고 있다. "지식"이란 실증 과학적 사실들의 집합체를 일컫는다. 문제는 이들 사실들이 다만 가치 중립적이라는 데 있는데, 학생들은 이 사실들의 집합체를 객관주의적으로 보는 데 길들여져 있을 뿐, 이를 자신들의 삶과 세계 속에서 통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삶의 방향 상실과 가치 전도가 나타나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155]

초기 기독교 학원선교의 역사를 보면 학교의 주된 과제는 '지식교육'이 아닌 '신앙교육'에서 찾았다.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신앙'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만든 '진리 공동체', 초기 기독교학교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다. 1885년 당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인들의 헌신과 기도의 씨앗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격동기에서도 신앙은 위기의 순간마다 더욱 빛을 발하며 굳건해졌다.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통해 다음 세대를

---

[155] 송순재, "새로운 영성 개념을 통한 교육의 방향전환," 『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홀리스틱 교육과 영성』(서울: 숭의기획, 2002), 39.

절망에서 희망을 세웠고, ‘진리 공동체’는 뿌리가 서로 굳건하게 얽혀 이 나라와 민족의 버팀목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여 왔다.

기독교학교는 기독설립정신과 교육방침에 따라 세워진 학교이다. 사립학교는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서 인간의 다양성과 민주사회, 민주시민의 의식을 배울 수 있다. 만일 사립학교의 목적성이 상실되거나 보장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는 상실되고 만다.

그 동안 고난의 역사 속에서 사립학교는 그 존재감을 발휘하여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그 공로를 인정하였기에 정부는 사립학교 보호와 육성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사립학교의 이런 건학 이념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학교의 준공립화가 진행되면서 정관과 설립정신에 의거 진행되는 종교 행위의 자유가 억압 및 제한을 당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으로 급속도로 사학의 준공립화가 실시 되었고, 당연한 권리인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상실되었다. 학생인권조례로 채플 및 신앙교육은 규제를 받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방침과는 별개로 분리되어 운영되며, 교육청 등의 감사 및 제재로 교육방침에 의거한 교육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기독교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하나인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성 회복과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길러지는 방향성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구성권 상실 및 교원임용 강제위탁을 가져왔다.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교원을 징계할 경우에도 교육청 징계 심의 위원회에서 무효화 할 수 있는 등 사립학교 자율성이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고교학점제를 통한 변화 또한 교육 현장이 단순히 학점 취득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고교학점제는 사립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자율성에만 의존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은 설립목적에 따른 사립학교의 정체성과 존립 근거 상실을 가져온다. 이는 사립학교의 다양성과 기독교학교 특수성을 위한 교육의 부재로 이어져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된다.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하지 못한다면 목적성 상실로 인해 존재의 이유와 근거의 기반을 잃게 된다. 기독교학교의 채플수강 및 종교과목은 필수로 지정되어야 하며, 공립학교에서는 종교과목을 교양선택으로 지정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학교의 필수적 기독교교육은 잠재적교육과정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인성교육, 다양한 문화 이해 및 나눔 봉사 실천 교육을 통한 생명존중교육 등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성 회복과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과 소금의 사명과 헌신을 자연스럽게 채득한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되는 삶의 형식과 내용을 담아낸다.

초기 기독교학교의 선교가 다양한 계층들 특히 과거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교육하여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기독교교육은 다양한 교육 스펙트럼을 통해서 서로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차별이 아닌 차이를 알게 한다. 삶은 더욱 풍부해지고 아름다워진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설립정신구현을 위한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을 가진 기관이다. 명지학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를 운영하는 최고의 복음주의 교육공동체이다. 신앙인, 전문인, 사회인, 세계인을 지향하는 설립정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원선교를 통한 복음화에 임하고 있다. 복음에 대한 교육은 단순한 종교 교육을 넘어 확고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의 과정이다.

사학의 기본 설립정신과 교육방침이 각종 지적과 규제로 흔들리게 되면서

명지고등학교 현장에서 당연했던 기독교교육이 위기를 맞았다. 다양한 활동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던 봉사와 나눔 또한 입시 정책과 교육과정의 변화로 큰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교육을 받는 주체인 학생들과 학생의 보호자는 당연히 다양하고 특성화된 사립학교들의 설립정신과 교육방침을 보고 학교를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원하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일부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들은 관계기관이 그 점을 인정하여 당연히 교육과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처럼, 과거 역사의 위기 상황마다 인재양성을 통해 구국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사립학교(특별히 기독교학교)의 목적과 정신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더욱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설립목적과 교육방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독교학교는 오히려 더욱 큰 억압을 받고 있다. 일반중등사립학교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사를 가거나 위장 전입을 하지 않는 이상, 정부 기관의 결정에 따라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학교에 대한 몰이해로 학교 또한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모두에게 부담스럽다. 뒤늦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학교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가며 설득해야 한다.

학생들은 절차에 따라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고, 학교는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기 원하는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이에 반하는 구성원들이 들어와 학교 교육과정을 무력화 시키는 외부와 내부의 시도들로 인해서 교육현장은 혼란과 분열이 가중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전통과 교육 풍토를 존중받으며 한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의 교육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독교학교는 행사 때마다 기독교 전통과 문화 형식의 내용을 담고 진행한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된 삶의 가치관이다. 나

자신을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기독교학교의 중심이다.

나라에서는 헌법에 따라 각종 법률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기독교학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정관과 설립정신의 방향에 따라 모든 학사일정이 세워지고 현장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이는 당연히 지켜야할 필수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 사립학교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할 부분이다. 교실에서 학생이 공부하고,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를 배우고, 기본 정신들을 배워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학교와 학생들의 권리이며 또한 형식의 틀이다. 기독교학교에서의 교육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진리공동체를 통해서 연합과 다양한 포용을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다.

기독교학교에는 위대한 신앙의 자산들이 있다. 과거 1교회가 1학교를 세워 관심을 가지고 한 가족과 한 공동체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교육했던 역사, 모든 학문과 의술을 가지고 가장 고통 받는 땅을 찾아와 은총의 땅으로 만들었던 학원선교와 의료선교사역,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땅을 구해낸 수많은 나라와 전쟁의 고아들을 구하기 위해 탄생한 월드비전 등 수많은 NGO단체들, 교육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 등 필요한 자산들이 진리 공동체의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기독교학교의 위기와 대책은 바로 이러한 소중한 자산들을 함께 공유하며, 신앙의 그물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감싸안으며 인재들을 세워가는 길이다. 서로 견고히 붙잡고 부족함을 공급하며 ‘연합’ 하여 나아갈 때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편향적인 신문의 왜곡 보도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부당한 공문 발송으로 명지고등학교는 학원선교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었다. 수많은 학교 구성원들과 기독교 관련 단체들은 분노하며 도움의 손길로 이어졌다. 국민일보, 기독교방송,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교회언론회,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반박보도는 물론 기독교학교탄압저지결의대회를 통해서 전교단과 전체 기독교학교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었다. 위기는 기회가 되어 수많은 연합활동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고, 명지고등학교의 기독교교육은 관련 기관들의 표창을 받기까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현재는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의 활동과 이후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위원장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출범으로 활발한 연합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법조계, 중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계, 범교단적인 교회, 기독교방송을 비롯한 언론계,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학교의 결집 등 어느 때보다도 강한 연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긴급선언을 통해서 기독교학교의 부당한 처사나 위기상황에 대하여 공유하고, 교육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기독교사학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룩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는 여전히 개인적이고 파편화되어 분열되어가는 위기의 교육 상황과 통제의 위압감이 조성된 교육 현실에 처해있다.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이 중심 주제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때 무너져가는 교육의 현실은 희망 공동체인 ‘진리 공동체’로 계속 변화되어가며, 위기의 나라를 구했던 초기 기독교 찬란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참고 문헌

번역서적

Parker J. Palmer.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서울: 한문화, 2002.

Parker J. Palmer.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종태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1.

Parker J. Palmer.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서울: 한문화, 2002.

Parker J. Palmer. 『예수가 장자를 만날 때』. 서울: 도서출판 다지리, 2001.

한국어서적

경신사편찬위원회. 『경신사』. 서울: 금영문화사, 1991.

김낙환. 『아펜젤러행전』. 서울: 청미디어, 2014.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앎』. 서울: 다산글방, 2002.

배재100년사편찬위원회. 『배재백년사』. 서울: 한밤의 소리사, 1989.

백영철. 『종교와 생활II 상』.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3.

양화진 문화원 편.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서울: 홍성사, 2015.

이덕주. 『한국교회 이야기』.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0.

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 서울: 신원인쇄소, 1994.

전용재 편.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서울: 도서출판 KMC, 1993.

전택부. 『양화진 선교사 열전』. 서울: 홍성사, 2005.

천정호.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 서울: 두란노, 202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93.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한길사, 1993.

논문, 신문, 잡지, 기타 자료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국가인권위의 종교차별실태조사 설문조사의 위헌성 문제,” 2012.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차별 실태조사 설문조사,” 2012.

국민일보. “미션스쿨이 종교감옥? 한겨레 반기독적 보도에 교계 ‘정론지 자격없다,’” 2012.

국민일보. “종자연, 대광고 사태 개입 이후 학원선교 크게 위축,” 2012.

국민일보. “종교교육 막아 기독학교 씨를 말리려고 해,” 2012.

국민일보. “‘종자연=불교단체’ 명백한 증거에도 ‘아니다,’” 2012.

국민일보. “변호사 45명 법무법인 18곳 벌떼 공격 불교계 종자연 합작품 요즘 와서야 알아,” 2012.

국민일보. “교계, 종자연 사태 강건너 불 구경 답답,” 2012.

국민일보. “정부, 미션스쿨 종교교육권 보장하라,” 2012.

국민일보. “인권위 ‘종자연 불교단체 아니다’ 거세지는 졸속 선정 무책임 논란,” 2012.

국민일보. “한국교회 공격수 종자연 ‘기독교 종교편향 왜곡’ 위해 조계종서 9500만원 수수,” 2012.

기독교타임즈. “친구들과 정성 모아 아프리카 아동 후원,” 2015

기독교타임즈. “아껴서 모으고, 굶어서 모으고 명지고, 지구촌 곳곳에 사랑 전달,” 2015.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3.1운동 100주년기념 전국 기독교학교대회,” 2019.

김종화. “파커 팔머의 진리 공동체 연구,” 감신대 석사학위 논문, 2002.

김종화. “차별이 아닌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사랑」 가을호 87,

2014.

김종화. “명지고등학교 기독교교육,” 2015.

김종화. “2021학년도 크리스천리더십캠프,” 2021.

노태윤. “MYONGJI REPORT,” 2011.

노태윤. “2011학년도 명지고등학교 교육활동 안내,” 2011.

뉴욕타임즈. “Overlooked No More: A Teenage Martyr for Korean Independence(한국독립을 염원한 10대 순교자),” 2018.

로고스 법무법인(변윤석). “기독중등사학의 법률 문제,” 2015.

명지학원. “취임선서”.

명지학원 설립정신 선포 50주년 기념. “세계최고의 복음주의 교육공동체,” 2006.

박대성. “최초의 여 의사 박에스더,”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2017.

박상진. “3.1운동 100주년과 기독교학교의 과제,” 3.1운동 100주년기념 전국 기독교학교대회, 2019.

박상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기독교학교 2022 가을호, 2022.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집,” 2012.

서울시교육청. “사실확인서,” 2000.

송순재. “새로운 영성 개념을 통한 교육의 방향전환,”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홀리스틱 「교육과 영성」, 2002.

언더우드. “언더우드 기도문,” 1890.

월드비전. “베이직포걸스 안내,” 2022.

유상근. “명지 해의(解義),”명지인, 1998.

음선필. “기독교학교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기독교학교 신앙교육활성화연구 세미나 및 공청회, 2023.

이성덕. “한국 근대교육과 선교의 선구자 아펜젤러,”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2017.

이종용. “이화박물관 안내서”.

이종용. “대한독립만세 애국소녀 유관순,”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2017.

이철/김정석. “기독교대한감리회 긴급 선언 및 결의문,” 2022.

이화여고 창립 130주년 특별기획전. “대한민국 여성교육사 1886- 여성, 규방에서 세상으로,” 2016.

장동민.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기독교학교,” 교육대전환의 시기, 기독교학교의 길을 내다 2022 사학미션컴퍼런스, 2022.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부적절한 종교교육 시정 요청,” 2012.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국가인권위가 왜 종교차별을 조장하는가?,” 2012.

충남연구원. “교원 인권교육 실태 조사,” 2021.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 2021.

함승수. “3.1운동과 기독교학교,” 2019.

크리스천투데이. “교회언론회 논평, 종자연, 기독교학교 감찰기관인가,” 2012.

한국교회총연합/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2022.

CBS뉴스. “전교생 지구촌 결식아동과 결연,” 2015.

CTS뉴스. “기독교 왜곡보도,” 2012.

CTS뉴스.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자!, CTS뉴스 The 보기 김종화 목사/명지고,” 2020.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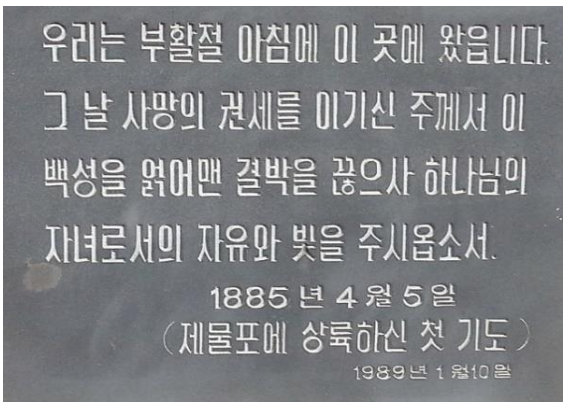
경신고등학교, 도산 안창호 기념관, 독립기념관, 명지고 해외 기증 우물(모잠비크(앙고니아), 방글라데시(비소필터), 베트남(엔뚜이 락시 유치원), 베트남(트라미), 차드(마와), 캄보디아(푸억 지역), 케냐(와지르)), 북한산 백운대(3.1운동 암각문), 배재고등학교, 배재학당 기념관, 샘물 호스피스, 소록도,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 유관순 생가, 이화여자고등학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외 명지고 각종 행사 사진.

부 록

주요 교단 교인수 추이(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연도(항목)	예장합동	예장통합	감리회	예장고신	기장	합신	합계
2004년	2,508,451	2,489,717	1,491,754	436,443	336,095	128,711	7,391,171
2005년	2,716,815	2,539,431	1,507,994	464,865	337,188	137,449	7,703,742
2006년	2,818,092	2,648,852	1,534,504	501,036	337,327	144,974	7,984,785
2007년	2,912,476	2,686,812	1,557,509	474,047	337,570	147,415	8,115,829
2008년	2,896,967	2,699,419	1,563,993	464,799	327,903	150,241	8,103,322
2009년	2,936,977	2,802,576	1,587,385	464,515	317,886	151,507	8,260,846
2010년	2,953,116	2,852,311	1,586,063	466,379	311,212	156,508	8,325,589
2011년	2,988,553	2,852,125	1,585,503	482,488	305,953	153,361	8,367,983
2012년	2,994,873	2,810,531	1,557,692	481,032	297,752	154,709	8,296,589
2013년	2,857,065	2,808,912	1,486,215	472,717	289,854	152,316	8,067,079

아펜젤러의 기도(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아펜젤러 동상(배재고등학교)

아펜젤러 추모비(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고종이 하사한 배재학당 현판(배재학당 기념관)

배재학당 교훈(배재고등학교)

"ㄱ" 자 교회(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발상지비(이화여자고등학교)

스트랜턴 흉상(이화여자고등학교)

장옷을 입은 여인(이화 박물관)

김점동(이화 박물관)

유관순 동상(이화여자고등학교)

유관순 부고기사(한국독립을 염원한 10대순교자)

The New York Times

Thursday, March 29, 2018 | Today's Paper | Video | 50°F | Nasdaq +0.06%

U.S. Politics N.Y. Business Opinion Tech Science Health Sports Arts Books Style Food Travel Magazin

OVERLOOKED

Overlooked No More: A Teenage Martyr for Korean Independence

The Times's obituaries have been dominated by white men. With Overlooked, we're adding women's stories. In 1919, Yu Gwan-sun became the face of a nation's yearning for freedom.

By INYOUNG KANG

Read More Obituaries for Remarkable Women We Overlooked

David J. Shulkin: Privatizing the V.A. Will Hurt Veterans

Some in the Trump administration saw me as an obstacle to privatization.

Trump's Heartless Transgender Military Ban Gets a Second Shot

By THE EDITORIAL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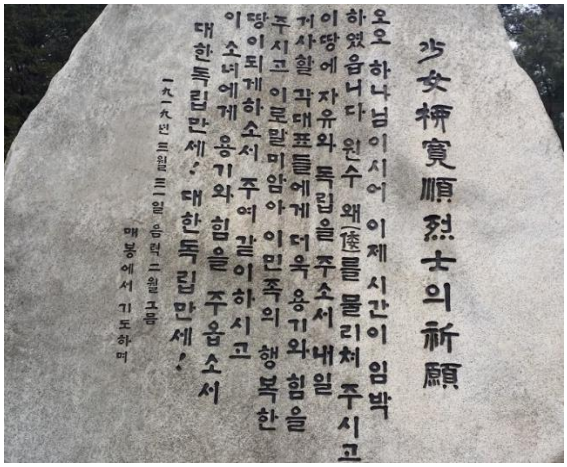
The president announced last week that he is trying again to keep transgender people from being able to defend their country.

· Blow: Character Should Still Matter

· Collins: Trump's Visitor From Outer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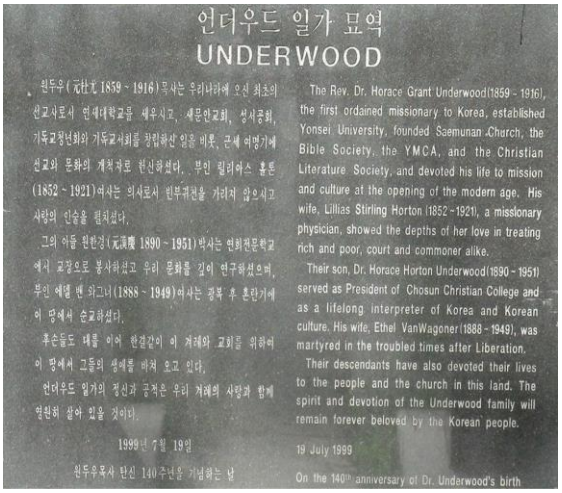
유관순 훈장(독립장) 및 명예졸업장(이화 박물관)

소녀 유관순 열사의 기원(독립기념관)



언더우드 동상(경신고등학교)

언더우드 일가 묘역(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언더우드 일가 묘역

UNDERWOOD

원두우(元杜尤 1859 ~ 1916)목사는 우리나라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로서 연세대학교를 세우시고, 새문안교회, 성서공회, 기독교청년회와 기독교서회를 창립하신 외에 비롯, 근세 여명기에 선교와 문화의 개척자로 헌신하셨다. 부인 릴리아스 홀톤 (1852 ~ 1921)여사는 의사로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으시고 사랑의 인술을 펴치셨다.

그의 아들 원한경(元漢慶 1890 ~ 1951)박사는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장으로 봉사하셨고 우리 문화를 깊이 연구하셨으며, 부인 에델 밴 와그너(1888 ~ 1949)여사는 광복 후 혼란기에 이 땅에서 순교하셨다.

후손들도 대를 이어 한결같이 이 겨레와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서 그들의 생애를 바쳐 오고 있다.

언더우드 일가의 정신과 공적은 우리 겨레의 사랑과 함께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1999년 7월 19일

원두우목사 탄신 140주년을 기념하는 날

The Rev. Dr. Horace Grant Underwood(1859 - 1916), the first ordained missionary to Korea, established Yonsei University, founded Saemunan Church, the Bible Society, the YMCA, and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and devoted his life to mission and culture at the opening of the modern age. His wife, Lillias Stirling Horton (1852 - 1921), a missionary physician, showed the depths of her love in treating rich and poor, court and commoner alike.

Their son, Dr. Horace Horton Underwood(1890 - 1951) served as President of Chosun Christian College and as a lifelong interpreter of Korea and Korean culture. His wife, Ethel VanWagoner(1888 - 1949), was martyred in the troubled times after Liberation.

Their descendants have also devoted their lives to the people and the church in this land. The spirit and devotion of the Underwood family will remain forever beloved by the Korean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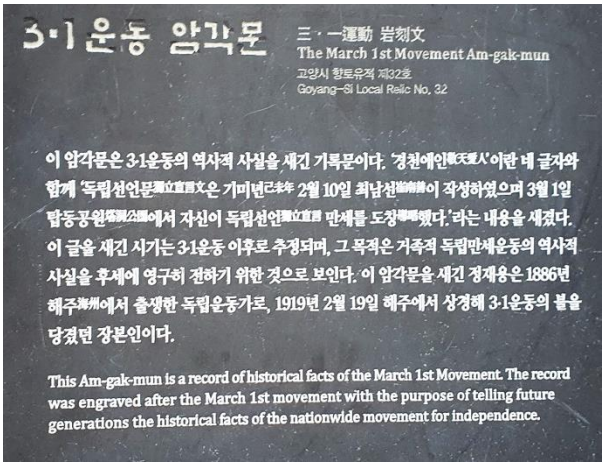
19 July 1999

On the 140th anniversary of Dr. Underwood's birth

3.1 운동 암각문(정재용,북한산 백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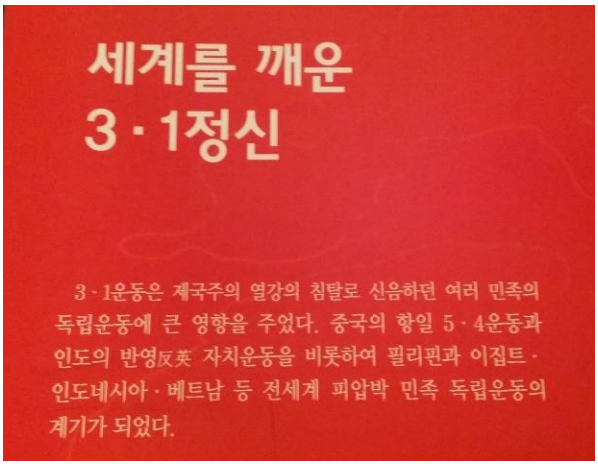
도산 안창호(도산 안창호 기념관)

3.1 운동 암각문



태극기 목각판(유관순 생가)

세계를 깨운 3.1 정신(독립 기념관)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차별 실태 설문지

2012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설문지(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교육 등으로 인하여 불편했던 적은 없는지,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경우이고 또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려 합니다.

이 조사는 누가 어떤 답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이루어지며, 조사결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몇 %라는 수치로만 공개됩니다. 당연히 학교 안에서 조사결과의 비밀도 유지됩니다.

평소 느끼고 생각하였던 바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이 연구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종교적 차별을 시정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행기관 : 국가인권위원회(담당자 연락처, 02-2125-9835)
■ 연구책임자 :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구팀 연락처 : 02-2278-1141)
■ 시행일자 : 2012. 11. 5. ~ 11. 30 ■ 대 상 : 중·고등학생

※ 해당하는 칸에 √로 표시하거나 직접 써주십시오.

1. 귀하는 어떠한 형태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종교계 사립학교**란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 특정 종교의 이념에 기초하여 설립된 학교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설립이념인 종교의 의식을 거행하고 종교교육을 실시합니다. 설립이념이 종교가 아니면 **비종교계 사립학교**이지만 이 경우에도 이사장이나 학교장 또는 교사의 종교에 따라 종교의식을 허가나 종교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① 국·공립학교 ② 비종교계 사립학교 ③ 종교계 사립학교 ④ 잘 모르겠다

1-1. **(종교계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만 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다니는 학교의 종교이념은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대순진리회

⑦ 천도교 ⑧ 대종교 ⑨ 기타 ( )

2. 귀하가 다니는 학교는 어떤 지역에 있습니까?
① 평준화지역 ② 비평준화지역

3. 귀하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강제로 배정된 것이 아니라 귀하가 선택한 것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3-1. **(종교계 사립 고등학교 학생만 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귀하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2 가지 이상 선택 가능합니다.)**
① 학교의 종교적 분위기가 좋고 종교교육을 받고 싶어서
② 부모의 종교와 같아서
③ 나의 종교와 같아서
④ 대학에 진학하는 데 유리해서
⑤ 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서
⑥ 집에서 가까워서
⑦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달리 없어서
⑧ 기타( )

4. 귀하가 다니는 학교 안에 법당이나 예배당 등 종교 시설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5. 귀하가 다니는 학교 안에 종교적 상징물(불상, 예수상, 십자가, 종교인 동상 등)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5-1. **(5번 문항에 "① 있다"고 답한 학생만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다니는 학교 안에는 불교,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 포함), 유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천도교, 대종교 등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종교에 관련되는 종교적 상징물이 함께 있습니까?(예를 들어, 부처님상과 예수상이 함께 학교 안에 있거나,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와 불교를 나타내는 卍자가 함께 있다거나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6. 귀하가 다니는 학교에서 불교,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 포함), 유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천도교, 대종교 등 종교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종교에 대해 대등한 비중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7. 귀하가 다니는 학교의 교직원(교장, 교사, 직원 등)이 학생들이 참석한 공식적인 자리(수업,

2012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설문지(교직원)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학교 내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분석되어 수치로만 공개됩니다.

평소 느끼고 생각하였던 바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시행기관 : 국가인권위원회(담당자 연락처, 02-2125-9835)
- 연구책임자 :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구팀 연락처 : 02-2278-1141)
- 시행일자 : 2012. 11. 5. ~ 11. 30
- 대 상 : 중·고등학교 교직원

※ 해당하는 칸에 √로 표시하거나 직접 써주십시오.

1. 귀하는 **자신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아래 보기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번호	보기	예	아니오	모르겠음
1-1	채용 당시 특정 종교의 교인 또는 활동에 관한 조건이 있었다.			
1-2	채용 당시 면접 과정에서 종교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1-3	교직원 연수를 종교 관련 시설에서 받은 적이 있다.			
1-4	교직원 연수 중 종교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다.			
1-5	학교에서 학내 종교 활동 참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1-6	일과 시간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종교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1-7	종교 활동이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다.			
1-8	학교에서 요구하는 종교 활동에 불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			
1-9	종교적 이유로 학교로부터 돈이나 물품의 기부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1-10	학교 재단의 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한 폄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			
1-11	상사가 종교 활동을 권유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교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1-12	상사의 종교와 나의 종교가 달라 종교를 밝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2. 귀하는 아래 각각의 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호	보기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다소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1	교직원은 근무시간 중 특정종교행사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					
2-2	국·공립학교 안에 종교시설을 둬서는 안 된다.					
2-3	종교집단 사이의 적대적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국가가 금지해야 한다.					

3. 귀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u>종교의식이나 행사 또는 종교교육</u>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마다 선택)**

번호	항목	①매우 찬성	②다소 찬성	③보통 이다	④다소 반대	⑤매우 반대
3-1	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의식 등을 하는 것은 문제없다.					
3-2	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의식 등에 참여할지 말지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3-3	학교에서는 어떠한 종교 교육이나 의식도 하지 말아야 한다.					
3-4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					

4.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써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 아래는 통계를 위한 일반사항입니다. 해당되는 **1개의 난**에 정확히 표시해 주십시오.

5.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6.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충남연구원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2021.7.8(목)~7.21(수) 기존 설문기간에서 연장)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33%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의 교원 대상 설문조사로 우리나라 초·중등 교원 대상 인권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비밀이 보장되며, 해당 연구 및 정책 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실태조사가 향후 교원 인권교육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번거로우시더라도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에서 '인권교육' 또는 '인권연수'는 기관 내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 등)을 제외한 교육을 말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응답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책임자: 김병준(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 pencil@cni.re.kr / 041- 840-1264)
(담당연구원: 공형구(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 hggong@cni.re.kr / 041- 840-1125)

충남연구원

* 학생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미성숙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기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종교행사 및 종교교육을 학생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국가인권위의 종교차별실태조사 설문조사의 위헌성 문제(법률사무소 가을햇살)

harvest law office
법률사무소
가을햇살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163
광화문 오피시아빌딩 2224호
110-999
TEL :(02)3276-3040, 3042
FAX: (02)3276-3041
E-mail : harvestlegal@gmail.com

2012. 11. 13. 전송매수 5 (표지포함)

수 신 : 박종언 목사님

참 조 :

제 목 : 국가인권위의 종교차별실태조사 설문조사의 위헌성 문제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1. 위 건에 대한 저희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설문조사 대상학교 선정의 자의성 - 자의금지 원칙에 반하는 평등권침해

가. 인권위의 대상선정에 대한 자백

무엇보다도 설문조사 대상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종자연 연구팀(이하 연구팀이라 함)이 대상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연구팀이 전국의 31개 고등학교를 지역별 학교현황, 인구수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평등권침해와 자의금지원칙

이러한 선정과정의 임의성은 전체 학교에서 설문조사 대상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 선정기준이 없이 임의로 선정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선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자의금지원칙에 반하는 선정이 되어 선정된 학교와 선정되지 않은 학교간에 비합리적인 차별을 두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3. 설문실시 목적 또는 취지 설명의 위헌성 문제

가. 연구팀의 설명

연구팀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교육 등으로 인하여 불편했던 적은 없는지,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그 것이 어떤 경우이고 또 어는 정도인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에 다라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법률사무소
가을햇살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163
광화문 오피시아빌딩 2224호
110-999
TEL :(02)3276-3040, 3042
FAX: (02)3276-3041
E-mail : harvestlegal@gmail.com

연구하려 한다"고 설문조사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 취지자체는 심각하게 다음과 같이 학교 또는 학교법인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 용어의 선정문제 – "불편"과 "인권침해"를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자의적 용어사용

불편이라는 용어는 사전상 1)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번거로움 2) 몸이 편안하지 못하고 괴로움 3)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은 비단 종교교육이나 종교의식뿐만 아니라 피교육생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교육을 받는 것 자체에 의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반면에 "인권침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사인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지 번거롭다거나 거북하다 또는 편안하지 못하는 "불편"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종교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설문조사의 취지에 있어서 "불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마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이것이 마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종의 "인권침해"라고 혼동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설문결과의 왜곡

결국 연구팀은 이러한 불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종교교육이나 종교의식 때문에 불편하다는 자의적인 설문조사결과를 유도할 수 있고 불편함이 종교차별이라는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그날 신체나 심리의 상황에 따라 특히 자신과 다른 종교교육을 할 때 편안함 보다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불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종교교육이나 의식 때문에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결론을 유도하여 이 것이 마치 인권침해인양 왜곡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4. 두 가지 이상의 종교적 상징물이 있는가 등의 설문과 종교자유침해

가. 연구팀의 설문

연구팀은 종립사립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설문에서 학교안에 종교적 상징물이 있는 경우 두 가지 이상 종교에 관련되는 상징물이 함께 있는가, 두 가지 이상의 종교에

법률사무소
가을햇살
harvest law office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163
광화문 오피시아빌딩 2224호
110-999
TEL :(02)3276-3040, 3042
FAX: (02)3276-3041
E-mail : harvestlegal@gmail.com

대하여 대등한 비중으로 배운 적이 있는가, 학교의 교직원이 다른 종교나 종교인에 대해 근거가 없이 나쁘게 말하거나 편견을 나타낸 적이 있는가, 학교의 공식행사나 교육과정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있는가 등에 대하여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법인의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종교적 상징물 - 종립학교로 하여금 타종교 상징물을 대등하게 설치하도록 유도

종교적 상징물이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종교적 상징물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묻고 있는 바 이는 마치 한 가지 종교적 상징물만이 있으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처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종립학교에 타종교 상징물까지 동등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종교차별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종립학교는 종교의 자유 중 선교의 자유 특히 종교선전의 자유를 위하여 세워진 학교이며 종교선전의 자유는 자신들의 종교를 타종교에 앞서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종교 상징물까지 동등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마치 종교차별을 하는 것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오인케하고 종립학교로 하여금 종교선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종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다. 두 가지 이상의 종교에 대하여 대등하게 배운 적이 있는가 – 선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침해

종교의 자유에는 위에서 든 선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가 그 내용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위 질문에는 종립학교에서 마치 한 종교만을 가르치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대등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마치 종교차별이 있는 것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오인케 하고 또한 선교의 취지로 설립된 종립학교에 다른 종교에 대하여 선교할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종립학교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질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에도 이러한 비판이 마치 종교차별인 것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종립학교의 선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이

harvest law office
법률사무소
가을햇살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163
광화문 오피시아빌딩 2224호
110-999
TEL :(02)3276-3040, 3042
FAX: (02)3276-3041
E-mail : harvestlegal@gmail.com

라고 할 것입니다.

라. 학교의 공식행사나 교육과정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있는가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행사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사는 기도,예배 등 신앙을 외부에 표명하는 모든 의식 또는 제전을 말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는 단지 내심의 자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행위로 표현될 때 종교의 자유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설문은 선교목적으로 세워진 종립학교가 종교적 행사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의 자유로써 행하고 있는 예배의식 자체를 행하는 것이 마치 종교침해인 것으로 유도하여 종립학교의 종교행사와 종교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립학교의 공식행사나 수업 등에서 종교의식을·거행하는 것 자체를 종교차별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종립학교의 종교행사와 종교집회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 종교행사시에 돈이나 물품을 걷는 경우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지, 사용결과를 알려주는지 등

연구팀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헌금행위 자체가 종교차별임을 유도하고 있고, 헌금관리, 결과 등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으면 마치 종교차별인양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행사의 자유 즉 예배, 기도, 헌금 등 신앙을 외부로 표명하는 모든 의식이 포함되는 것이며 헌금은 예배 중 포함되는 의식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교행사의 자유 자체에 포함된 내용 중 헌금을 강조하여 이를 금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종립학교에 대한 심각한 종교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 어느 학교도 재정과 관련하여 후원금과 기부금 등에서 학생들에게 일일이 그 결과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행사와 관련하여 종교행사의 자유로써 이루어진 헌금에 대하여만 관리주체, 사용결과 등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으면 마치 종교차별이 있는 것으로 유도하여 종립학교의 종교행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일보 보도(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2012 년)

"종자연, 대광고 사태 개입 이후 학원선교 크게 위축"

교목 4인이 밝힌 종자연과 미션스쿨 교육 현실

불교계의 지원받는 종자연
막강한 힘으로 교육청 압박…
인권위 용역 꼭 철회시켜야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의 학생인권문제 개입이 기독교계 사학의 종교적 자율운영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션스쿨에서 시무하는 교목들은 차제에 종자연의 반(反)기독교 활동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향후 미션스쿨의 존립마저 어려워질 것이라며 범교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대광고에서 만난 김용권(56·서울 오산고) 원광호(58·대성고) 우수호(43·대광고) 김종화(42·명지고) 교목은 "불교단체인 종자연이 대광고 사태를 지렛대삼아 학내 종교자유 문제를 이슈화 시킨 뒤 기독교 사학의 채플과 종교교육 시간을 제한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종교교육 지침이 내려왔으며, 학내 신앙교육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학내 신앙교육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종자연 연구용역을 반드시 취소시켜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 학생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을 강제 배정시키는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목들은 "종자연이 제기한 학내 종교자유 침해사례와 서울시교육청의 '종교관련 장학지도 계획'이 놀랍도록 일치했다"면서 "종자연이 막강한 인적·물적·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해 미션스쿨을 관리·감독하도록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목들은 "대광고 사태 이후 교육청은 한 장소에서 모여 특정 종교의식 실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종교의 의식 활동을 교과 내용에 포함한 지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종립학교와 건학이념에 맞는 교직원 임용조차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작 학생들은 대학입시 때문에 학내 종교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자연과 같은 외부단체가 작은 문제 하나를 발견해 문제를 선동하고 침소봉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목들은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종자연은 인권위 연구용역을 지렛대 삼아 대광고 사태 이후 형성된 종교교육 풍제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27면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종교교육 막아 기독학교 씨를 말리려고 해"

교목 4인이 밝힌 종자연과 미션스쿨 교육 현실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는 교목들은 종자연이 대광고 사태에 직접 개입하고, 학내 종교교육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상황에 큰 우려와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불교단체의 공격을 적극 막아내고 사회적으로 평준화 교육시스템의 맹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교목 4명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미션스쿨의 현장 실태를 알아본다.

김용관 교목 (서울 오산고)
원광호 교목(서울 대성고)
우수호 교목 (서울 대광고)
김종화 교목 (서울 명지고)

-강의석씨가 제기한 대광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수호=잘 알다시피 대광고는 고 한경직 목사님이 설립하신 명문 기독사학이다. 그동안 길자연 하용조 이영훈 이수영 김창근 목사님 등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배출됐다. 이 사건으로 학교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 강의석씨가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학내 신앙교육을 제한하는 교육청 지침의 직·간접적 근거가 됐다. 당시 강의석씨를 옹호하기 위해 종자연이 앞장섰다. 저쪽은 변호사만 45명이었고 법무법인 187개가 달라붙었다. 우리 쪽은 법무법인 로고스밖에 없었다.

△김용관=대광고 사태를 주도한 곳은 불교단체인 종자연이다. 기독교 사립학교의 종교문제에 불교단체가 소송을 주도하고 기독교 학교를 압박한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은 불교와 기독교 간 종교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대광고는 한국교회 지원 없이 고독한 싸움을 벌였다.

△김종화=이 사건으로 학원선교가 상당히 위축됐다. 선교사들과 신앙선배들이 생명을 다해 병원과 학교선교의 기반을 마련해 놨는데 불교계가 신앙교육 문제로 치고 들어와 '재로상태'로 만들려 했던 것 같다. 또 누군가 아이들을 선동해 한국교회에 대한 이상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학교분위기는.

△원광호=학생들이 "학교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서 쉽게 말을 꺼낸다. 하지만 종교교육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모든 관심이 대학입시에 있기 때문이다. 강의석씨가 문제제기하기 전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절대 다수 학생은 학교편이다. 종자연과 같은 단체가 한국교회와 미션스쿨을 이상한 단체로 몰아가고 있다. 사회가 이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목 4인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미션스쿨 내 신앙교육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재정을 투입했으며, 인권위 연구용역을 통해 법적 장치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김용관 우수호 원광호 김종화 교목.

종자연이 문제 제기한 것과 교육청 장학지도 계획 일치
건학이념 무시 미션스쿨을 이상한 단체로 몰아가려는 의도
학생 1~2명 때문에 종교 대체과목 신설은 현실적 불가능
규탄 성명서 한번 안낸 한국교회의 상황인식 너무 안일

△우수호=2011년 자립형 학교로 전환됐는데도 교육청은 과거의 기준을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 요지는 채플이나 종교교육 시간에 대체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1~2명 학생을 위해 교사를 채용하고 반배치를 따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용관=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선 기독교 학교를 압박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종자연이 제기한 학내 종교자유 침해사례와 서울시교육청의 '종교관련 장학지도 계획'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종자연이 막강한 인적·물적·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해 미션스쿨을 관리·감독 하도록 몰아세우고 있다.

-사회는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보호하자고 한다.

△우수호=국가는 평준화를 명목으로 기독 사립학교에 학생을 강제로 배정했다. 이 상황에서 학교가 추구하는 건학이념, 신앙교육은 무시된 채 학생 인권만 논의된다. 이것은 마치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고장 난 신호등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다. 빨간불과 파란불이 마구 섞이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잘못으로만 몰아붙였다고 생각해보라. 즉 국가는 사건이 발생할 구조를 만들어놓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라며 학교 탓을 하고 있다. 신호체계는 바꾸지 않고 말이다.

-종교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교계가 시민단체를 가장한 종자연을 앞세워 기독교를 공격했다.

△김용관=종교의 주요 기능은 사회통합에 있다. 서로의 종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불교단체인 종자연은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걸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켰다. 이런 종자연이 인권위의 학내 종교자유 연구 용역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정성과 객관성도 없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준 것이다. 당연히 막아야 한다. 종자연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 앞으론 불교정책종교자유연구원으로 부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수호=한국교회가 너무 안일하다. 성명서 하나 내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상대는 변호사까지 고용해 치밀한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 종자연의 다음 목적이 무엇인줄 알고나 있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연합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김용관=지금 기독교학교는 존립위기에 처해 있다. 종자연의 목적은 기독교 학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각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긴급히 만들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선교사와 한국교회가 세운 기독교 사학을 지켜야 한다. 매년 5만 명이 미션스쿨에서 배출된다. 누군가 민족복음화의 황금어장인 기독교 학교의 씨를 말리려 한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종교차별 조사 선정 '종자연' 기독교 공격 속속 밝혀지는데…

인권위 "종자연 불교단체 아니다" 거세지는 졸속 선정·무책임 논란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차별 실태조사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이 과거 한국교회를 공격했던 행적이 추가로 드러나면서(표 참조)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론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종자연의 안정성과 신뢰성, 공신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연구기관으로 졸속 선정한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단체인 종자연의 종교 편향적 행보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이 단체가 2005년부터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한 이슈는 학내 종교자유 보장,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강화, 종교편향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이다. 겉으론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용은 모두 기

> 대광고·교회내 투표소 금지 등 설립후 한국교회 집중 공격에 일부 사찰·종단에선 후원금도 인권위 "엄격히 관리"만 되풀이

독교 신앙을 표출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다. 종자연은 심지어 'Jesus loves you'라는 문구가 적힌 고려은단의 옥외광고판까지 시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반면 종자연은 매년 185억원씩 82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템플스테이나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연등회, KTX 통도사역 병기 논란 등의 이슈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 이는 종자연의 종교편향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종자연을 이끌고 있는 박광서 공동대표는 현재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사와 한국불교재가회의 운영위원, 조계종 화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종자연의 이런 행보에 대한 불교 쪽의 반응은 자연히 우호적이다. 화계사에선 "종단과 사찰에서 앞장서기 어려운 일을 맡아주니 감사하다"며 종자연에 금일봉을 주었고, 천태종도 "종교자유 신장을 위해 용맹정진해 달라"며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를 표방하지만 한국교회를 주로 공격해온 종자연의 이런 행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줬다는 데 있다. 4200만원의 국가예산이 책정된 이 용역연구 발주는 기관의 안전성, 신뢰성, 공신력 확보여부, 과제의 목적·쟁점에 대한 이해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이 평가기준이었다. 종자연이 이런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단독응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덜컥 선정해버렸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종교편향 주장 내역

연도	기독교 관련	불교 및 기타 종교 관련
2005년	문봉주 전 뉴욕총영사의 공개 성경 강좌 국가대표선수 기도세리모니 공립학교 내 종교활동 금지 주장 대광고 강의석씨 사태 개입	없음
2006년	미션스쿨 신앙교육 금지 주장 숭실대 채플거부 사태 개입 고려은단 옥외광고판 문제제기	〃
2007년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강화 교회 내 투표소 설치 전면금지 헌법소원	〃
2008년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헌법소원, 국가인권위 진정 공정택 전 교육감 종교활동 헌법소원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 주장	〃
2009년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종교차별 문제제기 서울 대치동 '칼빈길' 문제제기 교회 투표소 설치 금지 주장	〃
2010년	청와대 예배, 안양 백영고 예배 문제제기 지자체 시립합창단 활동 문제제기 기독교 이슬람채권법 반대에 반대성명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의혹 제기 공직자 조찬기도회 참여금지 주장	〃
2011년	국방부 찬송가연주 문제제기 사랑의교회 10만 감사청구 서명운동 전개	〃
2012년	국가조찬기도회 중단 촉구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용역과제는 누구라도 응찰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를 토대로 판단한다"며 "연구용역 1차 응찰결과 종자연 한군데만 해 재공고를 했지만 2차 공고에서도 지원 단체가 없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종자연이 불교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와 단체가 임의로 연구용역을 해지하려면 법률과 규정에 따른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는 게 기독교계의 시각이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종자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불교는 자기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가장해 한국교회를 공격적인 종교, 종교 편향을 자행하는 곳으로 몰아붙였다"면서 "국가기관이 이런 종자연에게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맡기고 그들에 의해 움직인다면 누가 국가 종교정책을 신뢰 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한국교회 공격수 종자연 '기독교 종교편향 왜곡' 위해 조계종서 9500만원 수수

본보, 2008년 자료 입수

범종교 시민단체를 표방하며 한국교회를 공격했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이 대한불교조계종으로부터 종교편향연구 명목으로 최소 9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은 종자연을 내세워 기독교를 종교편향 집단으로 공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본보가 24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광서 공동대표는 2008년 8월 4일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범불교비상대표자회의에서 "법장스님(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종교편향 연구지원금으로) 종자연에 매년 1억원의 예산을 약속했지만 그 해(2004년) 5000만원, 다음해 3000만원, 그 다음해 1500만원으로 줄었다"면서 "종교편향 관련 예산을 조계종 총무원에서 매년 (예산의) 1%씩 10년간 지원해줘도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대광고 사건은) 헌법 정신에 기초해야 하며, 종자연 등에선 이 문제를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헌법분야 최고의 전문가에게 용역을 줬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또 같은 해 8월 불교계 언론과 인터뷰에서 "4년 전 조계종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강의석 사건 직후 종자연에 종교편향 연구지원금으로 1억원을 책정해 그 해 5000만원이 집행됐다"면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됐으면 지금쯤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인터뷰에서 "1000만 불자 모두가 종교편향 감시자가 되어 지역의 소소한 사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면 지금과 같은 일들(기독교의 종교편향)이 감히 발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보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자연 배병태 사무국장에게 연락했지만 "통화하고 싶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광서 공동대표도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불교는 겉으로는 타 종교와의 평화를 강조하며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면적으론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선교를 방해하고 교회를 종교차별 집단으로 몰아세웠다"면서 "이런 모습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이중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이 정도 밝혀졌으면 불교계 지도자들이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특히 이런 단체에 미션스쿨내 종교차별 실태와 개선방안을 찾으라며 연구용역을 준 국가인권위원장과 공직자의 종교중립의무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태 일지

일 시	내 용
5월 16일	종자연, 인권위로부터 '학내 종교차별 실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주
26일	본보, 종자연의 인권위 용역 수주 첫 문제제기
30일	본보, 종자연이 화계사와 천태종으로부터 후원 받은 사실 보도
31일	본보, 종자연의 대광고 사태 적극 개입 사실 보도
6월 1일	종자연 관계자, "불교단체 아니다" 주장 본보, 종자연 불교 포교단체 건물 입주사실 보도
2일	본보, 종자연이 사랑의교회 시민감사청구에 개입한 사실 보도
13일	본보, 종자연이 불교단체라는 명백한 증거 단독보도 예장 합동, 종자연 규탄 성명서 발표
14일	박광서 종자연 공동대표, "종자연은 불교단체 아니다" 반박
18일	한기총, 종자연·인권위 규탄 성명서 발표 인권위, 본보의 종자연 연구계획서 정보공개 청구 거부 본보, '종자연의 기독교 공격 전략 시리즈' 시작
19일	한기총, 종자연 특별위원회 구성 결정
22일	길희성 종자연 공동대표, "종자연은 불교단체" 시인 본보, 종자연 내 기독교계 인사 활동은 허구 사실 보도

‘종자연=불교단체’ 명백한 증거에도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당장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가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09. 3. 24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불교계 제 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범불교대책위원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보리, 실천승가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조계사청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포교사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가나다 순)

인권위 축소 반대 성명서에 ‘불교단체 일동’ 표기

인권위는 종자연 두둔… 연구용역계약 취소 안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이 친불교 수준을 넘어 확실한 불교단체였다는 증거가 나왔다. 이로써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교가 종자연을 동원해 개신교를 종교편향 집단으로 공격해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본보는 2009년 3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불교계 제 단체 일동’이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성명서를 12일 입수했다. 이 성명발표에 종자연은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불교단체와 함께 참여했다. 이에 앞서 종자연은 2008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후원행사에서 “불교를 넘어 사회 전체에 새로운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면서 조계종 천태종 관음종 총화종 등 불교계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배병태 종자연 사무국장은 12일 “종자연은 불교단체가 아니다”며 발뺌했다. 배 국장은 본보 기자가 “2009년 불교단체 명의로 낸 성명서에 종자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으나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은 뒤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들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자연은 불교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전히 종자연을 두둔할 뿐 연구용역 취소 의사는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와 종자연의 관계 때문에 종자연이 연구용역에 선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종자연의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참고자료일 뿐 어떤 권고나 의견을 표명할지는 인권위가 하게 된다”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정일배 변호사는 “종자연이 특정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면서 “게다가 불교계가 시민단체를 앞세워 다른 종교를 공격한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7대 종교로서 심대한 윤리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종자연이 인권위 ‘학내 종교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따낸 것은 종북세력이 북한 인권을 조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 연구를 시민단체를 가장한 종교편향 단체가 맡게 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종자연은 2010년 6월 한국교회언론회가 ‘조계종이 불교계를 위해 위장된 시민단체를 이용해 수년간 기독교학교를 괴롭히고 있으며, 기독교 활동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3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귀 단체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유포 근거가 없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한 적도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Key Word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시민단체를 표방하며 1999년 설립된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기관이다. 2006년부터 미션스쿨 내 종교교육은 물론 사랑의교회 건축, 교회 내 투표소 설치, 기도 세리모니, 고려은단 광고판에 이르기까지 200여 차례 논평과 세미나 기자회견 캠페인 등으로 한국교회를 종교편향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반면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사업이나 사찰통행료 징수 문제 등에 대해선 일체 함구하고 있다.

대광고 사태 판결후 26개월… 대광학원 이사장 이철신 목사 입을 열다

“변호사 45명 법무법인 18곳 벌떼 공격 불교계·종자연 합작품 요즘 와서야 알아”

“한국교회는 마치 강도가 사랑방을 뒤지고 있지만 ‘안방만 들어오지 않으면 된다’며 느긋해하는 집주인과 같다.” 대광고 사건과 관련해 일체 언급을 자제했던 이철신(서울 영락교회·사진) 목사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의 실체가 밝혀지자 그간의 생각을 거침없이 풀어냈다. 대법원이 대광고 사건 판결을 내린지 26개월 만이다. 대광학원 이사장인 그는 2010년 4월 대법원 판결 때 피고였다. 20일 교회 담임목사실에서 만난 그는 소송 당시 심정과 학원선교의 중요성,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등에 대해 소신 있게 밝혔다.

-대법원 소송 때 분위기는 어땠나.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 45명과 18개의 법무법인이 달라붙어 ‘미션스쿨에서 종교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강의석씨를 변론했다.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전반에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대광고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강씨가 원고였지만 실제 소송을 진행한 곳은 불교단체인 종자연이다. 한꺼번에 공격을 당하다 보니 정신이 없더라. 이제 와서 보니 시민단체와 종자연, 불교계가 합작해 우리를 공격한 사건이었다.”

-2심에선 승소했지만 3심에서 뒤집어졌다.

“불교 쪽에 법률가가 많더라. 아마 공익소송이라는 이름 아래 지원했을 것이다. 기독교인 중에도 법조인이 많았을 텐데. 허참, 대법원에서 졌으니….”

-류상태 전 교목의 역할도 컸나.

“류상태씨는 대광고 교목실장이었다. 그런데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배타적 교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교목들과 종교다원주의 논쟁을 벌였다. 주변 교목들이 류씨에게 ‘예장 통합 소속 목사니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면 안 된다’고 몰아붙였는데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이 사실이 이사회에 보고가 됐고 ‘대광고 교목으로 있으려면 신학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류씨는 종교다원주의를 버릴 수 없다고 버텼다. 곧이어 예장 통합 서울 동노회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2004년 10월에 목사직을 반납하더라.”

인권빙자 똘똘뭉쳐 미션스쿨 압박

종자연측 대법원서 결국 뒤집어

신앙교육 위해선 평준화 철폐해야

-교목까지 지낸 사람이 불교단체에서 활동한다. 사찰에 가서 종교편향 강의도 하고 조계종 토론회에서 강연도 했다.

“학교를 그렇게 그만둔 사람이 기독교에 좋은 감정을 갖겠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그런 활동은 하지도 않는다. 잘 아는 사람이니 더 무서운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학교 상황은.

“2011년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돈 한 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교육청의 간섭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니 간섭 정도가 아니라 강제로 협박하는 수준이다.”

-평준화 이야기를 해보자.

“2010년 대법원 판결 당시 내가 대광초·중·고등학교, 영락중·고등학교, 보성여자중·여자고등학교 등 3개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으니 기자들이 학교 재벌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 정말 학교로부터 십원 한 장 받는 게 없다. 영락교회는 오히려 매년 수억원씩 학교에 지원한다. 한국교회는 정부를 대신해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면서 사립학교를 대신 세웠고 교육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은 최소한 존중해줘야 한다. 문제는 평준화에 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충돌하고 있다. 학교의 설립 목적대로 예배드린 학생, 성경공부 배운 학생만 들어온다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학생이 어디 있겠나. 정말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신앙교육을 하려면 평준화를 철폐해야 한다.” ≫27면에 계속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교계, 종자연 사태 강건너 불 구경 답답”

≫‘대광고 사태-’ 이철신 목사 인터뷰 25면서 계속

-사건 이후 종교교육을 금지하라는 교육청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

“지침은 예전부터 내려왔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지침은 결국 신앙의 자유, 예배드리는 자유, 믿는 복음을 전할 자유, 선교할 자유를 막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도 가고 순교도 했다. 이건 적당히 타협할 일이 아니다. 우리 선배들은 복음을 목숨 걸고 지켰다. 계속 그렇게 협박할 것이면 차라리 나를 이사장에서 해임시켜 달라. 운동을 일으키려면 누군가 한명은 희생돼야 한다. 그래야 전체가 각성한다. 하지만 정부 쪽에선 그렇게 안 한다. 교육청은 계속 겁만 준다.”

-그래도 학교에 부담이 되지 않나.

“교장이나 교사는 압력을 많이 받는다. 징계 문제로 자기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단과 교계가 침묵한다.

“참 답답하다. 얼마 전 예장 합동이 종자연 관련 성명서를 냈더라. 사실 예장 합동엔 미션스쿨이 별로 없다. 학교는 예장 통합과 기감이 많은데 목소리가 전혀 없다. 높은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의 의식이 별로 없다는 말이다.”

“강도가 사랑방까지 들어와 설치는데 안방만 안들어 오면 괜찮다는 건가 기독 법률가모임 등 만들어 대응해야”

대광고 사태 판결후 26개월 만에 입을 연 이철신(서울 영락교회) 목사는 무척 단호했다. 그는 20일 “교육청 지침이 예배와 믿는 복음을 전할 자유를 철저히 막고 있다”며 “계속 그렇게 협박할 것이면 차라리 나를 이사장에서 해임시켜 달라”고 격정을 토해냈다. 윤여홍 선임기자

-학원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학교는 운영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론 대형 교회가 큰 어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전도 사명에 충실해 사람을 낚는 어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어장이 좋아야 고기를 낚는 것이지 어장이 황폐화하면 아무것도 못 잡는다. 학원선교도 마찬가지다. 어장을 만드는 일이다. 어장이 풍성해져야 한다. 미션스쿨엔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 그렇다고 졸업생이 모두 우리 교회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교회를 섬긴다. 복음화율이 낮은 제주도나 부산·경남을 복음화하고 싶은가. 그럼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 된다. 졸업생들이 언젠가 지역사회의 리더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층에 기독교인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나. 그들은 대부분 학원선교, 대학생 선교의 결과물이다.”

-종자연이 활동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불교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것 같다. 더 큰 불안은 기독교 인구수에 비해 엘리트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깨는 방법으로 미션스쿨을 공격했던 것이다. 어떤 교수님이 지금의 상황이 미국에서 특정 종교가 기독교를 공격한 것과 꼭 닮았다고 하더라. 소수 특정종교가 기독교를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소송과 언론 활용이었다고 한다.”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은.

“집에 강도가 들어와 설치고 있다. 한국교회는 마치 강도가 사랑방을 뒤지고 있는데 ‘안방에만 안 들어오면 상관없다’고 안주하는 집주인과 같다. 미션스쿨은 일종의 사랑방과 같다. 기독교 학교를 공격하는 세력이 점점 침투해 들어오면 교회라는 안방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에 부탁할 사항이 있다면.

“개 교회, 개 교단주의가 결국 문제다. 개인적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한국교회를 위해 합치면 안 되나. 미션스쿨과 관련된 일은 개별적으로 대응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기독 법률가 모임도 만들어야 한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기독 언론, 기독 법조인이 좀 더 강력해져야 한다. 저쪽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치고 들어온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같은 교회기관이 이런 걸 이야기해야지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한국기독교학교연맹에 따르면 기독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8400여명, 중학교는 7만5800여명, 고등학교는 17만6500여명이다. ‘사랑방’에 자그마치 26만700여명의 청소년이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한번 가정해보자. 사랑방에 강도가 들어왔다. 그런데도 집 주인이 침묵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겁 많고 무책임한 가장일 것이다. 아니면 진짜 집 주인이 아니거나.

백상현 기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문

KiRF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우)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함께빌딩 3F
전화:02-2278-1141 전송:2278-1142 홈페이지:www.kirf.or.kr

문서번호 : 종자연 20120810-1
시행일자 : 2012. 08. 10.
수 신 : 명지고등학교 장
참 조 : 담당자

제 목 : 부적절한 종교교육 시정 요청

1. 귀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교자유정책연구원(약칭: 종자연)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2006. 3. 개원한 이래 종교 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 활동을 해 온 민간연구기관입니다.

3. 2012.8.9일자 주요 일간지(한겨레)를 통해 귀 학교의 종교교육과 관련된 기사를 확인한 바, '신앙부흥회'에 1.2학년 학생 모두가 참석토록 하고 매일 아침 8시 경 교실에서 '큐티'라는 묵상시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대체과목의 편성과 관련 교육내용이 취지에 맞지 않게 실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 이는 타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헌법 제20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육부 고시 및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0년 4월 22일, 대광고 강의석 사건(2008다38288)에 대하여 종교사학이 학생의 종교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5. 한편, 입학할 때 서약서를 받는다거나 전학가고 싶은 학생은 전학 보낼 용의가 있다는 학교당국 책임자(교감)의 발언은 학생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6.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 학교의 부적절한 종교교육이 조속히 시정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시정 조치 결과를 8월 3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언론기사 1부(3쪽)

담당 : [redacted]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가 왜 종교차별을 조장하는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불교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 사이에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명목으로 용역 계약을 맺어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계에서는 불교 단체에 의한 종립학교 사찰이 문제가 있고, 또 특정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종교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그런데 인권위는 지난 11월 9일 전국의 147개 중•고교에 대하여 '종교차별 실태조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인권위가 종자연이 불교단체임을 알면서도 이런 잘못된 용역체결을 파기하기는커녕, 이를 강행함은 기독교계를 무시함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육기본권'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반인권적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우리사회에 파열음을 내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학의 입장을 밝힌다.

1. 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인권위가 불교 단체인 종자연과 맺은 용역계약은 중요하고, 우리사회를 혼란하게 할 종교 갈등과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교육과 종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육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에 앞장서도 되는 것인지 답하라.

2. 인권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평준화)에 의한, 피해자인 종립학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인 정부의 교육정책 시정에 대하여는 어찌하여 침묵하고 있는가?

3. 종자연에 의한 인권위의 '설문조사'는 '인권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거나(문3-1) 종교다원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문5-1) 포함되어 있다. 또 종립학교에서 당연히 행할 종교행사를 부정하는 듯한 문항들이 있고(문8, 8-1), '고교선택제'를 통해 배정된 학생들의 의사 결정조차 무시하는 듯한 독소적 조항(문18)을 담고 있다.

4. 인권위의 '협조 요청'을 받은 140여 개 각급 학교는 불교단체 종자연과 인권위가 잘못 맺은 결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응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제28회 전국교목하기연수회, 2012.7.26.-28, 17개의 교단 및 기독교 주요연합기관, 학원이사장 및 전국 300여개의 기독교 중•고등학교장 등의 관계자들이 '종교편향 기독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 2012.8.30.) 있음을 상기하여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라도 이렇듯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며, 자칫하면 종교간 갈등과, 특정종교에 의한 다른 종교를 억압하는 행위에 대하여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기독교계도 국가기관에 의한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2년 11월 16일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국민일보 보도(2012 년)

미션스쿨이 종교감옥?

한겨레 반기독적 보도에
교계 "정론지 자격없다"

해당 학교, 법적대응 검토
학생들도 비난글 쏟아내

한겨레신문의 '안티 기독교' 보도가 도를 넘어섰다. 한겨레는 악의적인 과장보도를 잇따라 내보내며 마치 기독교 전체가 문제집단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

한겨레는 9일자 사회면 머릿기사로 '수업 대신에 할렐루야, 학교는 마치 종교감옥'(사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기독교 사립 일반고인 서울 명지고가 지난 7월 18~20일 학교 체육관에서 신앙부흥회를 열어 학생을 참석케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보도했다. 또 학생들은 매일 아침 8시 교실에서 '큐티(QT)'를 갖는데 이 시간에는 교실 밖으로 나가지도, 떠들지도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학급비로 걷은 돈을 학생 동의 없이 헌금으로 내고, 예배수업을 하면서 명목상으로만 대체과목을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수업 대신에 "할렐루야"
학교는 마치 '종교감옥'

학생인권침해 제보 245곳, 방문조사는 10곳뿐

다.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목사는 "한겨레는 유독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이라며 "이번 기사도 일부 학생의 의견을 문제 삼아 기독학교의 흠을 잡기 위한 편파보도"라고 꼬집었다. 또 "기독교 학교의 설립정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신앙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종교사학의 근간을 훼손하는 보도를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예배를 못하게 명지고는 한겨레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명지고 김종화 교목은 "학생들에게 예배수업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대체과목도 개설했다"면서 "수강희망 학생 수가 적어 대체과목을 폐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을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에 기부했는데 이를 헌금으로 냈다고 왜곡 보도했다"고 밝혔다. 부흥회 설교 내용도 '신앙 가운데 성장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였다는 게 명지고의 설명이다. 김 교목은 "학생들은 고교선택제를 통해 미션스쿨인 우리 학교를 선택했고 기독교 설립 정신에 따른 학사일정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서도 냈다"면서 "일부 학생들의 불만을 학교 전체의 문제로 비화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학생들은 페이스북 등에 "종교감옥이라니 장난하나, 3년 다니면서 종교강요한 것 느껴본 적 없다" "무슨 속셈으로 저런 글을 썼는지" "마음이 아프고 정말 화가 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교계에서는 한겨레의 보도를 균형을 잃은 악의적 보도로 규정했다면 누가 종교사학을 설립하고 운영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겨레는 교회공격을 일삼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을 비판하는 성명 광고를 논조와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며 "한겨레가 특정종교의 대변지가 아닌지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청이 소망교회와 밀알재단 등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보도하며, '소망교회 카페·빵집 돈벌고도 세금 안내 덜미' '식당·꽃가게 돈벌이 교회마트는 탈세 무법지대' 등의 악의적인 제목을 달아 교회를 범죄집단처럼 묘사했다.

한겨레는 종자연의 활동과 논리도 적극 보도해왔다. 2006년부터 20건 이상의 기사로 종자연의 왜곡된 종교차별 논리를 소개하며 기독교를 부정적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2008년 8월에는 종자연 박광서 대표의 '공공영역 종교중립 시급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해 불교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종교차별 논리를 그대로 전달했다. 2010년 4월에는 "대광고 강의석 소송을 도맡다시피 해 '종교강요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며 종자연을 치켜세웠다.

유영대·백상현 기자
ydyoo@kmib.co.kr

국민일보 보도(2012 년)

17개 교단장·300여 기독학교장·교계단체 대표

"정부, 미션스쿨 종교교육권 보장하라"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
기독학교 탄압저지 대회

교계 지도자와 기독교학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에 기독교학교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종교교육권을 보장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에게 기독교학교를 사찰케 하고 교육당국이 미션스쿨의 종교교육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교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분연히 나선 것이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에 참여한 17개 교단장과 전국 300여개 기독교학교장, 교계단체 대표들은 3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종자연, 기독사학 사찰 중지
인권위의 불공정계약 철회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사학의 학생선발권 부활하라"
참석자들 사태 해결때까지
서명운동·법적투쟁 벌이기로

에서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종자연 문제 등 일련의 사건을 한국기독교사학 역사상 가장 심각한 탄압사태로 규정하고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정책제안, 서명운동, 법적투쟁 등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종교편향대책위 명의의 성명을 통해 종자연에 대해 기독교학교 불법사찰을 중단할 것을, 인권위에 대해선 종자연과의 불공정 계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에까지 종교과목의 대체과목 개설을 강요한 것을 월권(越權)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도 교계의 시정 요청을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미션스쿨에서 일부 학생이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문제는 학교 평준화 정책의 강행 때문이므로 교육당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명수 서울신학대학원 교수는 "학생들이 강제로 종교교육을 받지 않고 종립학교도 학교의 성격을 이해하는 학생들만 가르칠 수 있도록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준화 정책에 따라 박탈당한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종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되돌려달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용태 변호사도 "교육기본법에 '사립학교(종립학교)는 특정 종교를 교육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선지원 후추첨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종교교육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이철신 대광학원 이사장(서울영락교회 목사)은 "우리 방식으로 학생들을 나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 테니 정부가 방해하지 말고 그냥 놔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남택 명지고 교장은 최근 한겨레신문에 '수업 대신 할렐루야… 학교는 종교감옥'이란 악의적인 제목으로 명지고가 다뤄진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밝혔다. 한겨레는 제보한 학생이 "신앙부흥회에 참여하려니 너무 괴로웠다"고 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황 교장은 "제보 학생은 오히려 부흥회가 좋았고 감동적이었다고 고백했다"고 반박했다. 황 교장은 "일부 언론은 사립학교가 설립이념 구현에 노력하는 것을 불법단체 활동 인양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인권 존중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근본주의연구소 문병길 소장은 한겨레의 명지고 관련 기사가 나온 직후 종자연이 명지고에 시정요구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황당하고 무례한 행위"라며 "종자연 같은 안티기독교 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기독교학교들이 종자연의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니까 최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 모든 종립학교에게 자체적으로 종교교육 실태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종자연의 활동은 시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종자연의 최종 목표는 모든 분야에서 법으로써 기독교의 선교를 막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편승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우리는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3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미션스쿨 교장·교목들이 발제자들의 토론을 듣고 있다. 윤여홍 선임기자

■ 세계인권선언 속의 종교자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은 당연한 권리"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뿐만 아니라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도 명시돼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자유를 포함하며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교리·행사·예배·의식을 통해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개인이든 단체든 모든 사람이 예배를 비롯한 각종 의식·행사로 자신의 종교를 드러낼 수 있다는 뜻이다. 공립학교가 아닌 기독교학교에 이를 적용하면 종교교육은 당연한 권리 행사다. 천지우 기자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사실확인서)

사 실 확 인 서

소　　속 : 명지고등학교
직위 및 직명 : 교사
성　　명 :　　(생년월일: 19 . . .)
연 락 처 : 010-　-

문) 2017~2019학년도 기간제교원 신규채용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1차 서류전형(선발인원의 3배), 2차 전형(시강 및 면접)을 통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면서 자기소개서 및 임용지원서에 신앙관련 사항을 기재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문) 심사기준 등 객관적인 정량평가 지표 없이 응시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응시자의 '성장과정 및 신앙생활(교회봉사 등)', '교육관' 등을 정성평가하여 1차 합격자를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점에 대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문) 명지고등학교에서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및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인을 교원의 자격으로 명시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문) 명지고등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자기소개서 및 면접시 신앙 등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기독교인 외에 교원 채용시 차별 또는 불이익을 시정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법안이 여당의 강행으로 통과되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해 11월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통과시킨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행령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법인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이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

기독중등사학 법률문제(건학이념, 정관, 교원 임용)

기독중등사학의 법률 문제

변윤석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Ⅰ. 건학이념

1. 건학이념

* 그리스도의사랑 실천, 밝고 건전한 인재 육성

2. 건학이념의 구현 구조

* 설립자건학이념 → 학교법인 정관 → 이사진 구성 →교장,교감 등교원 임명 →교육 활동(교육과정)

3. 기독사학의 법률문제는 사립학교법 등 '사학' 관련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함

Ⅱ. 학교법인 정관

1. 학내최고규범

* 실정법에서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 제외하고 학내 최고의 규범(법률)의 성격을 가짐

2. 관련문제

1) 건학이념 및 설립자 규정

2) 이사 자격제한 규정

3) 교원인사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정 등

3. 건학이념 및 설립자(교단)을 명확히 규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

* 이사•감사선임, 교장,교감 등교원 임면에 있어서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격 제한(기독교인)을 두는 경우의 근거가 됨

4. 이사•감사 선임 시 자격 제한 가능(기독교인,교단추천등)

5. 교장, 교감임명, 평교사채용시 자격 제한 가능 여부

* 교장임명은 이사회 전권 사항

* 교감과 평교사는 교원인사위 효율적 운영 통해 기독교인 등 자격 제한을 하는 방안 고려

Ⅲ. 교원 임명 정관

1. 학교장

* 학교장임명은 이사회의 전권 사항이므로, 기독교인 또는 교단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것에는문제가 없음

2. 교감

* 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교장이 제청 후 이사회에서 임명

* 문제는상당수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단수로 교감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실질적으로학교장과 법인 이사회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상황임 (교육청 지침 등의 영향)

* 해법? → 법인정관 및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교감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고,그 중에서학교장이 1명을 임명 제청하도록 변경

3. 평교사

* 신규채용공고시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 → 평등권침해등의 소지가 있음. 그러나,강행하였다고하더라도 해당 채용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음

* 현실적대안으로, 신규채용공고 시에 학교의 건학이념을 기재하고, 그신규교원의 자격으로 "학교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와같이 기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격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학교장이하 주요 보직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점에 관한 폭넓은 공감대 확보가 필요

기독사학비상대책위 구성 제안서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서

기독사학 존립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독설립정신구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펜젤러 배재학당과 스크랜톤부인의 이화학당에 의해서 시작된 감리교계통학교의 역사가 136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는 기독설립정신구현의 목적에 따라 채플(예배)과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평준화를 비롯한 국가주도의 교육정책과 일부 사학들의 비리 및 비위 사실 빌미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사립학교의 공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불법적(교육기본법 제25조 (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기독설립정신에 따른 기독교교육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법과 제도의 위기(평준화 정책(사학의 준공립화), 학생인권조례(채플&성경), 차별금지법(동성애), 사립학교법(교원임용))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u>기독교학교의 채플(예배) 교육과정 편성 문제로 일과 중 실시가 어렵습니다. 기독교학교에서 신앙 및 성경 과목은 필수로 가르칠 수 없고, 선택으로 일부에게만 종교학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실시가 되면 선택에 따라 채플과 성경을 통한 기독교교육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임용이 어려워져 반기독교 성향의 교사가 기독교 학교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u>

사립학교법 개정은 개방이사 정원 1/2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반수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들로 인하여 이사회 구성의 자율성과 기독교학교의 정관과 인사규정이 상실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학교의 정신을 이끌어야할 학교장에 대한 임명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배수로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감독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종합감사로 설립목적에 따른 기독교교육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상실되고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학생선발권, 등록금책정권이 사라지고, 사립학교법으로 사학법인 구성권이 상실되며, 마지막 교원임용권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위탁하게 함으로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임에도 부정하고, 설립정신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 인사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기독교학교에서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이들이 교사로 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한 숭실대와 한동대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기독교신앙을 설립이념으로 한 학교에서 다자성애(난교), 동성애 합법화 등 부도덕한 성적자기결정권 강연회에 면죄부를 주고, 성소수자 커플 결혼식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라고 합니다. 윤리와 도덕성 파괴,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과 종교자유의 침해 속에 기독설립정신 구현은 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017~2019학년도 명지고 기간제교원 초빙 공고에서는 2차 시강 및 면접 당일 제출 서류에 '세례교인 증명서 1부'(해당자)를 명시하였습니다. 교육청은 '면접시 세계교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구직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사상, 종교 등 민감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독교학교에 비종교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가 교사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정관과 설립정신에 따른 교육방침과는 무관한 교육으로 사학의 기본적인 설립목적을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정종교설립정신을 가진 사립학교는 기독교 77.9%(개신교 65.2%, 가톨릭 12.7%, 불교 5.4%, 기타 16.7%)로 절대 우위를 가진 기독교학교(468개)가 정체성 위기 속에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회의 무관심 속에 기독사학이 타종교로 인수되거나 감리교계통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교장과 교목 및 기독교사 채용, 예배와 성경과목 실시, 교목실 운영 등 기독교학교의 기본적인 권리가 상실되어, 감리교의 위대한 유산과 전통인 감리교계통학교(중고등학교 54개, 대학교 11개)는 명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에 이사실을 널리 알리고, 기독교학교 탄압에 맞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감리교계통학교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셔서, 기독교학교의 생존과 관련하여 감리교단과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긴급 선언 및 결의문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 곳에 왔습니다. 그 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인간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민족과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 어두움과 미지의 땅이었던 조선 땅에 복음이 전래된지 어언 137년이 되었다. 기독교학교는 역사 속에 조선에서부터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근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선교사들은 교육기관을 세워 교육을 시작하였다. 병원을 세워 병든이들을 치료하며, 의료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쳤다.

진취적 민족주의와 영혼을 꿰뚫는 기독교 신앙이 한국 민족의 억눌린 민족혼을 일깨워 근대적 민족 자주 운동과 사상을 형성하였다. 기독교사학은 신학문과 더불어 나라의 발전과 일제강점기 투쟁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과 더불어 새로운 나라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의 밑바탕을 이루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수많은 인재 배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룬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펜젤러 최초의 근대교육기관 배재학당, 언더우드 고아원에서 시작한 경신학교, 스크랜톤대부인 한국여성 신교육의 발상지 이화학당 등에서 시작한 기독교학교는 민족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늘 함께 하였다. 3.1 독립운동 등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전국 823개의 기독교학교는 3.1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기독사학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을 대신하여 다음 세대를 세웠고, 양반과 천민으로 나뉜 신분사회를 철폐시켰으며, 모든 인간을 나라와 민족의 자랑스러운 인재들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기독교학교가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사학들이 지금은 수많은 제재와 더불어 건학이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건학 초기부터 행해졌던 예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시간이 학생의 종교적 인권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필수적으로 들을 수 없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 형상 회복과 더불어 사학의 건전한 교육신념을 통한 인재 양성의 시대적 사명이 짓밟히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개정 사학법으로 기독교학교에서 교사 임용의 강제 위탁 위기를 맞고 있다. 정식 임용된 교원은 기독교학교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는 경우 학교가 징계를 하더라도 교육청 징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무효화 할 수 있다. 세금으로 재정 지원하는 교육청은 이를 무기 삼아 사립학교를 감시하고, 감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립학교의 특성을 지적하며 기관경고처분을 내리는 등 공립화 공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평준화를 비롯한 국가주도의 교육정책과 사립학교의 공영화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상실되었다.

[교육기본법 제25조 (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제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기독교의 건학이념의 훼손으로 인하여 정체성 흔들릴 뿐 아니라 기독교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치 아래 무분별한 법과 제도화로 이어지는 평준화 정책(사학의 준공립화, 학생선발권 상실), 학생인권조례(채플(예배)&기독교교육 규제), 차별금지법(동성애 정당화), 사립학교법(사학법인 구성권 상실, 교원임용 강제위탁)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상실되었다.

사학 설립 근본 취지를 살리고 사학의 영향력을 바르게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와 학교는 개악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기독교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조악한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및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독교학교 정관과 설립정신에 의거 행하는 종교 행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라(제16조 양심 종교의 자유)는 조례에 대하여 반대한다!!

하나. 강제 배정으로 인한 평준화 제도의 문제를 보완(회피제도)하고, 자유민주주사회에서 당연히 실시되어야 할 중등학교의 학생 선발권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라!!

하나. 커리큘럼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사학의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채플(예배)과 종교 수업, 문화 강좌 및 나눔 봉사 활동 등 특성 있는 건전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지원 육성하라!!

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의 기본권을 부정하여, 교원임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위탁하게 함으로, 비기독교인이나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원으로 임명되어서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구현을 위한 활동을 저해하는 것에 반대한다!!

하나. 기독교학교의 이사회 구성, 교장과 교목 및 교사 채용, 교목실 운영 등 사립학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고 보장하라!!

영상자료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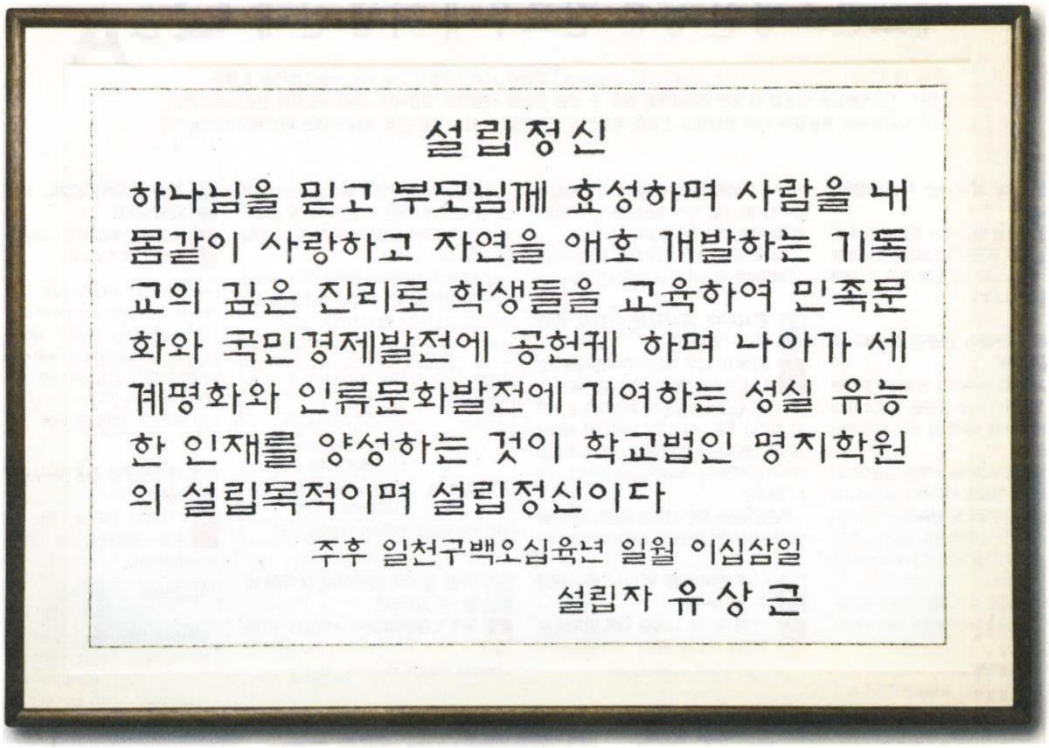
온라인서명 QR코드

2022년 4월 1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 철

사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정석

명지학원 설립정신 선포 50주년 기념 홍보물



세계최고의 복음주의 교육공동체

The Hub of Evangelical Education

2006년 1월 23일은 설립자이신 방목 유상근 박사께서
"신앙인, 전문인, 사회인, 세계인" 지향의 설립정신을 선포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명지인과 명지가족은 뜻 깊은 이 시점을 맞아
바람직한 명지 100년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여 미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격동 속에서 시대적 소임을 다해온 명지의 역사는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50년도 번영과 도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복음주의 교육공동체'를 향한 명지인의 힘찬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MYONGJI
설립정신선포50주년

■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산하기관

교회 명지대학교 교회, 명지대학교 배울의 교회, 관동대학교 교회, 관동대학교 공과대학캠퍼스 교회
수익사업체 (주)고려여행사, 명지건설주식회사, 명지빌딩, 명지일영풀장 새마을금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새마을금고
지배기관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관동대학교 명지병원, 학교법인 명지교육학원

학교법인 명지학원
MYONGJI EDUCATIONAL FOUNDATION
100-737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35 / 02)2130-2000

2006 년 교사초빙 공고

교사초빙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바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명지고등학교**에서
유능하신 선생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초빙과목 및 인원(전임/기간제 교사)
- 과목 : 종교(교목), 특수교사, 국어, 영어, 수학, 윤리, 공통사회(사회, 지리), 국사, 일어, 체육
- 모집인원 : 각 과 0명

2. 자격요건
① 해당교과 중등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②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③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자
(단, 영어, 수학, 공통사회 과에 한함)

3.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교사자격증 사본 1부
③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④ 대학 성적 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⑤ 세례교인 증명서 1부
⑥ 자기소개서 1부
⑦ 교과교육 및 신앙교육 계획서 각 1부
⑧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접수마감
2006년 1월 5일(목) 18:00까지

5.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합격자는 개별통보)
- 2차 : 교과교육 계획 발표 및 시강
- 3차 : 신앙인격 교육계획 발표 및 면접

명지 고등학교
MYONGJI HIGH SCHOOL

120-848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361-30
명지고등학교 행정실 (02)303-1540/(02)305-5953
http://www.myongjigo.net

구별된 삶 서약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계를 향하여 도약하는 자랑스러운
명지인 으로서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하여
구별된 삶을 서약을 맺습니다.
나는 서약한 내용을
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믿고 사는 정직한 사회,
부정이 없는 밝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선양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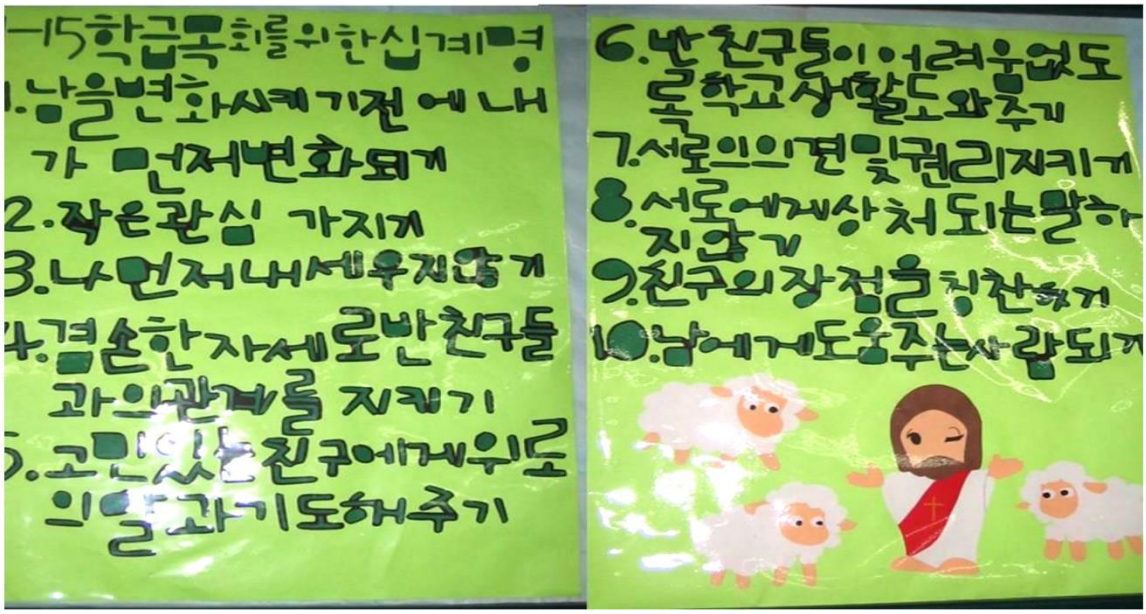
구별된 삶 서약서

1.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음으로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1. 악한 계교를 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시험 볼 때 절대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모든 일에도 바르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06

서약자 :
증 인 : 친 구
담 임
교 장

학급목회 십계명



주보 말씀 쓰기

후 기

입학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3학년입니다.

강당으로 내려가는 것도 힘들었고 소란스러운 교실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었지만

예배를 드릴 때면 느끼는 활기찬 기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들 어떻게 매주 예배 말씀을 듣고 그렇게 꼬박꼬박 적어 놓냐고

신기하다고 또는 성실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학기 동안 좋은 말씀 들려주신 목사님,

예배를 잘 이끌어주시는 전도사님과 교목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요예배를 통해 경청하는 자세를 배웠고 이해하는 마음을 길렀습니다.

참 얻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월요예배의 좋은 점을 알고 졸업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느낀점

고3이 되고나서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았다. 주보를 쓰는 것을 시작한지가 어제인 것 같은데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한다. 빠르게 지나간 4개월 동안 주보를 쓰면서 평소에는 별로 잘 알지 못했던 역사나 시사에 관해 알게 된 것 같다. 올해가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등 알게 된 것이 많다. 설교 내용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하나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 전체를 이루는 소수, 하찮은 소수라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입시준비를 하는 지금 이 한마디가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다. 비록 힘든시기이지만 이 시기가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갈고 닦는 시기이고 그 가치를 알게 해주는 시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 걱정들이 있지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큐티 때 해주시는 말들도 다 응원하고 격려해주시는 말들이라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제는 신앙부흥회 때 해주신 말씀처럼 근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근심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한다. 끝으로 주보를 다 쓰고 한학기를 마무리 하면서 올해는 1,2학년 그 어느때보다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았던 해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남은 입시까지 좌절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3년 동안 좋은 설교 말씀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메모

제목 : 능력의 근원

세 가지 색깔의 크레파스

이 중에서 살색은?

과연 이 색일까?

아니야 흰색·검은색도 살색일수 있어

→ 내 모습만 생각하지는 않니?

넓은 안델라

흑인에 대한 인권존중을 위해서

- 남아공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흑인 대통령
- 노벨 평화상
-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실을 알려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생명 ⟷ 죽음

ex) 문명의 발전 → 도구의 발전

같은 도구) 의사에게 도구가 있으면 → 생명을 살림

살인마에게 도구가 있으면 → 죽음을 줌

흉기가 됨 → 잘못된 것으로 오염된다.

<세계 인권서명>

시청역 낙서 (사람과 흡사한 모습)

→ 자세히 보면 조형물·작품

화면 속에 인권을 보호합시다라고 쓰여져있다.

b. 남을 짓밟고 있는 모습

나와 상대방을 '주의'

말보다는 '주위'

미국·우리나라 자선냄비

→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음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한 마음

용서 만 봐도

'서' 같을여 如 → 그들의 마음과 마음심 心 같아야 한다.

<성탄에 대한 절기> — 하늘에 대한 보

— 이 땅에 대한 영광

b. 예수님 사람과 같이 나타나심 · 인간의 죄에 의해 나타나심

예수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용서, 사람을 향해갈기를

(=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

신앙부흥회 쓰기 소감문

대 상

신앙부흥회 쓰기 대회

선물, 그리고 응답

31222 신정원

선물,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단어이다. 이종용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는 학생을 찾으셨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책을 선물해주셨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달리 그 동안 물질적인 선물을 추구했던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을 할 때 내 생일에 돌아올 몫을 생각하지 않고 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진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 목사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선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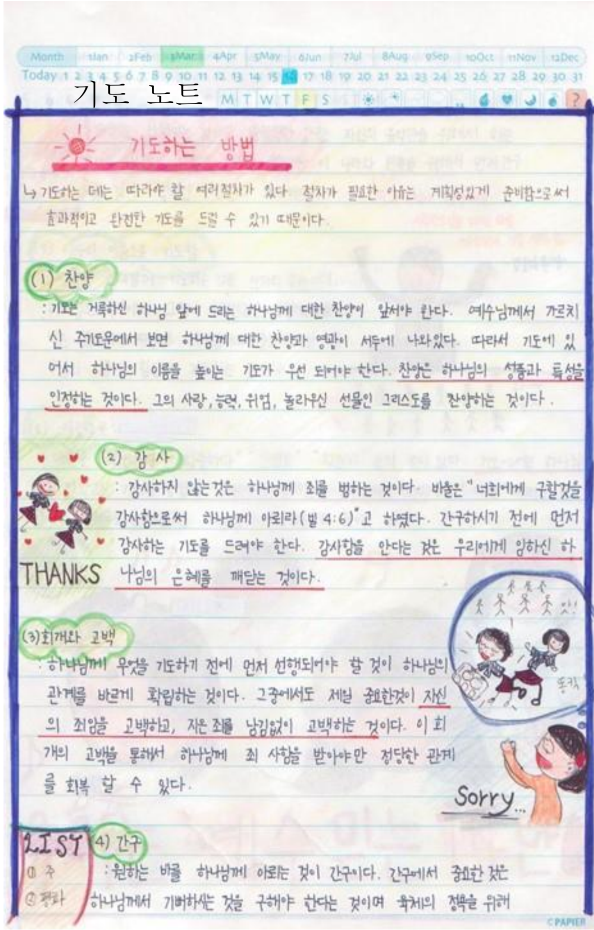
이 말씀을 듣고 나의 1, 2학년 시절이 생각이 났다. 나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1년 남짓의 시간 동안 다문화 가정 어린이의 학습 도우미로 일한 적이 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는 선물을 깨닫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내 환경을 불만하는 불평쟁이었다. 하지만 따돌림, 생계유지로 골머리를 앓는 이 가정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셨다는 걸 깨달았다. 또한 설교를 들으며 이 가정에게 하나님이 선물해주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다. 봉사가 끝날 때 아이들이 써서 준 편지를 떠올려보니 '그들에게 내가 선물이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문화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는 하나님 은혜를 더더욱 깨닫게 되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각 개인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부정하곤 한다. 나는 특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쪽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다. 반대로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이런 나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었고, 반성할 수 있었다.

오늘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은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이 물을 나만 마시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동안 하나님의 참 뜻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이 부흥회 이후로는 달라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제발 선물 좀 받아라!" 이 표어는 이번 부흥회의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말이다. 예전의 나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부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 선물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기쁘다는 표정을 지으시도록 행동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베푸는 것을 실천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에게는 현재 3년째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8세 소녀가 있다. 그 친구가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편지를 며칠 전 보내왔다. 나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녀를 응원하는 영상을 찍어 전달했다. 한편으로는 한 때 신앙이 흔들리고 내게 주어진 선물은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한국인 선교사가 오실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며 기다린다는 그 아이에게 배울 점이 참 많았다. 나 혼자 하나님의 축복을 독차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마음이 닿는 순간까지 전도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맛 좋은 무화과를 그 나라의 최고이신 여왕에게 준 오늘의 영상 속 소년처럼 나도 좋은 일로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 번 부흥회는 내가 지난 날 경험했던 것과 말씀이 조화를 이뤄 정말 뜻 깊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웃들에게 퍼뜨리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에 응답하라!



기도하는 방법

↳ 기도하는 데는 따라야 할 여러절차가 있다.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계획성있게 준비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완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1) 찬양

: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앞서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이 서두에 나와있다. 따라서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의 사랑, 능력, 위엄, 놀라우신 선물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다.

(2) 감사

: 감사하지 않는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바울은 "너희에게 구할것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라(빌 4:6)"고 하였다. 간구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감사함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THANKS

(3) 회개와 고백

: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확립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것이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지은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는 것이다. 이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야만 정당한 관계를 회복 할 수 있다.

Sorry...

LIST
① 주
② 평화

4) 간구

: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이다. 간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육체의 정욕을 위해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간구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이웃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간구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이다.

↳ 우리가 기도할때는 세속적인것을 위해도 하심.
ex) 외고사, 건강, 성적, 수능...
- 김종하 목사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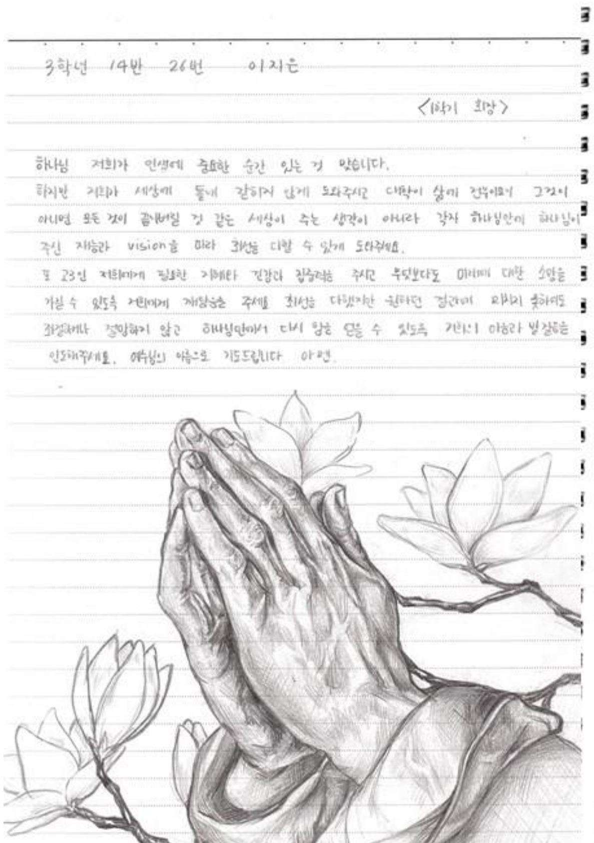
(5)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

: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우리인간은 보잘것 없이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다.

(6) 아멘으로 마침

: 아멘은 "확인하다" "확증하다" "진실로" "확실히" 등의 뜻이 있다.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의 응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아멘"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아멘"은 기도문의 총 결론으로 쓰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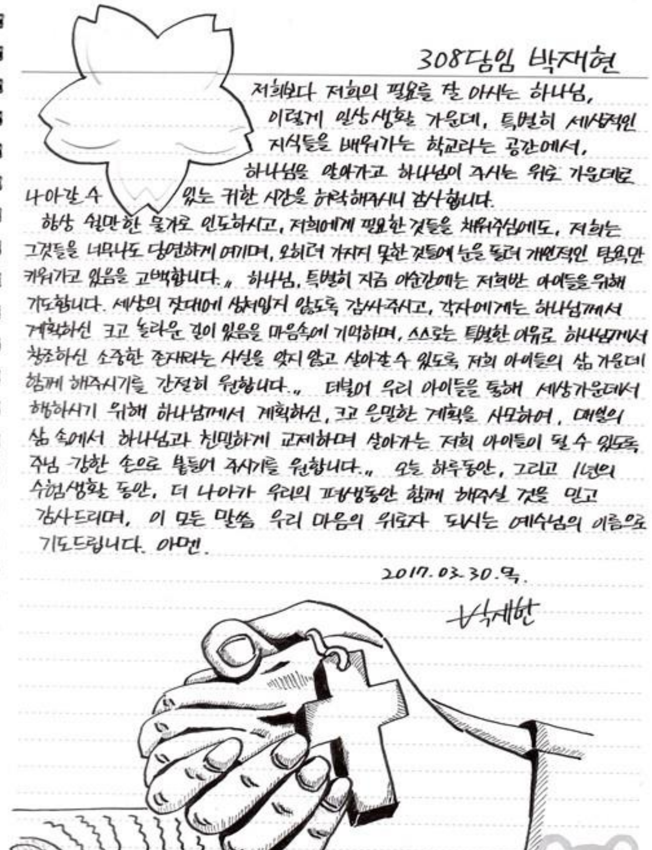
우리는 '예수' 믿는 14반



3학년 14반 26번 이지은

<1학기 희망>

하나님 저희가 인생에 중요한 순간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상에 틀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학이 삶에 전부이고 그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세상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vision을 따라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고3인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집중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던 결과에 미치지 못하여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안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아름다운 발걸음을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8담임 박재현

저희보다 저희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특별히 세상적인 지식들을 배워가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에도, 저희는 그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들에 눈을 돌려 개인적인 탐욕만 키워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순간에는 저희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잣대에 상처입지 않도록 감싸주시고,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길이 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스스로는 특별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세상가운데서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은밀한 계획을 사모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동안, 그리고 1년의 수험생활 동안, 더 나아가 우리의 평생동안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마음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7.03.30.목.

박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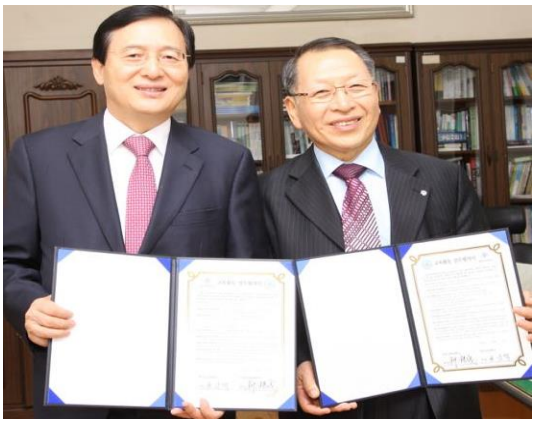
명지고등학교 세례식

명지고등학교 세례기념(2011. 1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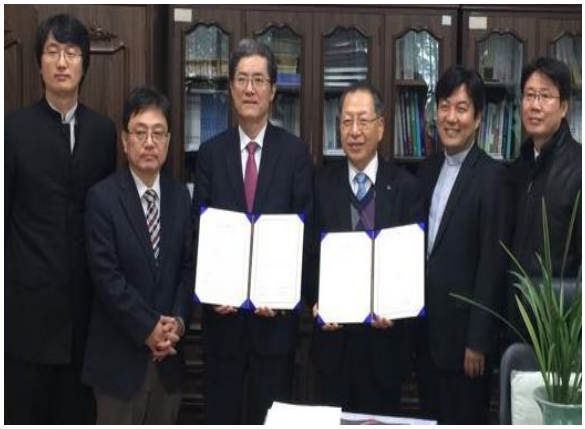
월드비전 협약식(2014.5.12)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한사랑마을 협약식(2015.3.23)

서울신학대학교 협약식(2015.10.26)



감리교신학대학교 협약식(2015.11.2)



네팔 긴급구호(지진)

제 2015-288 호

World Vision

감사 드립니다

이 장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명지고등학교

대지진으로 인한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의
한 영혼 한영혼을 품으시는 기도와 헌금으로
월드비전과 동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가장 빠르게, 가장 필요한
곳에, 마지막까지 월드비전은 네팔이 다시 일어나는 그 날을
희망하며 명지고등학교와 동역하겠습니다.

2015년 06월 01일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회 장 양 호 승

우크라이나 긴급구호(전쟁)

World Vision

감 사 장

후 원 자 : 명지고등학교
후원종류 : 긴급구호사업
후원금액 : 1,000,000원
후원일자 : 2022-05-19

월드비전 우크라이나 긴급구호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동들과 취약계층에 생활필수품(응급처치 키트, 비누, 휴지 기저귀 등)을 제공하고 심리정서 지원 및 난민수용소 내 식수시설, 공공시설 개보수, 교육 환경 지원 등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명지고등학교의 기도와 나눔으로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영혼들에게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드비전에서는 자구촌 어린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겠습니다. 더불어 맡겨주신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

World Vision 월드비전은 전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 가정,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NGO입니다.

사랑의 도시락 쿠키 만들기

사랑의 도시락 쿠키 포장

부활절 달걀 전달

사랑의 도시락(부활절 달걀)

사랑의 도시락(추수감사절 과일 및 성미(쌀))

사랑의 도시락 성미 전달

이지선 교수(이화여대)와 학급 나눔클래스 매니저들과 함께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 후원인증 동판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

나눔클래스 캠페인

나눔클래스 캠페인 안내 및 결과 보고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신문보도(기독교타임즈)

제844호 2015년 4월 11일 (토요일) | 기독교타임즈

친구들과 정성 모아 아프리카 아동 후원

명지고, 전학급 · 동아리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운동

명지고등학교(교장 황남택 장로) 전교생이 아프리카 등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를 돕고 있어 화제다.

명지고등학교는 월드비전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지구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나라의 한 어린이를 한 학급의 전체 학생이 후원하고, 편지 교류, 선물 보내기 등의 나눔 활동을 통해서 후원 아동이 배고픔과 아픔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2013년 8학급이 8명의 어린이들을 도운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36개 학급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47개 전학급과 10여개의 동아리반(선교부장반, MCS(명지기독학생회), Y-teen, 또래상담반, TOP, ART, MRA, 두드림, RCY, 초아 등)으로 확대되어 62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월드비전의 캠페인에 많은 중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지만 전 학년 전 학급이 참여하는 곳은 명지고가 유일하다.

명지고의 후원방식은 한 명이 매월 천원을 내어 학급에서 3만원을 만들어 한 어린이를 후원하는 방식. 1년 단위로 학급이 바뀌고 졸업한 뒤에는 후원이 이어지지 않는 점 등을 생각해 학년이 바뀌면 바뀐 학년의 학급에서 기존에 후원하고 있던 어린이를 후원하게 된다.

황남택 교장은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은 학교와 학생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뜻 깊은 학교참여 나눔실천 프로그램"이라면서 "우리 명지고등학교 학생들이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졸업 후에도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명지고는 방목 다목적 교육관에서 부활주일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월드비전 홍보대사 가수 박정아 씨가 참석해 간증했으며, 월드비전 서울북지부 김동휘 지부장과 함께 한학급한생명살리기 캠페인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또한 사랑의 빵 저금통을 배부했다. 명지고는 그동안 사랑의 빵 저금을 통해 '희망의 학교 세우기'캠페인에 참여,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탄자니아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사랑의 장학금을 만들어왔다.

또한 기아체험 식수사업 참여를 통해 명지고등학교 이름의 우물을 만들어 수인성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등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월드비전은 "한학급한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작년 780개 학교 5735개 학급이 세계 47개국의 어린아이들을 살렸다"고 전했다.

김혜은 차장

제852호 2015년 6월 13일(토요일) | 기독교타임즈

아껴서 모으고, 굶어서 모으고
명지고, 지구촌 곳곳에 사랑 전달

명지고등학교(교장 황남택)가 지구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길을 이어갔다.

명지고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24시간 기아체험에 참여해 빈곤, 질병, 전쟁 등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삶을 직접 경험했다. 명지고 학생 223명은 자원봉사자로 함께 참여한 대학생 70여명과 함께 24시간 동안 굶은 뒤, 총 300만원의 기금을 월드비전을 통해 아프리카 차드 식수마련을 위해 전달했다.

명지고는 또 지난 1일 성령강림절 예배에서 네팔을 위한 구호기금 70만원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네팔 지진 이후 총학생회 주관으로 직접 모금을 실시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또 그 동안 학생들이 모아온 사랑의빵 저금통을 헌금했다. 학생들이 모은 총 322만9380만원의 기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기다밀린다 초등학교 신축 및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김종화 교목은 "명지고 학생들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며 얻는 참 기쁨의 의미를 알고 있다"며 "나눔의 기쁨을 안 우리 학생들이 사회 곳곳의 지도자가 되어 나눔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명지고는 이밖에도 한 학급이 제3세계 국가 한 아이를 후원하는 '한 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동아리를 포함 62개 학급이 62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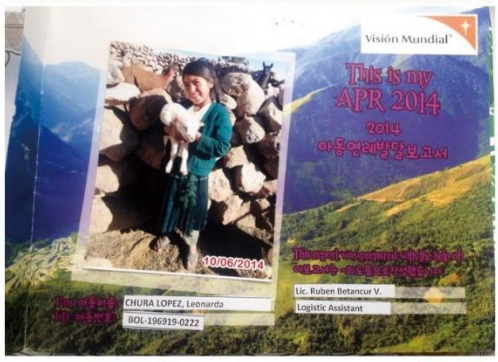
김혜은 차장 · 가한나 기자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학생 소감문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11609 김혜주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라는 캠페인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프리카의 한 아이를 후원하시던 것을 본 적이 있었던 나는 이 캠페인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왔다. 엄마처럼 언젠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꼭 하고 싶었던 아프리카의 힘든 친구들을 후원하는 일을 우리 반 친구들과 다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가 후원하게 된 아이의 이름은 클라우드였고, 잠비아라는 나라의 아이였다.



후원하기로 한 이후로 우리 반 친구들은 한 달에 천 원씩 모아 3만원을 매달 보내주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3만원이라는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었다. 사실 나조차도 일주일에 3만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3만원은 한 달에 쓰기엔 적은 돈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3만원이라는 돈은 클라우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 물, 옷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하였다. 우리가 직접 전해 줄 수는 없지만 매달마다 돈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다. 천원이라는 작은 돈이라도 35명이 모여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우리 반 친구들도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었다.

후원을 계속 하던 중, 클라우드에게 온 편지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편지는 클라우드가 직접 그린 망고 그림과 고맙다고 쓴 내용이었다. 아직 어려서 글을 쓸 수 없었던 클라우드가 현지에 있는 선생님을 통해 써준 편지는 정말 감동적이었고 후원을 해주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반 친구들에게도 인상 깊었던 그 편지는 그 전까지 돈을 걷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던 것을 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돈을 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클라우드에게 편지를 받은 반 친구들은 우리도 클라우드에게 무언가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월드비전에서 개인적으로 후원하던 사람들이 택배로 선물을 보내주었다는 말을 듣고 클라우드에게 선물을 보내줄 계획을 세웠다. 처음엔 어떻게 택배를 보낼지, 무엇을 줘야할지 막막했지만 다행히도 교목실 목사님께서 상자와 택배비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아보아주셔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친구들 중에는 용돈으로 클라우드에게 줄 학용품, 장난감 등을 사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집에서 아직 쓰지 않은 공책을 준비해온 친구들도 있었다. 또한 다 같이 편지를 쓰며 클라우드에 대한 반 친구들의 애정을 전했다.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서 클라우드에게 택배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처음 후원을 시작할 때에는 걱정이 더 많았지만 막상 1년 동안 후원을 하다 보니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후원을 받은 친구들이 고마움을 느낄 때 보람찬 마음이 들어 내가 더 기분이 좋았다. 또한 이런 기회가 생기면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내 바람처럼 열심히 클라우드에게 후원 해준 것 같아 나까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후원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클라우드는 우리 반, 1학년 16반이 마음으로 키운 아들 같은 존재였다. 다들 클라우드에게 애정이 있었고,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꾸준히 후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라는 캠페인은 반 친구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클라우드가 행복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항상 밝게 자라길 기도할 것이다. 또 클라우드가 후원해주던 우리를 잊지 않아주었으면 좋겠다. 클라우드를 만나면 친누나처럼 잘 대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잠비아에 방문해 클라우드를 만나고 싶다.

사랑의 빵 전달식

사랑의 빵 전달 기념

월드비전 감사 편지

World Vision

명지고등학교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생명은 사랑을 먹어야만 생명다워집니다. 월드비전이 하는 일은 그 소중한 생명에 사랑을 먹여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명지고등학교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비극 6.25전쟁 당시 발생한 전쟁고아와 미망인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월드비전이 이제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긴급구호사업, 개발사업, 옹호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이웃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특별히 **탄자니아 교육 및 식수 사업**에 사용됩니다.

이처럼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은 후원자님들이 이들을 향해 보내 주시는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월드비전이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더욱 민감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월드비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월드비전이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6일

월드비전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장 영 진** 올림

사랑의 빵 후원인증서 및 감사장

World Vision

후원인증서

명지고등학교
금 1,771,140원

명지고등학교는 사랑의 빵 캠페인에 참여하여
케냐 이시올로 지역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20일

월드비전 회장 조명환

World Vision

감 사 장

후 원 자 : 명지고등학교
후원종류 : 해외사업
후원금액 : 1,771,140원
후원일자 : 2022-06-13

월드비전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은 케냐 이시올로 스쿨업 사업을 지원하며 지역 아동과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명지고등학교의 기도와 나눔으로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영혼들에게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드비전에서는 지구촌 어린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겠습니다. 더불어 말겨주신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

World Vision 월드비전은 전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 · 가정 ·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NGO입니다.

기아체험(명지고 우물 기증)

방글라데시 비소 필터

캄보디아 푸억 지역 식수

베트남 엔뚜이 락시 유치원

케냐 와지르 식수

차드 마와 식수

모잠비크 앙고니아 식수

베트남 트라미 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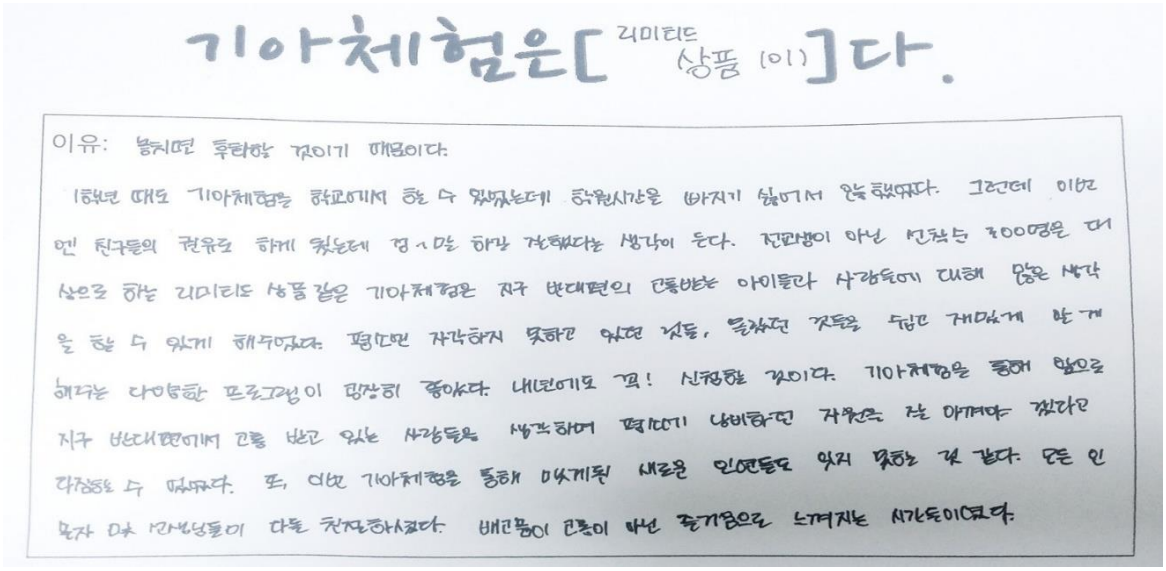
기아체험 소감문

기아체험을 다녀온 후

31430 조현지

에어컨을 마구 틀어대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을 무렵 '월드비전'과 '국인'이라는 대학생동아리가 함께 진행하는 기아체험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난민들의 마음을 직접 느껴보고자 10시간 내내 밥을 먹지 않으며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집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아침을 배부르게 먹고 나와 대강당에 도착하니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모금해온 돈과 스폰서북을 내기위해 줄을 서있었습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어 모금한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아체험은 12조로 나누어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각조의 이름과 구호를 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조원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고 조를 통솔하신 국인의 대학생선배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학업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봉사의 참된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도 대학생이 된다면 월드비전 스태프로 봉사활동을 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조원들끼리 이름과 구호를 정한 후에는 여러 부스를 통하여 지금 아프리카의 현실을 깨달아보는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물 부족, 기아, 전쟁, 질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관련된 영상이나 게임을 한 후 거기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이어서 아프리카 이웃들의 현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반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에 감사하지 않고 낭비해오던 지난 생활을 반성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현실을 공감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 부족 부스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낸 물 정화 장치가 들어간 빨대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식과 전 세계적인 인류애의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 난민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시간이 짧은 시간으로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서 직접 아프리카 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볼 수 있어 좋았으며 내가 모은 돈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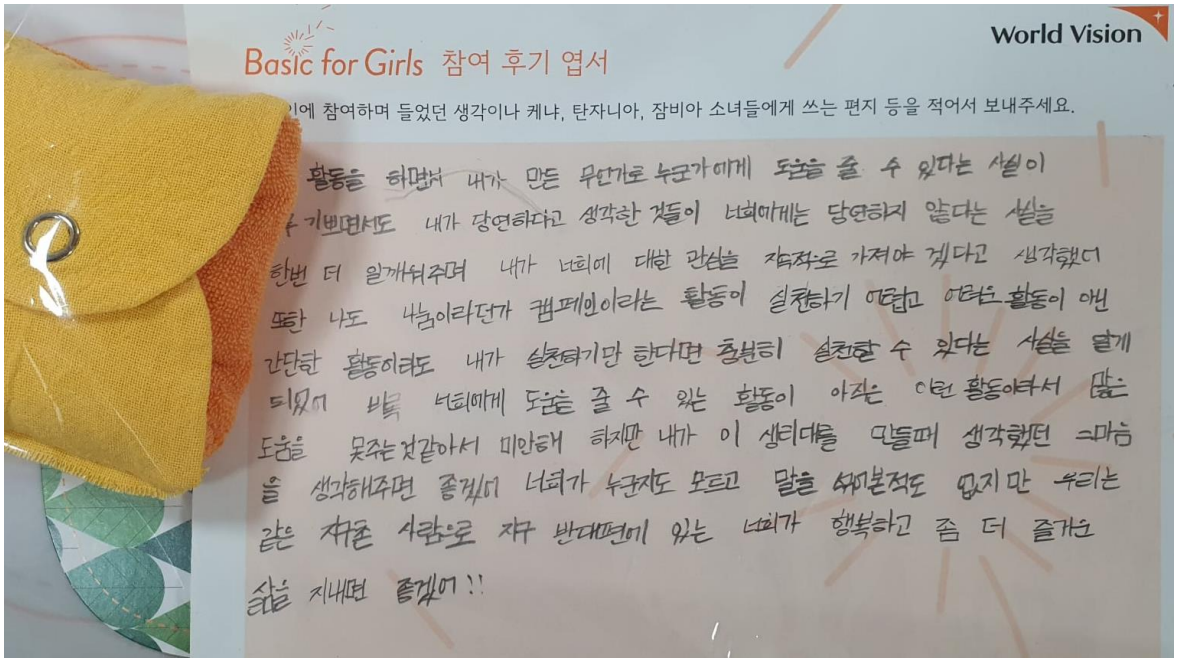
기아체험 소감


기아체험은[리미티드 상품 (이)]다.

이유: 불치병 후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도 기아체험을 학교에서 한 적 있었는데 중요시간을 빠지기 싫어서 안 했었다. 그런데 이번엔 친구들의 권유로 하게 됐는데 정말 잘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진로쌤이 아닌 신청은 300명은 더 살으로 하는 리미티드 상품 같은 기아체험은 지구 반대편의 고통받는 아이들과 사람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평소엔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 들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한 계기가 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말 좋았다. 내년에도 꼭! 신청할 것이다. 기아체험을 통해 앞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평소에 나태하던 자세는 좀 바꿔야 겠다라는 다짐을 한 적 있었다. 또, 이번 기아체험을 통해 만나게 된 새로운 인연들도 잊지 못할 것 같다. 모든 인원자 여러분들이 다들 친절하시셨다. 배고픔이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시간도이었다.

베이직포걸스(참여 후기 엽서 보내기)


World Vision

Basic for Girls 참여 후기 엽서

에 참여하며 들었던 생각이나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소녀들에게 쓰는 편지 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활동을 하면서 내가 만든 무언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수 기쁘면서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너희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한번 더 일깨워주며 내가 너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나도 나눔이라던가 캠페인이라는 활동이 실천하기 어렵고 어려운 활동이 아닌 간단한 활동이라도 내가 실천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비록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아직은 어린 활동이라서 많은 도움을 못주는 것같아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이 생티대를 만들며 생각했던 그마음을 생각해주면 좋겠어 너희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을 섞어본적도 없지만 우리는 같은 지구촌 사람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너희가 행복하고 좀 더 즐거운 삶을 지내면 좋겠어!!

베이직포걸스(세계시민교육)

베이직포걸스(DIY 면생리대 만들기)

베이직포걸스(DIY 노트 만들기)

베이직포걸스 키트 제작

월드비전 후원 10 주년 기념패 전달

월드비전 기관 표창(감사패)

적십자 기관 표창(세계헌혈의 날)

특수반 교육

한사랑 힐링캠프

HANSARANG HEALING CAMP

소통.. 배려.. 나눔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

HANSARANG HEALING CAMP

한사랑 힐링캠프

한사랑 힐링캠프는...

체험형 봉사활동으로 공동성취감을 제공하고 의사소통기회를 부여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태도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노력봉사에서 벗어나 교육과 체험, 봉사
세 가지를 한번에 접목시킨 힐링캠프는 함께 봉사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나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되새겨보고
아울러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 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업개요

1. 사업명 : '한사랑 힐링캠프'
2. 장 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내 힐링캠프 시설
3. 대 상 :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5인 이하 가족, -40인 이하의 단체 및 동호회
4. 신청방법 : 전화신청, 이메일 신청(한사랑마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healing2115@naver.com)
5. 참가혜택 :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 봉사활동 수료증 발급, *봉사 사진 촬영 및 기념액자 제공
   *한사랑 기념품 제공
6. 참가비 : 1인당 36,000원(숙박 :10,000원 , 식사:4,000원*4식 , 특화프로그램비 : 10,000원)
7. 문 의 : 한사랑마을 후원나눔부 김동희 031)764-2115 (내선 724)

시설둘러보기

- 가족생활실
- 개인 침구
- 프로그램실
- 포토존
- 그 외 부대시설 : 샤워실, 화장실, 씽크대

가족생활실

개인 침구

프로그램실

포토존

HANSARANG HEALING CAMP

힐링캠프 프로그램 일정 <예시>

1일차

시 간	일 정	비 고
10:00 -10:30	도착&접수	담당자 인사
10:30 -11:00	자원봉사자 교육	힐링캠프숙소
11:00 -12:00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장애체험 프로그램)	
12:00 -13:00	중식 및 휴식	한사랑 식당
13:00 -15:00	천연비누만들기 및 장애인 작업활동 체험	한사랑장애인보호작업장
15:00 -18:30	생활실 봉사활동(일상생활, 저녁식사 보조)	한사랑마을/한사랑장애영아원
18:30 -19:30	석식 및 휴식	한사랑 식당
19:30 -21:30	특화활동(계절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힐링캠프숙소
21:30 -22:30	자유일정	한사랑공동체

2일차

시 간	일 정	비 고
06:30 -07:00	기상 및 세면, 봉사활동 준비	힐링캠프 숙소
07:00 -08:00	생활실 봉사활동(아침식사 보조)	한사랑마을/한사랑장애영아원
08:00 -09:00	조식 및 휴식	한사랑 식당
09:00 -11:00	특화활동(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베이비 마사지, 미니체육대회, 요리 프로그램 등)	초록공원 및 자원봉사자실
11:00 -12:00	생활실 봉사활동(점심 식사 보조)	한사랑마을/ 한사랑장애영아원
12:00 -13:00	중식 및 휴식	한사랑 식당
13:00 -15:00	봉사활동 평가 및 교육(평가서 작성, 소감 나누기 등), 숙소정리	힐링캠프숙소
15:00-	봉사활동 마무리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활실 자원봉사활동

비누만들기 체험

장애체험 및 협동심 증진 프로그램

한사랑힐링캠프 단체사진

한사랑 바른인성만들기 프로젝트 **'장애인식개선교육'**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하나, 장애바로알기

- 장애인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나누기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
: 장애 -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
: 장애인 -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세계인권선언문을 통해 인권 알기

- 장애인 실태조사
: 선천적 vs 후천적 요인

-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
: 불쌍하다, 무섭다, 이상하다, 내가 장애인보다 우월하다.

- 장애유형 이해하기
: 신체적장애
: 정신적장애

- 올바른 장애 명칭 알기
: 잘못된 장애용어와 올바른 장애 명칭 구분하기

- 기억해두기
: 장애는 차이일 뿐 차별이 아닙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알아보기

- 장애인을 도와주는 보장구

-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 보장구는 장애인의 신체 일부이므로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 장애인 연령에 맞는 호칭을 사용해주세요.
: 발음이 부정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세요.

- 우리 주변의 장애인
: 오토다케 히로타다
: 헬렌켈러

- 마치며
: 장애인은 "네"가 아닌 "내"가 될 수 있습니다.
: 너와 내가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사랑 바른인성만들기 프로젝트 **'장애인식개선교육'**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둘, 장애체험

- **언어장애**
: 모든 프로그램 참여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

- **시각장애**
: 눈 가리고 힐링캠프 숙소 1바퀴 걸어 다니기
: 시각장애인 지팡이로 이동하기 (2명씩 짝을 이루고 한명은 안대 착용 후 지팡이로 걷고 한명은 체험자를 돕는다.)
힐링캠프 숙소 프로그램실 ~ 숙소 복도 1바퀴 -> 돌아올때는 역할 바꿔보기

- **지체장애**
: 한손으로 종이접기
: 다른 사람의 도움 받아 마이쮸 1개, 초코파이 1개 먹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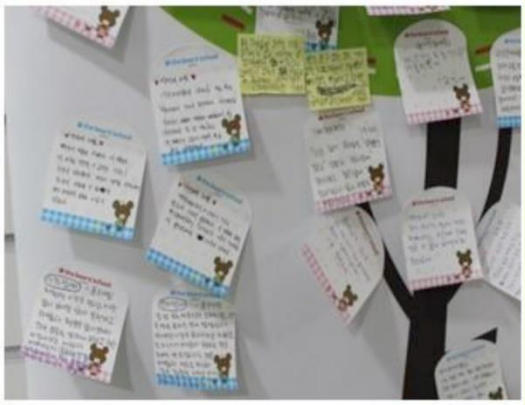
한사랑 바른인성만들기 프로젝트 **'장애인식개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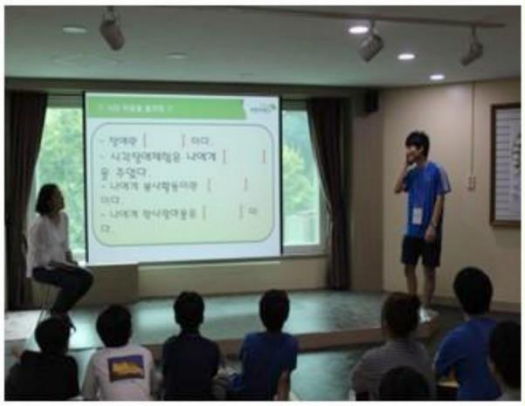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셋, 너의마음을 들려줘(소감나누기)

- 장애인식개선나무
: 언어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각 체험 후 느낀점을 포스트잇에 적고 이름을 써서 장애인식개선나무에 붙인다.

- 소감나누기
: 각 체험 후 느낀 소감을 친구들과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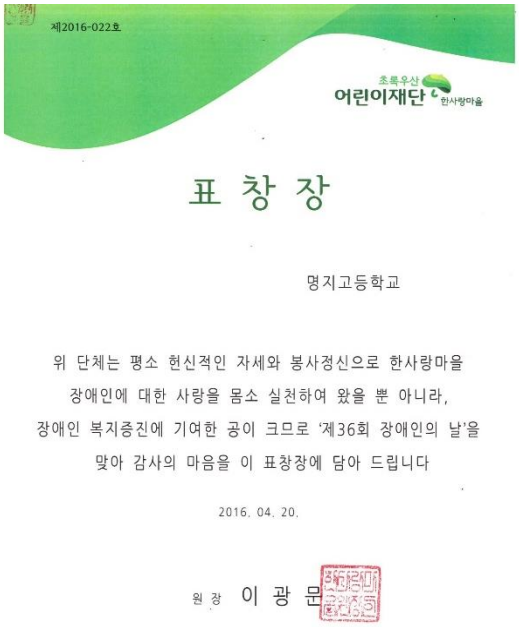




한사랑 힐링캠프

장애인의 날 기념 표창(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초록우산 기관 표창(장애인의 날)



제2016-022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표 창 장

명지고등학교

위 단체는 평소 헌신적인 자세와 봉사정신으로 한사랑마을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왔을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이 표창장에 담아 드립니다

2016. 04. 20.

원장 이 광 문

초록우산 자원봉사 확인서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번호: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2018 - 0001

단체명	명지고등학교 교목실		총인원	36명
인솔자	목사 김종화		전화번호	010-6321-7627
활 동 기 간	2018년 01월 05일(금) 15:00~19:00 ~ 01월 06일(토) 07:00 ~ 15:00 (총 12 시간)			
활 동 내 용	일상생활보조(간식 및 점심식사보조, 목욕봉사, 산책, 말벗, 환경미화)			
확인기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554번길 59-14 ☎ 031-764-2115(722)			
	확인자		후원나눔부 김 동 희 (인)	
활동인 명단	성 명	학번	성 명	학번
	백승찬	10110	오민수	10422
	김호준	10428	한시현	10633
	김성호	20104	정지훈	20427
	김지겸	20611	김재혁	20706
	김효진	10706	박찬영	10714
	임유진	10727	김수나	10807
	최은교	10831	강서윤	11101
	김새봄	11105	이유나	11123
	이지수	11225	박은서	11313
	이서현	11324	이희정	11329
	서유빈	11415	오희린	11419
	전수진	11432	박예진	20813
	박혜준	20817	성민지	20821
	이유정	20827	최정은	20941
	염정원	21020	이유림	21029
	서보경	21214	송원희	21216
	전하영	21529	정영주	21531
	이세미	21627	천소영	21634
	-	이 하	여 백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원장

한사랑 힐링캠프 소감문

한사랑 힐링캠프을 다녀와서

김민규 총학생회장

1월 9일에서 10일 중증환자들을 돕는 한사랑 힐링캠프에 다녀왔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타이틀이 있기에 봉사를 하러 가기에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지말까' 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도 봉사하러 가기로 한 선택이 그리 만족스럽지만은 못했다. 처음 경기도 광주 초록마을에 도착했을 때 맑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기왕 오기로 결정했으니 와서 열심히 봉사하다 가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짐을 풀고 캠프활동에 임하려 했지만 역시 잘되지 않았다.

초록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처음 시작한 것은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이었다.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 등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돕기 전에 먼저 장애란 무엇인가?' 에 대해 배우고 '장애' 라는 단어를 거리감 없이 받아드릴 수 있어야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처음 강의를 들을 때는 따분하고 지루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강의를 들을수록 내가 몰랐던 장애에 대한 사실들을 알게 되니, 내가 비장애인이라고 너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강의에 몰입 하게 되어버려서 강의하시는 선생님 말씀을 모두 꼼꼼하게 소책자에 필기했다.

강의를 모두 마친 후 간접적으로 장애인이 되어보는 체험을 하였는데 말을 못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언어, 시각, 지체 장애에 대한 체험을 하였다. 태어나서 장애체험은 처음 해 보았지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말을 못하고 눈이 안보이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알았고, 이러한 비장애인들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시간이었다. 캠프를 오기 전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장애인 체험을 하면서 내가 살면서 이런 체험을 언제 해볼까'라는 생각에 캠프에 처음 임했던 자세와는 다르게 정말 힐링캠프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렇게 중증환자들에게 봉사하기 전에 모든 교육을 마친 후 진정한 봉사를 하러갔다. 경기도 광주 초록우산에는 총 101명의 중증 환자들이 있는데 이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비장애인으로서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 봉사하러 들어간 방은 베드로 방 이었는데 그 방에는 나이에 비해 몸이 발달하지 못해 신체에 비해 나이를 예측하기 힘든 분들이 더러 있었다. 처음 생활실(중증환자들이 지내는 곳)에 들어가서 한일은 먼저 간단한 언어구사가 가능한 31살 창선이 형과의 대화였다. 창선이 형은 TV로 축구를 보시고 있었는데 형에게 말벗이 되어드리고 안마를 해드렸는데 무척 좋아하셔서 매우 기뻤다.

그리고 그 방에서 갑자기 어떤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형이 나와 얘기하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나에게 안기는 행동을 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옆에 봉사자 분께서 지금까지 많은 봉사자들이 왔지만 그 형이 안아준 사람은 별로 없었다며 되게 신기하다고 말씀하셨다. 1학년 때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으로 중증환자들을 도우러 2시간씩 봉사를 했었던 나였지만, 1박 2일 동안 봉사에만 전념하게 되니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간단한 언어 구사가 되는 장애환자들이 첫 번째 날 봉사하고 난후 두 번째 날 다시 봉사하러 갔을 때 반갑게 나를 맞이해주고, 기억해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고 기뻤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언제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처음에 캠프에 오기를 망설였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중증 환자들에게 진심을 다해 밥을 먹여주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군가를 위해 진심을 다해 봉사하는 내 모습이 뿌듯했고,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준 것 같았다.

한사랑 가을호 vol.87 여는 글 기고

명지고등학교 교목실장
김종화 목사

차별이 아닌 차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지구촌 40초마다 한명씩 자살한다.'라는 제목 아래 '한국이 자살 증가율 세계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80만 명 이상 자살하며 한국은 2000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가 13.8명에서 28.9명으로 자살 사망률이 109.4%로 배 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출세나 경제적 가치 추구가 아닌 '힐링'이라는 나눔과 사랑 봉사문화 확산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합니다.

한사랑마을을 알게 된 계기는 지난 여름방학 중 참가한 힐링캠프를 통해서 였습니다. 한사랑마을의 가족 대부분은 1급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신변처리부터 식사, 이동까지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나 교육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힐링캠프를 통해 장애인 인식 교육을 받으면서 놀라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는 후천적인 것이 90%(질병 55.6% 사고 34.4%)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점 이었습니다. 언어장애와 시각장애 그리고 지체장애 체험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안대 착용 후 지팡이로 걸어보고, 도움을 받아 간식도 먹어 보았습니다. 나눔 속에 고마움과 친밀함, 서로의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고, 반면에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벽에 둘러싸여 가두어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떨어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함인지 모두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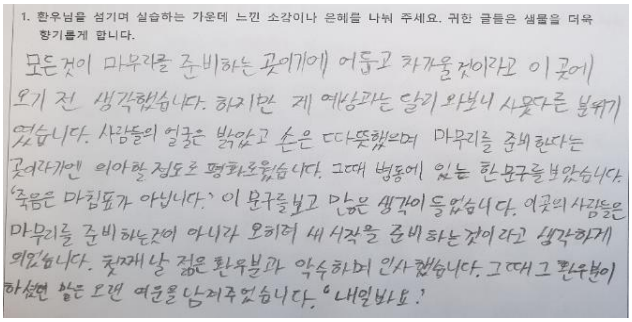
힐링캠프 속에 느낀 점이 있다면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을 때 배려와 헤아림이 가능하고 그 안에 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점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봉사자와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서 세상은 아직도 많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죽음의 문제와 폭력과 인성 문제 등 산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요새 아이스버킷 운동으로 조금이나마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생긴 이 시점에, 먼저 차별로 인한 우리 마음과 영혼의 장애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면접과 수시 등 시험 속에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봅니다. 장차 차별이 아닌 차이를 느끼며 자신의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 속에 힐링과 하나님 형상 회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록우산 베이비 키트

초록우산 베이비 키트 제작

호스피스 봉사 소감



1. 환우님을 섬기며 실습하는 가운데 느낀 소감이나 은혜를 나눠 주세요. 귀한 글들은 샘물을 더욱 향기롭게 합니다.

모든것이 마무리를 준비하는 곳에게에 어둡고 차가울것이라고 이곳에 오기 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사뭇다른 분위기 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고 손은 따뜻했으며 마무리를 준비한다는 곳이라기엔 의아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병동에 있는 한 문구를 보았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 문구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마무리를 준비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젊은 환우분과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그 환우분이 하셨던 말은 오랜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내일봐요."

입관 체험

유언장 쓰기

병실 찬양

예배 찬양

기도회

워십 댄스

기념 촬영

소록도 봉사 활동

소록도 봉사 활동 소감문

소록도 봉사대

20606 김준식

어느 날 소록도 봉사 신청자를 받는다는 담임선생님의 공지를 듣게 되었다. 나는 겨울에 갔을 때처럼 망설임 없이 바로 손을 들었다. 신청을 한 뒤 기다리던 중 이번 소록도에 가는 사람들 가운데 2학년 남자가 2명뿐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당연히 '나는 아니겠구나.' 미리 포기를 하였다. 그런데 내게 그 귀한 기회가 찾아왔다. 성적이나 스펙 짱짱한 친구들도 많이 신청했다는데 내가 되었다는 사실에 이번 봉사활동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알았다. 흔하지 않은 병원봉사일뿐더러 겨울에 갔을 때 내 마음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못내 아쉬웠는데 나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 같았다. 참가자가 발표된 후 나는 매일 소록도 가는 날만을 기다렸다. 무척이나 설레고 기대가 됐다. 2학년이라 머리도 크고 생각도 많아졌는지 가서 논다는 생각보다는 열심히 봉사해야지 라는 생각만이 들었다.

출발하기 하루 전날 아버지께 많은 교육을 받고 짐도 싸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당일 아침 1교시 수업을 마친 후 명지 전문대 앞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역시나 긴 여정이었다. 마침내 소록대교를 건너고 겨울에 보았던 풍경과 달리 푸르러진 나무들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소록도 병원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도착해서 우리는 방에 짐을 놓고 밑에서 모여 한 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다. 그 날은 시간이 맞지 않아 바로 방에 들어가 쉬는 걸로 했다. 방에서 1학년 후배들과 과자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 새벽 4시 30분에 우리는 기상을 했다. 평소와는 너무도 다른 기상시간이라 모두들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졸린 눈을 비벼가며 우리는 처음으로 나눠진 조에 따라 4개의 병동으로 흩어졌다. 나는 행복병동으로 갔는데 그곳은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곳이고 그 곳 환자분께서 돌아가시는 날이 퇴원하는 날이 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한다는 말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기 기저귀도 갈아보지 못한 내가 할아버지 기저귀를 갈아 드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자 좀 걱정이 됐다. 병동에 들어가자 같이 봉사했던 개인 봉사자 형이 우리들에게 비닐장갑을 끼라고 하셨다. 드디어 걱정했던 기저귀 가는 시간이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형이 기저귀 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 시도를 해보았는데 역시 기저귀 고정 스티커에 비닐장갑이 다 뜯기고, 기저귀의 위아래 방향을 구분 못해서 다시 갈아드리기도 했다.

그렇게 힘들고 어설픈 시간이 지나고 환자분에게 바로 앞치마를 해드리고 식사 준비를 했다. 식사가 오기 전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어르신들이 드시는 물이었다. 어떤 분은 주전자에 있는 차가운 물을, 플라스틱 컵에 미지근한 물을, 또 다른 분은 아예 뜨거운 물을 드시는 분도 계셨다. 식사하시는 방법도 다 달랐다. 어떤 분은 밥을 매번 반찬과 비벼 드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국물을 드셨다. 그렇게 식사 수발을 하고 긴장된 새벽봉사가 끝났다. 아침을 먹은 뒤 다

시 숙소에 들어와 다음 봉사시간 전까지 휴식을 취했다. 8시 50분 우리는 다시 병동으로 향했다. 가서는 수건을 빨아서 어르신들께 세면을 시켜드렸다. 물론 그 전에 기저귀도 갈았다. 그렇게 하고 다시 점심 식사 수발을 들고 아침 봉사가 끝났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는 개인 봉사자 형들과 마을에 있는 탁구장에 갔다. 가서 마을 어르신께 한수 배우고 형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휴식도 잠시였고, 다시 12시 50분에 우리는 병동으로 갔다. 역시나 가자마자 기저귀를 갈고 잡일들을 한 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 시간은 장기자랑 시간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보여드리는 시간이었다. 역시나 소록도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를 다니셔서 내가 부른 찬양이 할머니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특히 한 분은 나를 당신의 손자를 닮았다고 하셨다. 손자 분께서 잘생기셨나 보다.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할아버지께 양치도 해드렸다. 몇 개 없는 치아였기에 할아버지 잇몸 다치시지 않게 열심히 성심성의껏 해드렸다. 또 특이한 한 분이 계셨는데 무조건 KBS 라디오만을 들으시는 분이셨다. 남는 시간 동안은 성경을 읽어드렸더니 무척이나 좋아하셨다. 그렇게 장기자랑 시간을 다 보내고 저녁 식사 수발을 들고 우리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자기 전까지는 쉬는 시간이었는데 힘들어서 정말 쉬는 시간으로 보냈다. 두 번째 세 번째 날도 이렇게 보냈는데 세 번째 날에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둘째 날에 할아버지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세 번째 날 아침에 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나를 부르시고는 '여기 서랍 열면 커피가 있는데, 나 찐하게 한 잔 타주고 자네도 한 잔 하시게.' 하시면서 아껴 드시는 커피를 나에게 주셨다. 그 커피를 받고 정말 뿌듯함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다. 받자마자 친구들에게 자랑하고는 지금도 내 책상서랍에 고이 남아있다.

병원봉사는 처음이라 많이 낯설고 손과 발이 거의 없으신 환자분들이라 조금 어려웠지만 금방 금방 적응하고 어르신들에게 대하는 것이 마치 우리 친할머니에게 하듯 대하게 되었다. 진심으로 그분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었고 정말로 내가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어르신들께서 좋으시다면 다 해드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또한 이번 봉사를 통해 깊이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불편한 어르신들끼리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가신다는 점이었다.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시는 환자분이 계신데 그 옆에서 다른 할아버지들이 그 할아버지의 이부자리도 정리 해주시고 식사하실 땐 앞치마도 제대로 해드리며 챙기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 건강한 내가 친구들을 돕고 살아왔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친구를 놀리기나 하고 매점에서 빵 하나 사주지 못하는 나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느낀 점은 신앙적인 면이었다. 항상 KBS만을 들으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마지막 날인 주일날은 교회에 같이 갔다. 할아버지께서는 예배시간을 맞추시려고 30분 더 일찍 나가셨고 힘드신 몸을 이끌고 매주 가신다고 하셨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나였지만 요즘 신앙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점을 느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과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많은 말들을 해주고 싶어졌다. 엄청난 경쟁률 속에서 특별하지도 않은 내가 가는 것이 눈치도 보였지만 가서 많은 걸 배웠고 다녀와서는 감사한 마음과 뿌듯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부족한 나에게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많은걸 깨닫게 해주신 분께도 감사하고 내 평생을 가난하고 힘들어 하는,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귀한 시간이었다.

학생간부수련회(크리스천리더십캠프)

세족예배(명지학원)

부활절 예배

성령강림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성탄절 예배

선교부장반 활동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RUBY KENDRICK
RUBYE RACHAEL
KENDRICK
B. JAN. 26. 1883

네 마음을 지키라

연세창립 132주년·함동60주년 | 세브란스 역사 기록화 전시
History of Severance

크리스천 리더십 캠프

선교부장 리더십 캠프

명지대학교교회

양 화 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훈처 나라사랑 교육

이화박물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언더우드가(家) 기념관

학부모 기도회 모임

안산 쉼터

한국교육자선교회 찬양

뮤지컬 관람

신앙 부흥회 찬양

수능 중보 기도회

학부모 기도회 간증

우리들의 이야기

이 선 영 학부모님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사건사고들... 상식적으로 생각조차 할 수없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범죄유형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성보다는 성적을 더 중요시하며 우리 아이들을 채찍질하는 우리부모들... 마치 그것이 목표인것처럼 살아가고있는 우리 아이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이들이 행복 할 수 있을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다.

아이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품고 학교에 갈 때마다 2년 정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학부모와 장소를 허락해주세요"라고 때를 쓰듯 기도했다.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명지고 학부모 기도회이다. 중학교때 기도했던 열매가 이미 고등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셨다.

지금은 고3... 3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더니 한번도 빠지는 일 없도록 모든 환경까지도 열어주셨다. 매주 1회 2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나는 이 기도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이모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며 이름도 빛도 없이 조선이란 땅에 들어와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선교사님들처럼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이곳 현장에서 기도의 씨앗을 많은 선배님들과 선생님들 그 외 많은 중보기도를 통해 이학교가 세워졌으며 지금도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도할때마다 느끼게 된다. 또한 예수님이 죄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셨듯이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비방하며 정죄하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날마다 소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수시로 기도한다.

명지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한 명 희 학부모님

명지 기도회 활동은 저에게 사색할 시간과 더불어 학교 설립 정신을 바로 알게 해주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 시간 중에 신앙의 명문가라는 귀한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빛도 값도 없이 우리를 위해 선교의 뿌리를 내려주신 신앙의 선진들과 보잘 것 없고 미개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인생을 바치고 죽도록 충성하신 선교사님들의 봉사와 헌신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저의 기도내용과 제가 예은이에게 바라는 가치관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딸의 명지고 재학시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주제로 함께 대화했고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한 귀한 사람이 되자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제 말에 공감하였고 자연히 공부는 본인의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 문제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은이는 고등학교 3년 생활을 즐겁게, 많은 추억을 남기며 생활했습니다. 더불어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하는 영광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예은이는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대학에서도 상위 5%의 성적을 유지하며 앞으로의 비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념으로 잘 키워주신 명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입시 준비가 한창일 명지 기도회 어머님들께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젼과 재능으로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학부모 기도회 안내(가정통신문)

명 지 통 신 MYONGJI HIGH SCHOOL 제 2023 - 13 호	2023학년도 학부모 기도회 안내	담당부서 : 교 목 실 담 당 자 : 김 종 화 연 락 처 : 305-5951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교목실에서 <학부모 기도회>에 대해 안내합니다.

아직 긴장감이 남아 있는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에서의 불안감, 교육정책의 변화 속에 날로 치열해지는 입시경쟁, 사회와 가정문제 등으로 학생들의 마음과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설립정신을 구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명지고등학교의 교육적 시도들은 교육의 새로운 개척자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로 과거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과정운영 자율학교 지정, 현재 MOU 체결을 통한 서울시교육청 및 월드비전 후원인증학교, 월드비전 나눔클래스/사랑의 빵/세계시민교육 베이직포걸스 캠페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1급중증장애인) 협력 기관 봉사활동 및 초록우산 품다 캠페인, 샘물호스피스(말기암환자) 봉사활동, 감리교신학대학교 및 서울신학대학교 협약서 체결을 통한 인성과 영성 교육 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교선택제 서대문지역 경쟁률 1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호도 속에 교육계 및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교육 활동의 바탕은 본교의 기독설립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신앙' 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맡기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선생님과 재학생, 동문, 학부모님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선한 목자요 우리의 스승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교육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회와 교무실별 기도회는 물론, 간부 기도회, 교사기도회, 릴레이 금식기도회 등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매주 첫시간 채플을 통한 바른 인성과 영성 함양, 크리스천 리더십을 통한 미래지도자의 바른 성품을 교육하고, 학급목회팀을 운영하며 매일 방송을 통한 아침 큐티 '나눔의 시간' 으로 진지한 삶에 대한 성찰을 합니다. 함께 말씀 속에 주 안에서 목적있는 삶을 다짐하며 주 안에서 비전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의 의미를 기억하며 사순절 고난 주간에는 사랑과 섬김 '세족예배', 절기예배 시 소외된 이웃들과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 긴급구호 등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이웃 사랑 나눔 실천을 해왔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학교와 자녀들의 비전을 위해 기도로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교목실 주관으로 명지총동문회 신우회 동문 목사님들과 함께 지난 18년간 <학부모 기도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작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한 나눔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대면 모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신 학부모님 간의 교류를 통하여 염려와 불안을 은혜와 간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기도회 참석하신 분들이 졸업 후에도 함께 모임을 가질 만큼 좋은 나눔의 자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밴드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류와 안내를 하겠습니다. 교사, 동문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가 하나되어 기도함으로, 힘든 고교 시절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명지고등학교 학부모 기도회 온라인 모임

- 초대링크 https://band.us/n/aaac6axe48M95
- 문의: 교목실 305-5951(내선 501)
  리로스쿨 및 홈페이지에도 안내합니다

QR 모임 링크

2023 년 3 월 15 일

명 지 고 등 학 교 장

명지학원 취임선서

就 任 宣 誓

所 屬: 명지고등학교
職 級:
補職名:
姓 名:
住民登錄番號: -*******

本人은 學校法人 明知學園이 維持經營하는 上記機關의 職에 就任함에 있어

1. 私立學校法을 비롯한 關係法令과 學校法人 明知學園 定款을 비롯한 諸規定을 遵守할 것과
2. 特히 우리 明知學園의 設立精神인 純粹한 基督敎 精神을 具現하기 위하여 福音主義 敎會에서 眞實한 信仰生活에 힘쓰고
3. 學園과 民族과 人類福音化에 積極協力하며
4. 分擔業務處理와 學生生活을 돌보아 주는데 精誠을 다하여
5. 우리 學校敎育 發展과 明知學園 事業發展에 貢獻할 것을 信實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學校法人 明知學園에 대하여 宣誓합니다.

年 月 日

宣誓者

法人事務處保管

40 일 릴레이금식 중보기도표

교직원 학생 학부모

4 0 일 릴 레 이 금 식 기 도 표

*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실 분은 해당일 아래 빈칸에 이름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중복 가능).

(금식 해당하는 전날에 확인 연락해드립니다) 2022. 12. 16.(현재)

NO	날 짜	아 침	점 심	저 녁
1	2022.12.12(월)	김종화	도은아	박재현
2	13(화)	류영천	장들림	박현정(모)
3	14(수)	김애자	남궁현	박현정(모)
4	15(목)	김성태 이태경(학)	김하경(학) 양성진(학)	선수정
5	16(금)	김근호 이다솔(학) 우연서(학)	김근호	이현수
6	17(토)	박진태	정진욱(학)	여경기
7	18(일)	김종화	도은아	전고은
8	19(월)	류영천	장들림	이현정
9	20(화)	노태윤	윤서준(학)	박미숙(모)
10	21(수)	정인영	남궁현	조규동
11	22(목)	서영자	신채섭	유은실
12	23(금)	김현철	전희영	이은미
13	24(토)	이현수	조철훈	박재홍
14	25(일)	조규동	도은아	안수진 현태우(학)
15	26(월)	김성태	우맹식	서인혜 황은규(학)
16	27(화)	류영천	박미숙(모)	배현주
17	28(수)	김애자	양정욱	조규동
18	29(목)	오영민	신채섭	배현주
19	30(금)	김현철	조철훈	유호영(학)
20	31(토)	이현수	김하윤(학)	정흥수
21	2023. 1. 1(일)	최연권	도은아	김영호
22	2(월)	민한샘	오영민	유은실
23	3(화)	차주영 박선주(학)	정하연(졸)	안은정
24	4(수)	노태윤	양정욱	김창숙
25	5(목)	현 홍	신채섭	박서영
26	6(금)	박대현	박현서	이현수
27	7(토)	이대길	이은미	도은아
28	8(일)	전용집	김채은(학)	강덕보
29	9(월)	박석종	김영아(학)	김영호
30	10(화)	서영자	김주훈	안은정
31	11(수)	정인영	양정욱	박시연
32	12(목)	박옥선(모)	신채섭	이용현(학)
33	13(금)	박옥선(모)	박혜인(학)	서인혜
34	14(토)	이현수	김수경	정흥수
35	15(일)	이대길 최연권 이진환	정흥수	강덕보
36	16(월)	정하연(졸)	전희영	현 홍
37	17(화)	장혜경(모)	이은미	도은아
38	18(수)	김애자	박재홍	안수진
39	19(목)	장혜경(모)	신채섭	도은아
40	20(금)	노태윤	정하연(졸)	김종화

학생(학) 학부모(모) 졸업생(졸)

< 중보기도 제목들 >

- 명지학원의 회복과 기독설립정신구현을 위해서
- 수험생들의 진학과 재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영육의 강건함과 학기말을 위해서
- 성탄절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 연말, 연시 그리스도의 평안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당하시는 시간에는 각자 처한 장소에서 금식하시며 중보기도 제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어둠을 이기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소망과 평안으로 하나 되는 릴레이 금식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릴레이금식 중보기도표

2023 학년도 사순절
릴 레 이 금 식 기 도 표

2023. 3. 18.현재

NO	날 짜	아 침	점 심	저 녁
1	3. 19(주일)	김종화	양정욱	김영호
2	20(월)	이대길	장혜경(모)	강금화(모) 김가현(학)
3	21(화)	송은경	신채섭	이은미
4	22(수)	오영민	이화숙(모)	정홍수
5	23(목)	윤보현	김지환(학)	박재현
6	24(금)	김현철	이은미	이현수
7	25(토)	박진태	양정욱	조규동
8	26(주일)	노태윤	도은아	김영호
9	27(월)	이대길	김하윤(학)	안은정
10	28(화)	박재준	김은경(모)	이은미
11	29(수)	안수진	이화숙(모)	정홍수
12	30(목)	류영천	신채섭	서인혜
13	31(금)	김현철	이은미	안수진 이현수
14	4.1(토)	차주영 윤보현	양정욱	김근호
15	2(주일)	노태윤	도은아	정홍수
16	3(월)	김성태	신채섭	우맹식
17	4(화)	오영민	박재준	김성태 박현정(모)
18	5(수)	정인영	윤서준(학)	장들림
19	6(목)	유은실	신채섭	도은아
20	7(금)	김현철	김종화	이현수
21	8(토)	노태윤	도은아	김종화

(학)학생 (모)학부모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로, 이 기간 자기 근신과 금식의 기간 즉 영적 훈련을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3월 19일(주일)부터 4월 8일(토)까지 그리스도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려 합니다.

명지학원의 회복과 설립정신 구현, 교직원과 학생과 가정과 나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주를 향한 완전한 희생을 체험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 속에 부활의 신비를 기다리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암송대회

월요채플(예배) 안내표

2023학년도 명지고등학교 예배

월	일	예배(학년)	학년	반	주관 및 찬양				비 고
					사회(담임)	기도(선교)	성경(회장)	특별연주	
3	2	**시업 예배(2,3)**	**교목실**		도은아	이은미	인도자	정흥수	
	6	**신입생 입학환영 예배**	**총학생회**		윤보현	김지환	김가현	총학임원	사순절 릴레이 금식기도 (3/19~4/8)
	13	월요 예배	3	5	김태환	방유민	노 균		
	20	월요 예배	3	14	염주희	박예은	배소은		
	27	월요 예배	3	6	이성용	이정준	김현준		
4	3	**세족 예배**	3	9	이정은	김동은	우채원		
	10	**부활절 예배**	2	8	김지연	전채연	유호영		4/14 개교기념일
	17	월요 예배	2	2	박인근	이정민	허 원		
	24	월요 예배	3	4	남궁현	안상원	이민우		4/26~5/2 중간고사
5	15	월요 예배	1	3	김근호	양승환	한승준	교생특송	5/8 재량휴일
	22	월요 예배	1	2	김주훈	김민찬	김민상		5/29 재량휴일
6	12	**성령강림절 예배**	1	13	전고은	최지유	박소영		
	19	월요 예배	2	11	고아라	박아연	박혜민		
	26	월요 예배	2	13	전희영	김난희	강 온		6/28~7/4 기말고사
7	10	월요 예배	1	15	조선아	김한나	김민서		
	12	부흥회	1	4	김완상	길두호	범예준		
	13	부흥회	2	4	조규동	장예담	장예담		
	14	부흥회	3	12	김미영	배소영	황준인		
	21	**방학예배(세례식)**	2	12	집례자				MCS (집례:교목실)
8	16	개학 예배	1	7	김혜지	최승원	이예성		
	21	월요 예배	2	14	이소정	정혜정	정혜정		8/23~8/30 고3 중간고사
9	4	월요 예배	1	8	서인혜	안리진	고수민		
	11	월요 예배	1	1	이규석	박지원	박지원		
	18	월요 예배	1	9	이희대	김영운	장서빈		
	25	월요 예배	2	6	백선영	김하경	한주연		9/28~10/3추석연휴
10	16	월요 예배	2	9	정흥수	박우솔	김경언		10/5~10/12 중간고사
	23	월요 예배	2	7	김현정	이다솔	장솔미		
	30	**추수감사절 예배**	2	10	이혜진	김진원	권세민		
11	6	월요 예배	1	12	문지윤	홍지효	김단아		
	13	**수능특별예배**	3		오영민	신경헌	인도자		11/20~11/27 고3 기말고사
12	4	월요 예배	2	15	유은실	유가현	정현주		12/7~12/13 기말고사
	18	**성탄절 예배**	1	6	이혜승	진혜린	이선우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12/11~1/19)
	29	**종업예배(세례식)**	1	10	집례자				MCS (집례:교목실)
2	5	**개학 예배(1,2)**	2	3	김영호	김강태	이강건		
	6	**졸업예배(3)**	3		오영민	안수진	사회자		명지대학교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학년별 예배(월): 1교시(다목적관 이동 or 주관반 이동)
*주관반 준비사항: 사회(담임), 기도(선교부장), 성경봉독(회장), 찬양(특송, 특주 등)
*교직원 예배(매월 마지막째 주 수요일 6교시)
주관(주임교사) 국어과(차주영), 사회과(박현서), 수학과(안수진), 과학과(김현철), 외국어과(이희대), 예체능과(박진태),
*3/29(교목실, 신임교사), 5/31(사회과), 7/19(과학과), 9/20(국어과), 10/25(외국어과), 11/29(상담, 특수, 예체능과), 12/27(수학과)

2023 년 명지고등학교 달력

명지고등학교 포스터

명지고등학교 세 례 예 식
세례 식
초록우산 MOU 체결
월드비전 MOU 체결
감신대 MOU 체결
서울신대 MOU 체결
안수 기도회
졸업예배
설립자 산상예배
초록우산 힐링캠프
크리스천 리더십 캠프
월드비전 기아체험
신앙 부흥회
세족식
Certified School
명지고등학교는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과 함께 나눔을 실천합니다.
명지고등학교
현 세 용 이사장
노 태 윤 교장
김 종 화 교목
설립정신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민족문화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케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목적이며 설립정신이다.
주후 1956년 1월 23일 설립자 유 상 근
고교 3년, 신앙안에서 자란 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친구들과 정성 모아 아프리카 아동 후원
명지고등학교
0 3 6 5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2길 56
TEL. 02)305-5951(내선 501)
FAX. 02)373-7002
http://myongji.sen.hs.kr
https://myongjigo.riroschool.kr
명지고등학교 홈페이지 QR
명지고등학교 리로스쿨 QR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Jonghwa Kim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Republic of Korea, Sep 24, 1971

Parent`s Names: Hanbae Kim / Youngja Kim

EDUCATIONAL INSTITUTIONS

School (Name and Address)		Degree	Date
Secondary:	**Shinil High School** 50, Solmae-ro 49-gil, Gangbuk-gu, Seoul,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4, 1990
Collegi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B.A	Aug 30, 1997
Gradu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M.Div.	Feb 18, 2003
Graduat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M.Ed.	Feb 23, 2004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Jonghwa Kim

Name typed

March 15. 2023

Date